



정답과 해설·채움 문법

I 음운	4
II 단어	22
III 문장과 담화	39
IV 국어 규범	69
V 국어의 역사	76

빠른 정답 찾기

I 음운

본문 12~41쪽

01	확인	1 (1) × (2) × 2 ③ 3 (1) × (2) × (3) ○ 4 (1) 동글게 (2) 껌 (3) ㄱ
	A	1 ③ 2 ④ 3 ③ 4 ① 5 ② 6 ① 7 ⑤
	B	1 ④ 2 ① 3 ① 4 ④ 5 ③
02	확인	1 (1) ㄱ (2) ㄷ (3) ㅂ 2 (1) ○ (2) ○ (3) × 3 ① 4 ㄴ
	A	1 ① 2 ④ 3 ④ 4 ④ 5 ⑤ 6 ⑤ 7 ① 8 ①
	B	1 ③ 2 ④ 3 ④ 4 ④
03	확인	1 ③ 2 (1) × (2) ○ (3) ○ (4) × 3 (1) ㅅ, ㅈ (2) ㅊ, ㅌ (3) ㄷ 4 ① 5 (1) ○ (2) × (3) ○
	A	1 ④ 2 ④ 3 ③ 4 ④ 5 ③ 6 ② 7 ⑤
	B	1 ⑤ 2 ① 3 ⑤ 4 ③
04	확인	1 ③ 2 ① 3 (1) ㄷ (2) ㅅ 4 (1) ㄱ, ㄷ (2) ㄴ, ㄷ 5 (1) 가라 (2) 썼다 (3) 펴서 (4) 담가서
	A	1 ② 2 ① 3 ① 4 ⑤ 5 ① 6 ③
	B	1 ② 2 ⑤ 3 ④ 4 ①
05	확인	1 (1) ㄱ, 추카 (2) ㄷ, 만:타 (3) ㅂ, 자피다 2 ① 3 (1) ○ (2) × (3) × (4) ○ 4 ㄴ, ㄷ
	A	1 ④ 2 ① 3 ④ 4 ② 5 ② 6 ③ 7 ① 8 ③
	B	1 ① 2 ① 3 ⑤ 4 ②

II 단어

본문 44~73쪽

06	확인	1 (1) ○ (2) × (3) ○ 2 (1) 의존 (2) 형식 3 ③ 4 ㄴ, ㄷ
	A	1 ⑤ 2 ④ 3 ② 4 ③ 5 ⑤ 6 ⑤ 7 ① 8 ①
	B	1 ⑤ 2 ⑤ 3 ③ 4 ②

07	확인	1 (1) × (2) × (3) ○ 2 ③ 3 (1) 의미 (2) 같 은 (3) 뒤 4 ① 5 ③
	A	1 ⑤ 2 ③ 3 ③ 4 ③ 5 ④ 6 ① 7 ③
	B	1 ① 2 ② 3 ① 4 ⑤
08	확인	1 (1) 용언 (2) 형용사 (3) 목적어 2 ㄱ 3 ② 4 ③ 5 (1) ㄱ, ㄷ (2) ㄱ, ㄷ, ㄷ, ㄷ
	A	1 ③ 2 ② 3 ② 4 ④ 5 ④ 6 ④ 7 ② 8 ④
	B	1 ⑤ 2 ④ 3 ⑤ 4 ④
09	확인	1 (1) 체언 (2) 용언 2 (1) 부 (2) 부 (3) 관 3 ① 4 ③ 5 (1) ○ (2) × (3) ○ (4) ×
	A	1 ② 2 ④ 3 ⑤ 4 ③ 5 ② 6 ① 7 ⑤ 8 ④
	B	1 ④ 2 ③ 3 ① 4 ① 5 ②
10	확인	1 ③ 2 (1) 중 (2) 주 (3) 주 3 ② 4 (1) 상 의어 (2) 상하 관계, 운동 - 달리기
	A	1 ① 2 ③ 3 ③ 4 ③ 5 ① 6 ② 7 ③
	B	1 ⑤ 2 ② 3 ④ 4 ②

III 문장과 담화

본문 78~131쪽

11	확인	1 ㄱ, ㄷ, ㄹ 2 (1) × (2) × (3) ○ 3 (1) 목 (2) 보 4 (1) 보조사 (2) 뒤, 앞 (3) 체언 5 ㄴ
	A	1 ④ 2 ⑤ 3 ④ 4 ② 5 ① 6 ④ 7 ③
	B	1 ⑤ 2 ③ 3 ④ 4 ⑤ 5 ① 6 ①
12	확인	1 (1) 지시 (2) 의존 명사, 관형어 (3) 문장, 엄마 와 (4) 자유로움 2 ① 3 (1) × (2) × (3) ○ 4 ㄷ 5 ㄱ, ㄷ, ㄹ, ㅅ
	A	1 ② 2 ⑤ 3 ② 4 ⑤ 5 ② 6 ③ 7 ② 8 ①
	B	1 ② 2 ④ 3 ② 4 ③

13	확인	1 (1) 겹 (2) 겹 (3) 홑 (4) 겹 2 (1) -아야 (2) 안 긴문장 (3) -지만, 이어진문장 3 (1) 목적·의 도 (2) 양보 (3) 선택 4 (1) ○ (2) × (3) ○
	A	1 ③ 2 ② 3 ② 4 ③ 5 ④ 6 ① 7 ④
	B	1 ⑤ 2 ⑤ 3 ④ 4 ⑤ 5 ⑤ 6 ⑤
14	확인	1 ① 2 (1) ○ (2) ○ (3) × 3 (1) 관 (2) 부 4 (1) ㄴ (2) -아서, -게 5 ③
	A	1 ① 2 ④ 3 ④ 4 ④ 5 ① 6 ② 7 ③
	B	1 ⑤ 2 ⑤ 3 ③ 4 ② 5 ④
15	확인	1 ㄱ, ㄹ 2 (1) 해체, 해요체, 친근감 (2) 하십 시오체, 공적 (3) 두루낮춤, 아주높임, 두루높임 3 (1) × (2) × (3) ○ 4 ㄱ, ㄴ
	A	1 ① 2 ⑤ 3 ① 4 ② 5 ③ 6 ② 7 ① 8 ②
	B	1 ② 2 ③ 3 ⑤ 4 ⑤
16	확인	1 (1) 지금, 현재 (2) 어제, 과거 (3) -겠-, 미래 2 (1) 완 (2) 완 (3) 진 3 ① 4 (1) × (2) ○
	A	1 ① 2 ② 3 ② 4 ④ 5 ④ 6 ⑤ 7 ③
	B	1 ⑤ 2 ④ 3 ① 4 ③ 5 ②
17	확인	1 ② 2 (1) ○ (2) × (3) × 3 (1) 주 (2) 사 (3) 사 (4) 주 4 (1) 주어 (2) 목적어, 부사어 (3) -이우-
	A	1 ① 2 ④ 3 ③ 4 ④ 5 ② 6 ② 7 ④
	B	1 ② 2 ② 3 ⑤ 4 ⑤
18	확인	1 (1) ㄱ (2) ㄴ (3) ㄷ (4) ㄹ 2 ② 3 (1) × (2) ○ 4 ②
	A	1 ④ 2 ④ 3 ② 4 ① 5 ① 6 ① 7 ③
	B	1 ④ 2 ④ 3 ③ 4 ⑤
19	확인	1 (1) 맥락 (2) 간접 발화 (3) 담화 2 ③ 3 (1) ○ (2) ○ (3) × 4 (1) ㄱ (2) ㄴ (3) ㄷ
	A	1 ⑤ 2 ⑤ 3 ④ 4 ⑤ 5 ② 6 ⑤
	B	1 ⑤ 2 ④ 3 ③ 4 ④

IV 국어 규범

본문 136~147쪽

20	확인	1 (1) ○ (2) ○ (3) × 2 ③ 3 (1) 골프 (2) 풋 볼 (3) 카페 4 ②
	A	1 ③ 2 ① 3 ③ 4 ① 5 ④ 6 ① 7 ⑤
	B	1 ③ 2 ② 3 ④ 4 ③
21	확인	1 ① 2 (1) ㄴ, ㄷ, ㄹ (2) ㄹ, ㄱ 3 (1) haedoji (2) Wangsimni 4 (1) Bakha (2) Gyeong
	A	1 ③ 2 ① 3 ① 4 ⑤ 5 ① 6 ①
	B	1 ③ 2 ① 3 ② 4 ④

V 국어의 역사

본문 150~167쪽

22	확인	1 (1) × (2) ○ (3) × 2 (1) 입 (2) 혓소리 (3) 초 출자 (4) · 3 (1) × (2) × (3) ○ (4) ○ 4 ③
	A	1 ② 2 ① 3 ③ 4 ③ 5 ⑤
	B	1 ⑤ 2 ③ 3 ⑤ 4 ② 5 ①
23	확인	1 (1) ㄷ (2) ㄱ (3) ㄴ 2 ② 3 (1) 이어 적기 (2) ㅅ (3) 한자어 4 (1) ○ (2) × (3) ○
	A	1 ⑤ 2 ⑤ 3 ① 4 ④ 5 ② 6 ⑤
	B	1 ⑤ 2 ④ 3 ③ 4 ③
24	확인	1 (1) × (2) ○ (3) × 2 (1) 이 (2) ㅅ (3) 톨 (4) ㅅ라 3 ③ 4 (1) 설명 (2) 객체 (3) 미래 5 ②
	A	1 ① 2 ① 3 ⑤ 4 ① 5 ① 6 ①
	B	1 ④ 2 ① 3 ③ 4 ③

확인 1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 (2)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가 흘러 나가는 통로가 매우 좁아 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것과 같은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이다. 공기가 목 안이나 입안에서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는 모음이다.

확인 2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ㅎ’은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지만, ‘ㅅ’은 윗잇몸과 혀 끝이 닿아서 나는 소리이다.

왜 오답

- ① 여린입천장과 혀의 뒷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여린입 천장소리로, ‘ㄱ, ㄴ, ㄷ, ㄹ’이 있다.
- ②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입술소리로, ‘ㅂ, ㅃ, ㅍ, ㅁ’이 있다.

확인 3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모음 ‘ㅜ’는 고모음으로, 저모음인 ‘ㅓ’보다 입을 조금 벌리고 혀를 높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음한다.
- (2) 모음 ‘ㅓ’는 저모음으로, 고모음인 ‘ㅜ’보다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낮춘 상태에서 발음한다.
- (3) 모음 ‘ㅣ’는 전설 모음으로, 후설 모음인 ‘ㅛ’보다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앞쪽에 둔 상태로 발음한다.

확인 4 답 (1) 둥글게 (2) ㄴ (3) ㄹ

이래서 정답

- (1) 모음 ‘ㅛ’는 원순 모음으로, 평순 모음인 ‘ㅓ’보다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한다.
- (2) 이중 모음 ‘ㅓㅓ’는 반모음 ‘ㅓ’와 단모음 ‘ㅓ’가 결합한 것이다.
- (3) 이중 모음 ‘ㅓㅓ’는 반모음 ‘ㅓ’와 단모음 ‘ㅓ’가 결합한 것이다.

1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에는 앞의 ‘달’, 뒤의 ‘굴’과 모두 최소 대립쌍인 단어가 들어간다. ‘둘’과 ‘달’은 ‘ㄴ’과 ‘ㄷ’의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고, ‘둘’과 ‘굴’은 ‘ㄷ’과 ‘ㄱ’의 차이로 의미가 구별된다. 따라서 ‘둘’은 ‘달’과 ‘굴’ 모두와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이다.

왜 오답

- ① ‘꿀’과 ‘굴’은 ‘ㄴ’과 ‘ㄱ’에서만 차이가 있는 최소 대립쌍이지만, ‘꿀’과 ‘달’은 ‘ㄴ’과 ‘ㄷ’, ‘ㄴ’과 ‘ㄷ’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 ② ‘답’과 ‘달’은 ‘ㅂ’과 ‘ㄷ’에서만 차이가 있는 최소 대립쌍이지만, ‘답’과 ‘굴’은 ‘ㄷ’과 ‘ㄱ’, ‘ㅂ’과 ‘ㄴ’, ‘ㅂ’과 ‘ㄷ’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 ④ ‘말’과 ‘달’은 ‘ㅁ’과 ‘ㄷ’에서만 차이가 있는 최소 대립쌍이지만, ‘말’과 ‘굴’은 ‘ㅁ’과 ‘ㄱ’, ‘ㅂ’과 ‘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 ⑤ ‘풀’과 ‘굴’은 ‘ㅍ’과 ‘ㄱ’에서만 차이가 있는 최소 대립쌍이지만, ‘풀’과 ‘달’은 ‘ㅍ’과 ‘ㄷ’, ‘ㄴ’과 ‘ㄷ’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2 답 ④

보기 | 오려 보기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

이래서 정답

- ④ ‘먹’의 가운데소리 ‘ㄴ’은 첫소리의 오른쪽에 쓰지만, ‘목’의 가운데소리 ‘ㅛ’는 첫소리의 아래쪽에 쓴다.

왜 오답

- ① ‘ㅁ’을 음절의 첫소리, ‘ㄴ’을 가운데소리, ‘ㄱ’을 끝소리로 조합하면 ‘먹’이라는 단어가 된다.
- ② ‘먹’에서 가운데소리인 ‘ㄴ’을 ‘ㅛ’로 바꾸면 ‘목’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된다.
- ③ ‘목’의 첫소리인 ‘ㅁ’은 ‘곰’의 끝소리로 쓰이고, ‘목’의 끝소리인 ‘ㄱ’은 ‘곰’의 첫소리로 쓰인다.
- ⑤ 음운이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는 것은, 자음이나 모음, 즉 음운을 여러 가지로 결합하여 뜻이 다른 여러 단어들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보기>에 제시된 승리 조건 중 첫 번째는 전설 모음을, 두

번째는 평순 모음을, 세 번째는 고모음을 의미한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은 'ㅣ'이다.

③ 왜 오답

- ① 'ㅐ'는 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이지만, 고모음이 아니다.
- ② 'ㅑ'는 고모음이지만, 전설 모음, 평순 모음이 아닌, 후설 모음, 원순 모음이다.
- ④ 'ㅓ'는 전설 모음이자 고모음이지만, 평순 모음이 아닌, 원순 모음이다.
- ⑤ 'ㅕ'는 평순 모음이지만, 전설 모음, 고모음이 아닌, 후설 모음, 저모음이다.

4 답 ①

음운

② 이래서 정답

- ① 'ㅐ'는 저모음(개모음), 'ㅑ'는 중모음(반개모음)이므로 '내'는 '네'보다 입을 더 크게 벌리고 혀를 낮춰 발음해야 한다.

③ 왜 오답

- ②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려 발음하는 것은 원순 모음이므로 '내', '네'와는 관련이 없다.
- ③ '내'는 저모음이므로 중모음인 '네'보다 혀의 높이를 더 낮춰서 발음해야 한다.
- ④ '내'와 '네'는 둘 다 전설 모음이므로,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로는 둘의 발음을 구별하기 어렵다.
- ⑤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는 것은 단모음이고,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달라지는 것은 이중 모음이다. '내'와 '네'는 둘 다 단모음이므로,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 여부로는 둘의 발음을 구별하기 어렵다.

5 답 ②

음운

② 이래서 정답

- ② ㉠에서 '발'을 이루는 초성 'ㅂ', 중성 'ㅏ', 종성 'ㄹ'의 음운이 바뀌면 다른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서는 '눈'을 발음할 때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 ㉡을 통해 음운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줌을 알 수 있다.

③ 왜 오답

- ① ㉠의 초성, 중성, 종성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의 소리의 길이는 문자 표기로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과 ㉡은 음운의 변화(변동)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음운의 차이에 따른 단어의 의미 차이를 보여 준다.
- ④ 자음은 초성과 종성에, 모음은 중성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이나 ㉡은 음운의 차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사례를 보여 주는 것으로, 감정의 차이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6 답 ①

음운

② 이래서 정답

- ① <보기>에서 'ㄹ'은 비음, 울림소리이며 'ㅁ'은 파열음, 안울림소리라고 하였다. 따라서 비음인 'ㄹ'이 파열음인 'ㅁ'보다 강하게 파열되며 나는 소리라고 보기 어렵다.

③ 왜 오답

- ② 'ㄹ'은 울림소리이고 'ㅁ'은 안울림소리이므로, 목청을 올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은 'ㄹ'이다.
- ③ 'ㄹ'은 비음이고 'ㅁ'은 파열음이므로,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는 것은 'ㄹ'이다.
- ④ <보기>에서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ㄹ'과 'ㅁ'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 ⑤ <보기>에서 'ㄹ'과 'ㅁ'을 통해 연령에 따른 자음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다고 하였다.

문제 공식 적용 파열음과 비음

조음 위치		두 입술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안울림소리	파열음	ㅂ(예사소리), ㅁ(원소리), ㅍ(거센소리)
울림소리	비음	ㄹ

7 답 ⑤

음운

② 이래서 정답

- ⑤ ㉠은 조사이므로 ㉡의 'ㄴ'은 단모음 [네]로, ㉢은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므로 ㉣의 'ㄴ'은 단모음 [ㅣ]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과 ㉣의 'ㄴ'은 단모음으로 발음될 때 서로 다른 소리로 발음된다.

③ 왜 오답

- ① ㉠의 'ㄴ'은 조사가 아니며 단어의 첫음절이기 때문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이중 모음으로만 발음해야 한다.
- ② ㉡은 조사이므로 ㉣의 'ㄴ'은 단모음 [네]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③ ㉢은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므로 ㉣의 'ㄴ'은 단모음 [ㅣ]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④ ㉠의 'ㄴ'은 이중 모음으로만 발음되지만, ㉡의 'ㄴ'은 이중 모음뿐만 아니라 단모음 [네]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과 ㉡의 'ㄴ'은 서로 다른 소리로 발음할 수 있다.

+ 어휘

- 개모음: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위치를 가장 낮추어서 발음하는 모음. = 저모음.
- 반개모음: 입을 반쯤 다물고 발음하는 모음.

1 답 ④

음운

① 이래서 정답

- ④ 이중 모음인 ‘ㅜ’는 반모음 ‘[w]’가 단모음 ‘ㅓ’ 앞에서 결합한 소리이다.

② 왜 오답

- ① ‘ㅠ’는 이중 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
 ② ‘ㅞ’는 단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③ 이중 모음 ‘ㅟ’의 발음은 반모음 ‘[j]’ 뒤에서 단모음 ‘ㅓ’가 결합한 것이다.
 ⑤ 반모음 ‘[w]’는 ‘ㅓ’나 ‘ㅓ’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소리로, 홀로 쓰일 수 없으며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이룬다.

문해 공식 적용 이중 모음

반모음		단모음		이중 모음
ㅟ [ɥ]	+	ㅓ, ㅕ, ㅗ, ㅛ, ㅜ, ㅠ, ㅡ	→	ㅟ, ㅕ, ㅗ, ㅛ, ㅜ, ㅠ, ㅡ
ㅓ/ㅓ [w]	+	ㅓ, ㅕ, ㅗ, ㅛ	→	ㅓ, ㅕ, ㅗ, ㅛ

2 답 ①

음운

① 이래서 정답

- ① 3문단에 따르면 ‘ㅓ’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w]’와 ‘ㅓ’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하므로 [ㅓ]로 발음한다. 따라서 ㉠에 들어갈 발음은 [차ㅓ]이다. 한편 ‘ㅓ’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w]’와 ‘ㅓ’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한다. 그런데 이 소리는 이중 모음인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ㅓ, ㅕ, ㅗ, ㅛ, ㅜ, ㅠ, ㅡ’의 발음 중에 없으므로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 들어간다.

3 답 ①

음운

① 이래서 정답

- ① <보기>에서 ‘끼’와 ‘딸’의 초성 ‘ㅍ’, ‘ㅌ’은 된소리로 하나의 자음이다. 현대 국어 음절의 초성에는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

② 왜 오답

- ② ㄱ~ㄹ을 통해 중성에는 모음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ㄷ, ㄹ을 통해 중성에는 자음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ㄱ, ㄷ을 통해 초성이 없는 음절이 있음을, ㄱ, ㄴ을 통해 중성이 없는 음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ㄱ~ㄹ에는 모두 중성이 포함되어 있다. 중성은 ㄱ과 같

이 단독으로 음절을 이루기도 하고, ㄴ, ㄷ, ㄹ과 같이 초성이나 종성과 어울려 음절을 이루기도 한다.

4 답 ④

음운

① 이래서 정답

- ④ ‘강[강]’과 ‘복[복]’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경우로, 음절 유형은 둘 다 ‘자음 + 모음 + 자음’으로 동일하다. ‘목’과 ‘뭇’은 모두 [목]으로 발음되므로,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둘 다 ‘자음 + 모음 + 자음’의 음절 유형에 해당한다.

② 왜 오답

- ① ‘싫증’은 ‘싫은 생각이나 느낌, 또는 그런 반응’이라는 뜻으로, ‘싫다’와 의미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싫증’의 ‘싫’은 하나의 의미를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은 사례이다.
 ② ‘북소리[북소리]’와 ‘국물[국물]’은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발음을 기준으로 끝말잇기를 하면 ‘나뭇잎[나뭇잎]’, ‘잎새[잎새]’는 앞말의 ‘ㅍ’과 뒷말의 ‘ㅍ’이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로 인식하는 관습에 따라 끝말잇기를 하면 ‘잎’과 ‘잎’이 연결된다.
 ⑤ ‘북어[북어]’의 음절 유형은 ‘자음 + 모음, 자음 + 모음’이므로,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다. ‘강변[강변]’의 음절 유형은 ‘자음 + 모음 + 자음, 자음 + 모음 + 자음’이므로,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낸다.

5 답 ③

음운

① 이래서 정답

- ③ ‘눌’의 ‘ㄴ’은 혀끝과 윗잇몸을 닿게 하여 내는 잇몸소리이자, 목청을 울리며 소리 내는 울림소리이다. 반면에 ‘불’의 ‘ㅃ’은 두 입술을 맞닿게 하여 내는 입술소리이자, 목청을 울리지 않고 소리를 내는 안울림소리이다.

② 왜 오답

- ①, ② ‘불’의 ‘ㅃ’은 두 입술을 맞닿게 하여 소리 내야 한다.
 ④ ‘불’, ‘둘’, ‘굴’의 ‘ㅃ’, ‘ㄷ’, ‘ㄱ’은 모두 파열음으로,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⑤ ‘눌’의 ‘ㄴ’은 울림소리 중 비음으로,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목청을 울리며 소리 내야 한다. 그러나 ‘불’과 ‘둘’의 ‘ㅃ’과 ‘ㄷ’은 목청의 울림이 없는 안울림소리이다.

+ 어휘

- 관습: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



음운의 변동

02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확인 1 답 (1) ㄱ (2) ㄷ (3) ㅂ

이래서 정답

- 받침 'ㄱ, ㅋ, ㆁ'이 자음 앞에 올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ㄱ]으로 발음된다.
- 받침 'ㄷ, ㅌ, ㅅ, ㅆ, ㅈ, ㅊ, ㅎ'이 단어의 끝에 올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발음된다.
- 받침 'ㅂ, ㅍ'이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 올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으로 발음된다.

확인 2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받침 'ㅈ'이 자음 앞에 올 때, 받침 'ㅈ'이 단어의 끝에 올 때 모두 [ㄷ]으로 발음되므로, '벚꽃'은 [번꼇]으로 발음된다.
- 받침 'ㅍ'이 모음 'ㄱ'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 올 때는 [ㅂ]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숲 위'는 [습위]가 되었다가 'ㅂ'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가서 [수뷔]로 발음된다.
- 받침 'ㅅ', 'ㅎ'은 단어의 끝에 올 때 [ㄷ]으로 발음되므로, '시웃'은 [시웁], '히읇'은 [히읇]으로 발음된다.

확인 3 답 ①

이래서 정답

- '받[받느]'에서는 받침 'ㄷ'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으로 비음인 'ㄴ'으로 바뀐다. '왕릉[왕능]'에서는 'ㄹ'이 앞에 오는 'ㅇ'의 영향으로 비음인 'ㄴ'으로 바뀐다. '백로[백노]'에서는 'ㄹ'이 앞말의 영향으로 'ㄴ'으로 바뀌고, 이 'ㄴ'의 영향으로 앞의 'ㄱ'이 'ㅇ'으로 바뀐다. 이러한 <보기>의 사례는 모두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에 해당한다.

왜 오답

-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은 유음화이다.
-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아닌 자음이 올 경우 이 7개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확인 4 답 ㉠

이래서 정답

<보기 1>은 유음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 '진리'는 '진'의 끝소리 'ㄴ'과 '리'의 첫소리 'ㄹ'이 만나므로, <보기 1>의 원리를 적용하여 발음해야 한다. 'ㄴ'이 유음과 만나 유음인 'ㄹ'로 바뀌어 소리 나므로, '진리'는 [질리]로 발음된다.

왜 오답

'동녘(㉡)'은 어말의 받침 'ㄱ'이 'ㄴ'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동녘]으로 발음된다. '향로(㉢)'는 'ㄹ'이 앞에 오는 'ㅇ'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향:노]로 발음된다.

어휘

-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철수', '책', '읽' 따위이다. ㄴ 어휘 형태소.
- 왕릉** 임금의 무덤.
- 동녘** 네 방위의 하나. 해가 떠오르는 쪽이다. = 동쪽.
- 향로** ① 선박이 지나다니는 해로(바다 위의 배가 다니는 길). ②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일정하게 운항하는 항공기의 지정된 공중 통로).

1 답 ①

음운

① 이래서 정답

- ① <보기>에서 '부엌 앞'은 '부엌' 뒤에 실질 형태소 '앞'이 오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부엌압])된 다음 연음 현상([부어갑])이 일어난다. 그런데 '부엌'은 '부엌' 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므로, 음절의 끝소리 'ㄱ'이 대표음으로 바뀌지 않고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가는 연음 현상([부어키])이 일어난다. '가마술 안(㉠)'은 '가마술' 뒤에 실질 형태소 '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술'의 'ㅌ'이 대표음 'ㄷ'으로 바뀐([가마술안]) 다음, 연음 현상이 일어나 [가마소단]이 된다.

2 답 ④

음운

① 이래서 정답

- ④ '국물'이 [궁물]로 발음되는 것은 뒤 음절의 첫소리인 올림소리 'ㄱ'이 앞 음절의 끝소리인 안올림소리 'ㄱ'에 영향을 주어 'ㄱ'이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올림소리 'ㅇ'으로 발음 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② 왜 오답

- ① 'ㄱ'과 'ㅇ'은 조음 위치가 여린입천장으로 같고, 조음 방법이 각각 파열음과 비음으로 다르다.
②, ③, ⑤ 안올림소리 'ㄱ(파열음)'이 올림소리 'ㄱ(비음)'과 만나 올림소리 'ㅇ(비음)'으로 변하는 것이다.

3 답 ④

음운

| 보기 | 오려 보기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일곱 개뿐이다. 음절 끝에 이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한다. ...

① 이래서 정답

- ④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받침 'ㄷ, ㅌ, ㅅ, ㅆ, ㅈ, ㅊ, ㅎ'은 [ㄷ]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그릇'의 받침 'ㅅ'은 [ㄷ]으로 발음한다.

② 왜 오답

- ①, 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밭'의 받침 'ㅌ', '갸다'의 받침 'ㅆ'은 모두 [ㄷ]으로 발음한다.
②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받침 'ㅂ, ㅍ'은 [ㅂ]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무릎'의 받침 'ㅍ'은 [ㅂ]으로 발음한다.
③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받침 'ㄱ, ㅋ, ㆁ'은 [ㄱ]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깎지'의 받침 'ㅈ'은 [ㄱ]으로 발음한다.

8 정답과 해설

4 답 ④

음운

| 보기 | 오려 보기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의 앞에서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뒤에서 'ㄹ'로 바뀌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

① 이래서 정답

- ④ '듣는[든는]'은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뀐 것으로 ㉠에 해당한다. '권리[궐리]'는 비음 'ㄴ'이 유음 'ㄹ' 앞에서 'ㄹ'로 바뀐 것으로 ㉡에 해당한다. '숯내[순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어 [순내]가 된 뒤,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에 해당한다.

② 왜 오답

- ① '먹물[명물]'은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바뀐 것으로 ㉠에 해당한다. '중력[중:넉]'은 'ㅇ'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뀐 비음화의 예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깎는[깁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깁는]이 된 뒤,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에 해당한다.
② '샘물[샘:물]'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날[설:랄]'은 'ㄴ'이 'ㄹ' 뒤에서 'ㄹ'로 바뀐 것으로 ㉡에 해당한다. '끝물[끈물]'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끈물]이 된 뒤, 'ㄷ'이 'ㄹ' 앞에서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에 해당한다.
③ '입는[임는]'은 'ㅂ'이 'ㄴ' 앞에서 'ㄹ'으로 바뀐 것이고, '막내[망내]'는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뀐 것으로, 둘 다 ㉠에 해당한다. '벚꽃[번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ㅈ'과 'ㅊ'이 모두 'ㄷ'으로 바뀐 뒤,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숯뚜껑[순뚜껍]'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ㅌ'이 'ㄷ'으로 바뀐 것으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난리[물랄리]'는 'ㄴ'의 초성과 중성의 'ㄴ'이 'ㄹ'의 앞뒤에서 모두 'ㄹ'로 바뀌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앞마당[암마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암마당]이 된 뒤, 'ㅂ'이 'ㄹ' 앞에서 'ㄹ'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에 해당한다.

문해 공식 적용 비음화, 유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5 답 ⑤

음운

◎이래서 정답

- ⑤ ‘활동 1’에서 ‘국물[궁물]’은 앞의 받침 ‘ㄱ’이 뒤의 음운 ‘ㅁ’의 영향을 받아 바뀐 것으로 ‘001000’으로 표시하였다. 이를 ‘활동 2’와 연결해서 보면 ‘000100’으로 표시하는 것은 순행 동화, ‘001000’으로 표시하는 것은 역행 동화이다. ‘잡념[잠념]’은 앞의 받침 ‘ㅂ’이 뒤의 음운 ‘ㄴ’의 영향을 받아 바뀐 것이므로, ‘001000’으로 표시하는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①, ④ ‘국민[궁민]’, ‘신랑[실랑]’은 앞의 받침 ‘ㄱ’과 ‘ㄴ’이 각각 뒤의 음운 ‘ㅁ’과 ‘ㄹ’의 영향을 받아 바뀐 것으로, ‘001000’으로 표시하는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②, ③ ‘글눈[글nun]’, ‘명랑[명lang]’은 뒤의 음운 ‘ㄴ’과 ‘ㄹ’이 각각 앞의 받침 ‘ㄹ’과 ‘ㅇ’의 영향을 받아 바뀐 것으로, ‘000100’으로 표시하는 순행 동화에 해당한다.

6 답 ⑤

음운

◎이래서 정답

- ⑤ ‘새벽녘[새병녁]’에서 ‘녁’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㉔)이 적용되어 받침 ‘ㄱ’이 ‘ㄴ’으로 바뀐다. 그리고 ‘새벽’의 받침 ‘ㄱ’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㉕)도 일어난다.

❖왜 오답

- ① ‘권력[결력]’에서는 ‘권’의 받침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② ‘닫는[단는]’에서는 ‘닫-’의 받침 ‘ㄷ’이 뒤의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㉕)가 일어난다.
 ③ ‘백로[뺑노]’에서는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고, 이 ‘ㄴ’의 영향으로 앞의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㉕)가 일어난다.
 ④ ‘꽃꽂이[꼰꼬지]’에서는 ‘꽃’의 받침 ‘ㅈ’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㉔)이 나타난다. ‘꽃-’의 받침 ‘ㅈ’은 뒤에 오는 형식 형태소 ‘-이’에 연음된다.

7 답 ①

음운

◎이래서 정답

- ① ‘식물[싱물]’, ‘입는[임는]’, ‘뜯는[퉁는]’은 각각 받침 ‘ㄱ, ㅂ, ㄷ’이 ‘ㅁ’이나 ‘ㄴ’ 앞에서 ‘ㅇ, ㅁ, ㄴ’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를 제시된 자음 분류표에서 살펴보면,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뀐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앞 자음의 조음 방법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답 ①

음운

◎이래서 정답

- ① ‘달님[달림]’은 뒤 음절의 비음 ‘ㄴ’이 앞(㉑)의 음운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㉒) ‘ㄹ’로 바뀐 것으로, 비음에서 유음으로 조음 방법(㉓)이 바뀐 사례이다.

❖왜 오답

- ② ‘달님[달림]’은 한 음운이 앞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 유음으로 바뀌어 조음 방법이 바뀐 사례이다.
 ③, ④ ‘공론[공nun]’은 뒤 음절의 유음 ‘ㄹ’이 앞의 음운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뀐 것으로, 유음에서 비음으로 조음 방법이 바뀐 사례이다.
 ⑤ ‘논리[놀리]’는 앞 음절의 비음 ‘ㄴ’이 뒤의 음운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뀐 것으로, 비음에서 유음으로 조음 방법이 바뀐 사례이다.

+ 어휘

- 연음: 앞 음절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나는 소리. ‘봄이’가 [보미]로, ‘겨울이’가 [겨우리]로 소리 나는 것 따위이다.
- 숯내: ① 숯불에서 나오는 가스의 냄새. ② 숯불에서 나오는 연기.
- 순행: ① 차례대로 나아감. ② 거스르지 아니하고 행함.
- 역행: ① 보통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나아감. ② 일정한 방향, 순서, 체계 따위를 바꾸어 행함.
- 잡념: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
- 글눈: 글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
-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 조사, 어미 따위가 있다. ㄴ 문법 형태소.

1 답 ③

음운

① 이래서 정답

- ③ (나)를 바탕으로 할 때 ㉠는 비음화, ㉡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작물[장물]'은 'ㄱ'이 'ㄹ'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에, '붓꽃[분꽃]'은 끝소리 'ㅅ, ㅈ'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② 왜 오답

- ① '능력[능녁]'은 'ㄹ'이 'ㅇ'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신라[실라]'는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므로,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② '다섯[다설]'은 끝소리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고, '창박[창박]'은 끝소리 'ㅍ'이 'ㄱ'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둘 다 ㉡에 해당한다.
 ④ '법학[바팍]'은 'ㅂ'과 'ㅎ'이 합쳐져 'ㅍ'으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경우이다. '철학[철학]'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므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다.
 ⑤ '집념[집념]'은 'ㅂ'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ㄹ'으로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좋다[조:타]'는 'ㅎ'과 'ㄷ'이 합쳐져 'ㅌ'으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경우이다.

문해 공식 적용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능력[능녁]

작물[장물]

집념[집념]

('ㅇ' 뒤) + 'ㄹ' → 'ㄴ'

('ㄹ' 앞) + 'ㄱ' → 'ㅇ'

('ㄴ' 앞) + 'ㅂ' → 'ㄹ'

음절의
끝소리 규칙

창박[창박]

붓꽃[분꽃]

'ㅍ' → 'ㄱ'

'ㅅ, ㅈ' → 'ㄷ'

2 답 ④

음운

① 이래서 정답

- ④ '섞는[성는]'은 끝소리 'ㄱ'이 'ㄱ'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이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② 왜 오답

- ① '얹[압]'에서는 끝소리 'ㅍ'이 'ㅂ'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일어난다.
 ② '작년[장년]'에서는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만 일어난다.
 ③ '장미꽃[장미꽃]'에서는 끝소리 'ㅈ'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일어난다.
 ⑤ '한글날[한:글랄]'에서는 'ㄴ'의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만 일어난다.

3 답 ④

① 이래서 정답

- ④ 15세기 국어의 '빛+나다'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빛'이 [빋]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15세기 국어에서 'ㅅ'의 비음화는 없었으므로, '빛나다[빋나다]'에서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② 왜 오답

- ① 15세기 국어에서는 대부분 'ㄷ'의 비음화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걷는 → 건는'은 용언의 활용형에서 'ㄷ'의 비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② 현대 국어는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인 반면, 15세기 국어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③ 현대 국어에서는 'ㄱ'의 비음화가 일어나지만 15세기 국어에서는 'ㄱ'의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15세기 국어의 '막+노라'에서는 'ㄱ'의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⑤ 비음화는 파열음 예사소리가 비음 앞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국물[궁물]', '받는[반는]', '입는[임는]'의 예를 통해 'ㄱ-ㅇ', 'ㄷ-ㄴ', 'ㅂ-ㄹ'은 비음화 전후의 음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동일한 조음 위치의 '파열음 예사소리-비음'에 해당하는 쌍이라고 할 수 있다.

4 답 ④

음운

① 이래서 정답

- ④ ㉠의 '겉[건]', ㉡의 '땀[땀]', ㉢의 '꽃[꽃]', ㉣의 '낮[남]'에서 음절 끝의 자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

② 왜 오답

- ① '겉땀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ㅌ'과 'ㅅ'이 'ㄷ'으로 바뀌어 [건땀만]이 된다. [건땀만]은 다시 'ㄷ'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어 [건땀만]으로 발음된다. 이때 [건] → [건], [땀] → [땀]으로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났다.
 ② '꽃식물'에서는 'ㅅ'의 'ㄱ'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므로, 비음화가 한 번 일어났다.
 ③ '꽃식물'과 '낮잡는'에서 '꽃'과 '낮'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꽃]과 [남]이 된다. 그 후 파열음 예사소리인 'ㄷ' 뒤에서 'ㅅ'의 'ㅅ'이 'ㅆ'으로, '잡'의 'ㅈ'이 'ㅉ'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⑤ '겉땀만'에서 [건]과 [땀]의 'ㄷ', '꽃식물'에서 [식]의 'ㄱ'은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각각 비음 'ㄴ'과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음운의 변동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확인 1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등받이'는 '받이'에서 실질 형태소 '받-'의 끝소리 'ㄷ'이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므로, [등바지]로 발음해야 한다.

왜 오답

- ① '밭을'은 '밭'의 끝소리 'ㅌ'이 모음 'ㅡ'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 끝소리 'ㅌ'이 뒤 음절로 연음되어 [바틀]로 발음된다.
 ② '잔디'의 '디'는 'ㄷ'과 'ㅣ'가 한 형태소 안에서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잔디]로 발음해야 한다.

확인 2 답 (1) × (2) ○ (3) ○ (4) ×

이래서 정답

- (1) '맞이'는 '맞-'의 끝소리가 'ㄷ', 'ㅌ'이 아닌 'ㅈ'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끝소리 'ㅈ'이 뒤 음절로 연음되어 [마지]로 발음된다.
 (2) '해돋이'는 '돋-'의 끝소리 'ㄷ'이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경구개음 'ㅈ'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므로, [해도지]로 발음된다.
 (3) '갈이'는 '갈-'의 끝소리 'ㅌ'이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경구개음 'ㅈ'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므로, [가치]로 발음된다.
 (4) '끝에'는 '끝'의 끝소리 'ㅌ'이 'ㅣ'나 'ㅍ'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난 것이 아니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끝소리가 뒤 음절로 연음되어 [끄테]로 발음된다.

확인 3 답 (1) ㅅ, ㅈ (2) ㅍ, ㅌ (3) ㄹ

이래서 정답

- (1) 받침 'ㄱ, ㄷ, ㅂ' 혹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 'ㅍ, ㅌ, ㅃ, ㅆ, ㅈ'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므로, 된소리가 되기 전 예사소리는 'ㄱ, ㄷ, ㅂ, ㅅ, ㅈ'임을 알 수 있다.
 (2) 어간 받침 'ㄴ, ㄹ', 'ㅁ, ㅂ'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므로, 된소리는 'ㅍ, ㅌ, ㅃ, ㅆ'임을 알 수 있다.
 (3) 한자어에서 'ㄷ, ㅅ, ㅈ'이 'ㅌ, ㅆ, ㅈ'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경우는 받침 'ㄹ' 뒤에 오는 경우이다.

확인 4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받침 'ㄹ'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것은 'ㄹ'이 관형사형 어미이거나 어간 받침 'ㅁ, ㅂ', 혹은 한자어의 받침 일 경우이다. '가을걷이'는 모두 해당되지 않으므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을걷이'에서 '걷이'는 '걷-'의 끝소리 'ㄷ'이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가을거지]로 발음된다.

왜 오답

- ② '담다'는 어간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로 바뀌므로, [담:따]로 발음된다.
 ③ '할 것들'은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연결되는 'ㄱ'이 된소리로 바뀌므로, [할꺼슬]로 발음된다.

확인 5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에서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걱정'은 [걱쟁]으로 발음된다.
 (2) ㉡의 '안전'은 한자어이다. '안'의 받침 'ㄴ'은 어간 받침이 아니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 [안전]으로 발음된다.
 (3) ㉢의 '필수'는 한자어로,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ㅅ'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필쑤]로 발음된다.

+ 어휘

- **해돋이**: 해가 막 솟아오르는 때, 또는 그런 현상.
- **경구개음**: 혀바닥과 경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ㅈ', 'ㅆ', 'ㅊ' 따위가 있다.
- **가을걷이**: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임 = 추수.

1 답 ④

음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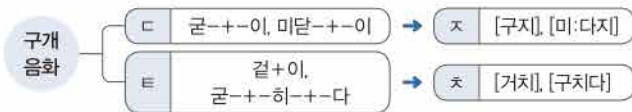
⑤ 이래서 정답

- ④ 괄호 안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젓하다’는 ‘ㅈ’과 ‘ㅎ’이 만나 ‘ㅊ’으로 바뀌어(저센소리되기) [저치다]로 발음되는 것일 뿐, ‘ㄷ’이나 ‘ㅌ’이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가 아니다.

③ 왜 오답

- ①, ③ ‘굳이’와 ‘미닫이’는 끝소리 ‘ㄷ’이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ㅈ’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② ‘겉이’는 끝소리 ‘ㅌ’이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⑤ ‘굳히다’는 ‘ㄷ’과 ‘ㅎ’이 만나 합쳐진 ‘ㅌ’이 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문제 공식 적용 구개음화



2 답 ④

음운

| 보기 | 오려 보기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ㅌ, ㅈ, ㅊ’과 같은 예사소리가 ‘ㄲ, ㄸ, ㄴ, ㄹ, ㅆ’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음운 현상이다. 된소리되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⑤ 이래서 정답

- ④ ‘삶다’는 ‘삶-+-다’로 분석되는데, 어간 받침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가 되어 [삼:따]로 발음된다(㉠). 한자어 ‘발전’은 ‘ㄹ’ 받침 뒤에 결합되는 ‘ㅈ’이 된소리가 되어 [발쩡]으로 발음된다(㉡).

③ 왜 오답

- ① ‘신다’는 어간 받침 ‘ㄴ’이 ‘ㄷ’과 만나 [신:따]로 발음되지만(㉢), ‘굴곡’은 ‘ㄹ’ 받침 뒤에 ‘ㄱ’이 결합되므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얹다’는 어간 받침 ‘ㄴ(ㄴ)’이 ‘ㄷ’과 만나 [안따]로 발음되지만(㉠), ‘불변’은 ‘ㄹ’ 받침 뒤에 ‘ㅂ’이 결합되므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넙다’는 어간 받침이 ‘ㅂ’이므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갈등’은 ‘ㄹ’ 받침 뒤에 ‘ㄷ’이 결합되어 [갈똥]으로 발음된다(㉡).

- ⑤ ‘끓다’는 어간 받침이 ‘ㄹ’이므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월세’는 ‘ㄹ’ 받침 뒤에 ‘ㅅ’이 결합되어 [월쎌]로 발음된다(㉡).

3 답 ③

음운

| 보기 | 오려 보기

• 구개음화: 받침의 ‘ㄷ’, ‘ㅌ’이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

⑤ 이래서 정답

- ③ ‘끝인사[끄딘사]’에서는 받침 ‘ㅌ’ 뒤의 ‘인사’가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굳이’에서 받침 ‘ㄷ’과 만나는 ‘-이’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 [고지](㉠)로 발음된다. ‘굳이어’에서 받침 ‘ㄷ’과 만나는 ‘이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고디어](㉡)로 발음된다.

4 답 ④

음운

⑤ 이래서 정답

- ④ ㉠의 ‘국민[궁민]’에서는 파열음인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고, ㉡의 ‘물난리[물랄리]’에서는 비음 ‘ㄴ’이 유음인 ‘ㄹ’로 바뀌어 발음되고 있다. 따라서 ㉠과 ㉡에서 변동된 음운은 조음 방법이 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왜 오답

- ① ㉠에서는 ‘국’의 끝소리 ‘ㄱ’(파열음)이, 뒤에 오는 비음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② ㉡에서는 ‘난’의 첫소리 ‘ㄴ’과 끝소리 ‘ㄴ’이 앞뒤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났다.
 ③ ㉢의 ‘굳이[구지]’에서는 잇몸소리 ‘ㄷ’이 ‘ㅣ’ 모음 앞에서 센입천장소리 ‘ㅈ’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⑤ ㉤에서는 잇몸소리 ‘ㄷ’이 센입천장소리 ‘ㅈ’으로 변하였으므로, 조음 위치가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에서는 잇몸소리 ‘ㄴ’이 잇몸소리 ‘ㄹ’로 변하였으므로 조음 위치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답 ③

음운

⑤ 이래서 정답

- ③ ㉤에서 ‘굳히다[구치다]’, ‘달히다[다치다]’는 끝소리 ‘ㄷ’이 ‘ㅎ’과 만나 ‘ㅌ’으로 변한 뒤, ‘ㅌ’이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서 ‘ㅊ’으로 바뀌어 발음된 것이다. 따라서 ㉤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ㅎ’이 탈락하지는 않았다.

❖ 왜 오답

- ① ㉠에서 ‘맡이[마지]’는 끝소리 ‘ㄷ’이, ‘같이[가치]’는 끝소리 ‘ㅌ’이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 ② ㉡에서 ‘밭이[바치]’는 끝소리 ‘ㅌ’과 모음 ‘ㅣ’가, ‘밭을[바틀]’은 끝소리 ‘ㅌ’과 모음 ‘ㅡ’가 만난 것이다. ‘ㅌ’이 모음 ‘ㅣ’와 만났을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ㅡ’와 만났을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물받이[물바지]’는 끝소리 ‘ㄷ’이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첫인사[천인사→쳐던사]’는 끝소리 ‘ㄷ’이 실질 형태소 ‘인사’와 결합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⑤ ㉣에서 ‘해돋이[해도지]’는 끝소리 ‘ㄷ’이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견디다[견디다]’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 ‘ㄷ’과 ‘ㅣ’가 있어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6 답 ②

음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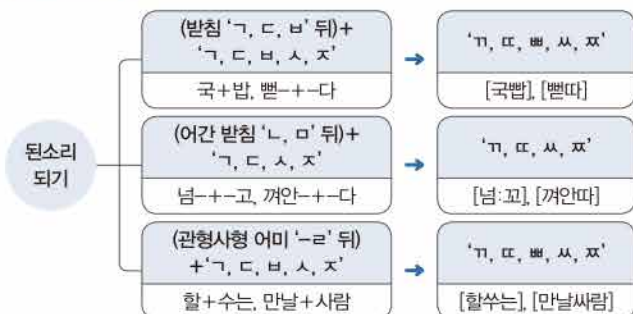
❖ 이어서 정답

- ② ‘밤길[밤깎]’은 받침 ‘ㅁ’ 뒤에서 ‘ㄱ’이 [ㄱ]으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밤길’이 [밤깎]로 발음되는 이유는,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 왜 오답

- ① ㉠은 받침 ‘ㄱ, ㄷ, ㅂ’ 뒤에, ㉡은 어간 받침 ‘ㄴ, ㄹ’ 뒤에, ㉢은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결합하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 ③ ‘껴안다[껴안따]’는 어간 ‘껴안-’의 받침 ‘ㄴ’ 뒤의 어미 첫소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 ④ ㉢은 관형사형 어미 ‘-ㄹ’이 붙은 관형어와 이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체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기쁜’의 ‘-ㄴ’도 관형사형 어미이지만, ‘-ㄹ’과 달리 뒤에 결합하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문법 공식 적용 된소리되기



7 답 ⑤

음운

❖ 이어서 정답

- ⑤ 탐구 과정을 살펴보면, ‘신다’에서 ‘ㄴ’은 어간 ‘신-’의 받침으로, 그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그러나 ‘난다’에서 ‘ㄴ’은 어간 ‘날-’의 받침이 아니라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ㄴ-’)로, 뒤에 오는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즉 ‘ㄴ’ 뒤에 오는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려면 ‘ㄴ’이 어간 받침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내용을 잘 안다.”에서 ‘안다’의 기본형은 ‘알다’로, ‘ㄴ’이 어간 ‘알-’의 받침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오는 ‘다’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 왜 오답

- ① 개인의 습관에 따른 발음은 표준 발음이 아니므로, 개인의 발음 습관 차이에 따라 표준 발음법의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 ② “아기를 품에 안다.”의 ‘안다’와 “내용을 잘 안다.”의 ‘안다’는 모두 ‘안’이 길게 발음되지만 된소리 발음에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소리의 길이가 ‘다’의 된소리되기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 ③ 탐구 과정에서는 의미 전달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그것이 된소리 발음에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④ “아기를 품에 안다.”의 ‘안다’와 “내용을 잘 안다.”의 ‘안다’에서 ‘다’의 ‘ㄷ’은 모두 자음 ‘ㄴ’과 모음 ‘ㅏ’ 사이에 있다. 따라서 모음 사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어휘

- **합성어**: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 **시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 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 과거·현재·미래가 있다.

1 답 ⑤

음운

㉠이래서 정답

- ⑤ 3문단에서 구개음화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되는 조사나 접미사 앞에서 구개음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구개음화는 모음의 소리는 바뀌지 않고 자음의 소리만 바뀌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1문단에서 음운의 동화는 인접한 두 음운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 ② 5문단에서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가 일어나면 인접한 두 음운의 성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데, 이 같은 소리가 연속되면 발음의 경제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 ③ 2문단에서 비음화는 'ㅂ, ㄷ, ㄱ'이 'ㅁ, ㄴ' 앞에서 바뀌는 현상이고, 유음화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바뀌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인접한 두 음운은 모두 자음임을 알 수 있다.
- ④ 3문단을 통해 구개음화가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되는 조사나 접미사 앞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접미사 앞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답 ①

음운

㉠이래서 정답

- ① 자음 체계표(㉠)에 따르면 a는 파열음 'ㅂ'이 비음 'ㅁ'의 영향으로 비음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의 예로, 조음 방식만 바뀐 것이다.

㉡왜 오답

- ② a는 비음화의 예이다.
- ③, ④ b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유음화의 예로, 조음 방식이 바뀐 것이다.
- ⑤ c는 끝소리 'ㅌ'이 'ㅣ'로 시작되는 조사 앞에서 'ㄷ'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의 예이다. 잇몸소리이면서 파열음인 'ㅌ'이 선행전장소리이면서 파찰음인 'ㄷ'으로 바뀌었으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바뀐 것이다.

3 답 ⑤

음운

㉠이래서 정답

- ⑤ 현대 국어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구개음화는 음절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와 결합하여 'ㅈ, ㅊ'으로 변하는 경우, 음절 끝소리 'ㄷ' 뒤에 접사 '-히-'가 올 때 'ㄷ'과 'ㅎ'이 축약된 'ㅌ'이 'ㅈ'으로 되는 경우이다. '끝인사'를 [꼬친사]가 아닌 [꼬딘사]로 발음하는 이유는 '인사'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왜 오답

- ① '같이'를 [가치]로 발음하는 이유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ㄷ-구개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피동화음은 'ㄱ'이 아니라 'ㅌ'이다.
- ② '많지만'을 [만치만]으로 발음하는 이유는 '많-'의 'ㅎ'과 뒤의 'ㅈ'이 축약되어 'ㅊ'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구개음화와는 관련이 없다.
- ③ '만이'를 [마디]로 발음하지 않고 [마지]로 발음하는 이유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ㄷ-구개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화음은 'ㅣ'로 구개음화를 일으킨다.
- ④ '겉으로'를 [겨츠로]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끝소리 'ㅌ'이 'ㅣ'가 아닌 'ㅡ'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ㅌ'이 연음되어 [겨트로]로 발음된다.

문제 공식 적용 구개음화



4 답 ③

음운

㉠이래서 정답

- ③ '김치'의 과거 형태는 '뎡치'로, '치'는 과거에도 첫소리가 구개음인 'ㅈ'이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모음이 본래 'ㅣ'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② '뎡치가 '짐치'로 변한 것은 'ㄷ'이 'ㅈ'으로 변한 것으로, 이는 'ㄷ-구개음화'에 해당한다. 이때 피동화음 'ㄷ'과 동화음 'ㅣ'는 한 형태소에 속하므로,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언중이 '짐치'를 '김치'로 교정한 것은 'ㅈ'이 원래 '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짐치'를 'ㄱ-구개음화'가 일어난 형태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ㄷ' 뒤에 오는 모음이 원래 'ㅣ'가 아닌 다른 모음이었든 단어들은 과거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김치'의 본래 형태가 '뎡치'였고 형태소 내부에서의 'ㄷ-구개음화'가 사라진 후에 'ㄴ'이 'ㅣ'로 변화했다면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음운의 변동

자음 탈락, 모음 탈락

확인 1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창밖'은 자음 탈락이 아니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ㅍ'이 'ㄱ'으로 교체되어 [창밖]으로 발음된다.

왜 오답

- ① '중아[조:아]에서는 'ㅎ' 탈락이 나타난다.
② '둥그니[둥그니]에서는 'ㄹ' 탈락이 나타난다.

확인 2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첫째 받침이 탈락하므로, '밖다'는 [박따]로 발음해야 한다.

왜 오답

- ②, ③ 겹받침 'ㄹ', 'ㅍ'은 자음 앞에서 둘째 받침이 탈락하므로, '섞다'는 [설따]로, '할다'는 [할따]로 발음해야 한다.

확인 3 답 (1) ㄹ (2) ㅅ

이래서 정답

- (1) '섞[삼:]', '옴다[음따]'에서 겹받침 'ㄹ',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첫째 받침이 탈락하므로, 'ㄹ'이 탈락한다.
(2) '뭇[목]', '외곶[외골/웨골]', '값[갑]'에서 겹받침 'ㄱ', 'ㄹ',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둘째 받침이 탈락하므로, 'ㅅ'이 탈락한다.

확인 4 답 (1) ㉠, ㉡ (2) ㉢, ㉣

이래서 정답

- (1) ㉠은 어간 'ㄱ-어'와 어미 '-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ㄱ'이 탈락하고, ㉡은 어간 '모으-'와 어미 '-아라'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ㄱ'이 탈락하는 'ㄱ' 탈락의 예이다.
(2) ㉢은 어간 '서-'와 어미 '-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동음 'ㄴ'이 탈락하고, ㉣은 어간 '타-'와 어미 '-아라'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동음 'ㅏ'가 탈락하는 동음 탈락의 예이다.

확인 5 답 (1) 가라 (2) 썼다 (3) 펴서 (4) 담가서

이래서 정답

- (1) '가-+-아라'로 결합할 때 'ㅏ'가 탈락하여 '가라'가 된다.
(2) '쓰-+-었-+-다'로 결합할 때 'ㄱ'이 탈락하여 '썼다'가 된다.
(3) '펴-+-어서'로 결합할 때 'ㄴ'이 탈락하여 '펴서'가 된다.
(4) '담그-+-아서'로 결합할 때 'ㄱ'이 탈락하여 '담가서'가 된다.

실전 04-A

본문 32~33

1 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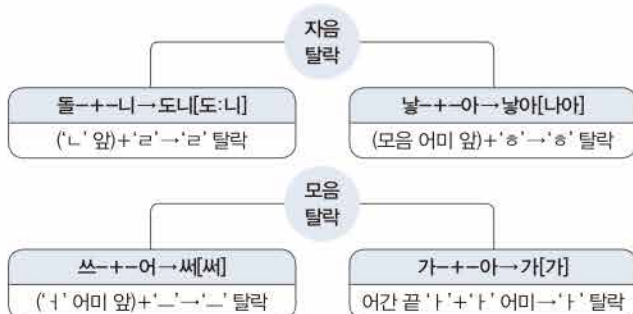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② ㉡의 '냥아'는 [나아]로 발음되지만, 발음할 때 'ㅎ'이 탈락되는 현상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아 '냥아'로 쓴다.

왜 오답

- ① ㉠의 '도니'를 보면 어간 '돌-'의 끝소리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된다.
③ ㉢의 '씨'를 보면 어간 '쓰-'의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된다.
④ ㉣의 '가'를 보면 어간 '가-'의 모음 'ㅏ'와 동일한 음운 'ㅏ'가 어미로 연결될 경우 한 음운이 탈락된다.
⑤ ㉤, ㉥는 자음 탈락, ㉦, ㉧는 모음 탈락을 보여 준다.

문해 공식 적용 자음 탈락, 모음 탈락



2 답 ①

| 보기 | 오려 보기

자음 두 개가 음절 끝에 놓일 때, 둘 중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

이래서 정답

- ① ㉠에는 발음할 때 겹받침 중 뒤에 있는 자음이 탈락하여 앞에 있는 자음만 발음되는 단어가 들어간다. '값'은 [갑], '넋'은 [넉]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절 끝소리에 있는 두 자음 중 뒤에 있는 'ㅅ'(자음³)이 탈락하고 앞에 있는 'ㅂ'(자음²)과 'ㄱ'(자음²)만 발음되는 단어(㉠)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② '닭[다]'은 음절 끝소리의 두 자음('ㄹ', 'ㄱ') 중 앞에 있는 'ㄹ'(자음²)이 탈락하고 뒤에 있는 'ㄱ'(자음³)만 발음된다.
③, ④ '섞[삼:]'은 음절 끝소리의 두 자음('ㄹ', 'ㅍ') 중 앞에 있는 'ㄹ'(자음²)이 탈락하고 뒤에 있는 'ㅍ'(자음³)만 발음된다.
⑤ '닭[다]', '섞[삼:]'은 앞에 있는 자음(자음²) 'ㄹ'이 탈락하고 뒤에 있는 자음(자음³)만 발음되는 단어이다.

3 답 ①

음운

◎이래서 정답

- ① <학습 활동>의 분류 과정을 보면 ㉗는 모음 탈락, ㉘, ㉙는 자음 탈락에 해당한다. ㉚의 ‘떠서[떠서]’는 어간 끝소리 ‘ㄷ’가 ‘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된 것이며, 이는 모음 탈락에 해당하므로 ㉗에 들어갈 수 있다. ㉛의 ‘둥근[둥근]’은 어간 끝소리 ‘ㄹ’이 ‘ㄴ’ 앞에서 탈락된 것으로, 이는 자음 탈락에 해당한다. 이때 탈락한 ‘ㄹ’이 표기에서도 사라진 것으로 보아,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으므로 ㉘에 들어갈 수 있다. ㉜의 ‘달아[다아]’는 어간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된 것으로, 이는 자음 탈락에 해당한다. 이때 탈락한 ‘ㅎ’이 그대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㉙에 들어갈 수 있다.

4 답 ⑤

음운

| 보기 | 오려 보기

‘ㅎ’이 끝소리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하면 ‘ㅎ’이 탈락한다. ...

◎이래서 정답

- ⑤ ‘좋아요’를 [조:아요]라고 발음하는 것은 어간 ‘좋-’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기>에서 설명한 ‘ㅎ’ 탈락 현상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① ‘하얏다’를 [하:야타]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끝소리인 ‘ㅎ’이 ‘ㄷ’과 만나 축약되어 ‘ㅌ’이 된 것이다.
 ② ‘심란히’를 [심난히]로 발음하는 것은 ‘ㄹ’이 앞에 오는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변하는 비음화에 의한 것이다.
 ③ ‘놓는다’를 [논는다]로 발음하는 것은 ‘ㅎ’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이 ‘ㄷ’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에 의한 것이다.
 ④ ‘놓치다’를 [논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ㅎ’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것이다.

5 답 ①

음운

◎이래서 정답

- ① ‘값만’은 음절 끝의 두 자음 중 ‘ㅅ’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갑만]이 되었다가, 끝소리 ‘ㅂ’이 뒤에 오는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적용되어 [감만]으로 발음된다(㉓). ‘휴과’는 음절 끝의 두 자음 중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후과]가 되었다

가, 받침 ‘ㄱ’ 뒤에서 ‘ㄱ’이 ‘ㅍ’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후과]로 발음된다(㉔).

◎왜 오답

- ② ‘읽는’은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가 적용되어 [일느→일른]으로 발음된다. ‘읽고’는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윽고→읍고→읍꼬]로 발음된다.
 ③ ‘날아’는 겹받침 중 뒤의 ‘ㄱ’이 뒤 음절로 연음되어 [날가]로 발음된다. ‘덮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덱지→덱찌]로 발음된다.
 ④ ‘밟는’은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적용되어 [밟:느→밟:느]으로 발음된다. ‘닥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닥다→닥따]로 발음된다.
 ⑤ ‘짧어’는 겹받침 중 뒤의 ‘ㄹ’이 뒤 음절로 연음되어 [절머]로 발음된다. ‘짧지’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짹지→짹찌]로 발음된다.

6 답 ③

음운

◎이래서 정답

- ③ ‘밭’의 경우, 활용 정보인 ‘밭이[바치]’를 통해 ‘ㅌ’이 ‘ㄷ’와 만나 ‘ㄷ’이 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의 경우, 활용 정보인 ‘낮이[나치]’는 ‘ㅌ’이 뒤 음절로 연음되어 발음된 것일 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오답

- ① ‘낮’의 경우, 발음 정보인 [난]을 통해 음절 끝에서 ‘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휴’의 경우, 발음 정보인 [후]를 통해 음절 끝의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밭’의 활용 정보인 ‘밭을[바틀]’과 ‘휴’의 활용 정보인 ‘휴이[힐기]’를 통해 음절의 끝소리인 ‘ㅌ’과 겹받침 ‘ㄹ’ 중 뒤의 ‘ㄱ’이 뒤 음절로 연음될 때의 발음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낮’의 활용 정보인 ‘낮만[난만→난만]’, ‘밭’의 활용 정보인 ‘밭만[반만→반만]’, ‘휴’의 활용 정보인 ‘휴만[후만→후만]’을 통해 비음화가 일어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어휘

• 심란하: 마음이 어수선하게.

1 답 ②

음운

이래서 정답

- ② '눈을 떠 보니'의 '떠'는 '뜨-+-어'에서 'ㄷ'가, '빨리 가서'의 '가서'는 '가-+-아서'에서 'ㄱ'가 탈락한 것으로,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의 예이다.

왜 오답

- ① '줄을 서라'의 '서라'는 '서-+-어라'에서 'ㄷ'가 탈락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네 것만 끊어라'의 '끊어라'는 '끊-+-어라'에서 'ㅎ'이 탈락하여 [끄너라]로 발음되는 것으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③ '꺼 두자'의 '꺼'는 '끄-+-어'에서 'ㄷ'가 탈락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신발을 신고'의 '신고'는 '신-+-고'에서 'ㄱ'이 'ㄴ'으로 교체되어 [신:꼬]로 발음되는 것으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④ '지금 마는 김밥'의 '마는'은 '말-+-는'에서 'ㄹ'이 탈락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독서로 쌓은'의 '쌓은'은 '쌓-+-은'에서 'ㅎ'이 탈락하여 [싸은]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⑤ '빨래를 너는'의 '너는'은 '널-+-는'에서 'ㄹ'이 탈락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가을빛을 담고'의 '담고'는 '담-+-고'에서 'ㄱ'이 'ㄴ'으로 교체되어 [담:꼬]로 발음되는 것으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2 답 ⑤

음운

이래서 정답

- ⑤ ㉠과 ㉡를 보면 '얹-'과 '넙-'의 받침 'ㄷ'은 모두 [ㄹ]로 발음되고, '뵈-'의 받침 'ㄷ'은 모두 [ㅂ]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동일 용언 어간의 'ㄷ'의 발음이 'ㄷ'이나 'ㅂ'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용언 어간의 'ㄹ'은 ㉠과 같이 'ㄷ'이나 'ㅂ'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ㄱ]으로, ㉡와 같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ㄹ]로 발음된다.
 ② 'ㄹ'은 ㉠과 같이 'ㄷ'이나 'ㅂ'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와 같이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모두 [ㄱ]으로 발음된다.
 ③ 'ㄹ'은 ㉡와 같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ㄹ]로 발음되고, ㉠와 같이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는 [ㄱ]으로 발음된다.
 ④ ㉠, ㉡를 통해 '얹-'과 '넙-'의 받침 'ㄷ'은 모두 [ㄹ]로, '뵈-'의 받침 'ㄷ'은 모두 [ㅂ]으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자음군 단순화

(자음 앞)+받침 'ㄹ'→'ㄹ' 탈락	예외	(ㄱ 앞)+어간 받침 'ㄹ'→[ㄹ] 발음
앞도록, 늪지, 잃지		맑게, 늪고, 잃거나
(자음 앞)+받침 'ㄷ'→'ㅂ' 탈락	예외	(자음 앞)+받침 'ㄷ'의 받침 'ㄷ'→'ㄹ' 탈락
앞도록, 맑게, 넓지, 넓고		밭도록, 밭게

I

모
HO

3 답 ④

음운

이래서 정답

- ④ ㉠의 '쌓으니'는 '쌓-+-으니'에서 'ㅎ'이 탈락하여 [싸으니]로 발음되는데,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교체가 아닌 탈락이 나타난다.

왜 오답

- ① ㉠의 '서'는 '서-+-어'에서 동음 'ㄷ'이 탈락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② ㉠의 '꺼'는 '끄-+-어'에서 'ㄷ'이 탈락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③ ㉠의 '푸니'는 '풀-+-니'에서 'ㄹ'이 탈락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⑤ ㉠의 '믿는'은 어간의 끝소리 'ㄷ'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교체되어 [민는]으로 발음되는데,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4 답 ①

음운

이래서 정답

- ① <보기>의 '자료'에서 자음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구개음화되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훑이'는 어근 '훑-'과 접사 '-이'가 결합하는 경우로, 'ㅈ' 중 'ㅈ'이 모음 'ㅣ'와 만나 'ㅊ'으로 교체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홀치]로 발음된다. 이때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 오답

- ② '훑어'는 어간 '훑-'과 어미 '-어'가 결합하는 경우로, 'ㅈ' 중 뒤의 자음 'ㅈ'이 연음되어 [홀터]로 발음되며,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③ '엎는'은 어간 '엎-'과 어미 '-는'이 결합하는 경우로, 'ㅈ' 중 뒤의 자음인 'ㅈ'이 탈락하여 [언는]으로 발음된다.
 ④ '뵈는'은 어간 '뵈-'과 어미 '-는'이 결합하는 경우로, 'ㅈ' 중 'ㄹ'이 탈락하여 [뵈:는]이 되었다가, 'ㅂ'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으로 'ㅂ'으로 바뀌어 [뵈:는]으로 발음된다. 즉 자음군 단순화 후에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⑤ '끓는'은 어간 '끓-'과 어미 '-는'이 결합하는 경우로, 'ㅈ' 중에 'ㅎ'이 탈락하여 [끓는]이 되었다가, 'ㄴ'이 앞에 오는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어 [끓는]으로 발음된다. 즉 자음군 단순화 후에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음운의 변동

거센소리되기, 모음 축약, 음운 첨가

확인 1 답 (1) ㄱ, 추카 (2) ㄷ, 만:타 (3) ㅂ, 자피다

◎이래서 정답

- (1) '축하'는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어 [추카]로 발음된다.
- (2) '많다'는 받침 'ㅎ' 뒤에 'ㄷ'이 이어져 'ㅌ'으로 축약되어 [만:타]로 발음된다.
- (3) '잡히다'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어 [자피다]로 발음된다.

확인 2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크- + -어서 → 커서'는 어간의 끝모음 'ㄷ'이 탈락한 것으로, 모음이 축약된 것이 아니다.

❶ 왜 오답

- ② '그리- + -어 → 그려'는 모음 'ㅣ'와 'ㅣ'가 만나 'ㅢ'로 축약된 것이다.
- ③ '보- + -이- + -다 → 뵈다'는 모음 'ㅛ'와 'ㅣ'가 만나 'ㅟ'로 축약된 것이다.

확인 3 답 (1) ○ (2) × (3) × (4) ○

◎이래서 정답

- (1) '이 + 몸 → 잇몸'은 '이'와 '몸'이 합쳐진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ㅁ'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ㄴ'이 덧붙여 [인몸]으로 발음된다.
- (2) '숨 + 이불 → 숨이불'은 '숨'과 '이불'이 합쳐진 합성어로 뒷말이 'ㅣ'로 시작한다. 따라서 'ㄴ'이 덧붙여 [숨:니불]로 발음된다.
- (3) '먹- + -어 → 먹어'는 어간의 받침 'ㄱ'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 연음되어 [머겨]로 발음되며, [머겨]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4) '가지- + -어 → 가지어'는 [가지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모음 첨가 현상에 의해 [가지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확인 4 답 ㄴ, ㄹ

◎이래서 정답

- ㄴ. '맨입[맨닙]'은 '맨-'과 '입'이 결합하여 파생어가 될 때 'ㄴ'이 덧붙여 발음되고 있으므로, 'ㄴ' 첨가 현상이 나타

난 것이다.

- ㄹ. '쉬어[쉬어/쉬여]'는 어간 '쉬-'와 어미 '-어'가 결합한 것으로, [쉬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모음 첨가 현상이 나타나 [쉬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❷ 왜 오답

- ㄱ. '만형[마텅]'은 '만-'과 '형'이 결합할 때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것으로, 첨가가 아니라 축약(거센소리되기)이 나타난 것이다.
- ㄷ. '보여[보여]'는 어간 '보이-'와 어미 '-어'가 결합할 때 모음 'ㅣ'와 'ㅣ'가 'ㅢ'로 축약된 것으로, 첨가가 아니라 모음 축약이 나타난 것이다.

➤ 어휘

- **맨입**: ① 아무것도 먹지 아니한 입. ②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아니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파생어**: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명사 '부채'에 접미사 '-질'이 붙은 '부채질', 동사 어간 '덮-'에 접미사 '-개'가 붙은 '덮개', 명사 '버선' 앞에 접두사 '덧-'이 붙은 '덧버선' 따위가 있다.

1 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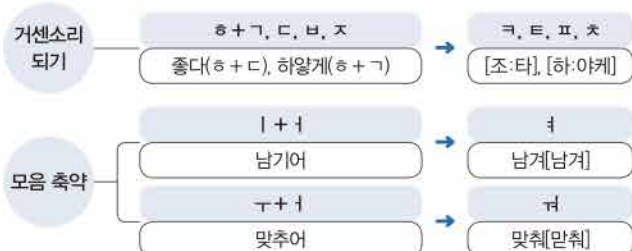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④ '놓으면[노으면]'은 어간의 받침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로, 음운 축약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왜 오답

- ① '종다[조:타]'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경우로, 자음 축약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② '하얏게[하:야게]'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는 경우로, 자음 축약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③ '남기어'는 '남겨[남겨]'와 같이 모음 'ㅣ'와 'ㅣ'가 만나 'ㅢ'로 축약되는 모음 축약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⑤ '맞추어'는 '맞춰[맞춰]'와 같이 모음 'ㅜ'와 'ㅜ'가 만나 'ㅠ'로 축약되는 모음 축약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거센소리되기, 모음 축약



2 답 ①

| 보기 | 오려 보기

'축약'은 두 음운이 만날 때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축약에는 ... 자음의 축약과 ... 모음의 축약이 있다.

이래서 정답

- ① ㄱ에서 '끓어[끄러]'는 어간 '끓-'에서 'ㅎ'이 탈락하고 'ㄹ'이 뒤 음절로 연음되어 발음된 것으로, 음운 축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오답

- ② ㄴ에서 '종고[조:코]'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된 것으로, 자음 축약에 해당한다.
 ③ ㄷ에서 '가지- + -어'가 '가져[가져]'가 된 것은 모음 'ㅣ'와 'ㅣ'가 만나 'ㅢ'로 축약된 것으로, 모음 축약에 해당한다.
 ④ ㄹ에서 '미루- + -어'가 '미뤄[미뤄]'가 된 것은 모음 'ㅜ'와 'ㅜ'가 만나 'ㅠ'로 축약된 것으로, 모음 축약에 해당한다.
 ⑤ ㅁ에서 '보- + -아서'가 '봐서[봐서]'가 된 것은 모음 'ㅗ'와 'ㅏ'가 만나 'ㅑ'로 축약된 것으로, 모음 축약에 해당한다.

3 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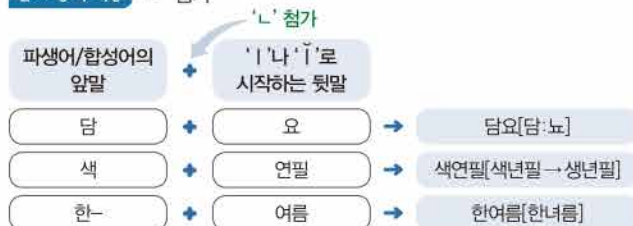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④ '색연필'은 합성어에서 뒷말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여 'ㄴ'이 덧붙어 [색년필]이 되었다가, '색'의 'ㄱ'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나타나 [생년필]로 발음된다. 즉 <보기>와 같이 'ㄴ'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① '법학'은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어 [버팍]으로 발음되므로, 자음 축약이 일어난다.
 ② '담요'는 'ㄴ' 첨가가 일어나 [담:뇨]로 발음되며,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③ '국론'은 앞에 오는 'ㄱ'의 영향으로 'ㄹ'이 'ㄴ'으로 바뀌고, 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궁논]으로 발음된다. 'ㄴ' 첨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⑤ '한여름'은 'ㄴ' 첨가가 일어나 [한너름]으로 발음되며,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문해 공식 적용 'ㄴ' 첨가



4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은 연음 현상, ㉡는 'ㄴ' 첨가, ㉢는 비음화, ㉣는 유음화에 대한 내용이다. '내복약'은 '내복'과 '약'의 합성어로, 앞말('내복')이 자음('ㄱ')으로 끝나고 뒷말이 '야'로 시작하므로, ㉡에 따라 'ㄴ'이 첨가되어 [내:복낙]이 된다. 그리고 ㉢에 따라 '복'의 받침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내:봉낙]으로 발음된다.

왜 오답

- ① '눈요기'는 ㉡에 따라 'ㄴ'이 첨가되어 [눈뇨기]로 발음된다. ㉠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영업용'은 ㉡에 따라 'ㄴ'이 첨가되어 [영업농]이 되고, ㉢에 따라 'ㅂ'이 'ㅁ'으로 바뀌어 [영엄농]으로 발음된다.
 ④ '들일'은 ㉡에 따라 'ㄴ'이 첨가되어 [들닐]이 되고, ㉣에 따라 'ㄴ'이 'ㄹ'로 바뀌어 [들릴]로 발음된다.
 ⑤ '칼날'은 'ㄴ'이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에 따라 원래 있던 'ㄴ'이 앞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칼랄]로 발음된다. ㉡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답 ②

음운

㉠이래서 정답

- ② ‘대관령(㉠)’에서 ‘ㄴ’은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에 의해 [대:괵령]으로 발음된다.

㉡왜 오답

- ① ‘한여름(㉡)’은 ‘한-+여름’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ㅇ’으로 시작하므로, ‘ㄴ’이 첨가되어 [한녀름]으로 발음된다.
 ③ ‘좋은(㉢)’은 어간 ‘중-’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ㅎ’이 탈락하고 [조:은]으로 발음된다.
 ④ ‘육망(㉣)’은 ‘ㄱ’이 뒤에 오는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에 의해 [용망]으로 발음된다.
 ⑤ ‘그렇게(㉤)’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므로 [그러케]로 발음된다.

6 답 ③

음운

㉠이래서 정답

- ③ ㉠의 ‘살피-+-어→[살피]’에서는 단모음 ‘ㅣ’와 단모음 ‘ㅣ’가 합쳐져 이중 모음 ‘ㅟ’로 축약된다. ㉡의 ‘배우-+-어→[배워]’에서도 단모음 ‘ㅜ’와 단모음 ‘ㅣ’가 합쳐져 이중 모음 ‘ㅟ’로 축약된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①, ②, ④, ⑤ ㉣의 ‘기-+-어→[기여]’에서는 단모음 ‘ㅣ’와 단모음 ‘ㅣ’가 만나 단모음 ‘ㅣ’와 이중 모음 ‘ㅟ’로 발음되고 있다. 이때 ‘ㅟ’는 반모음 ‘ㅇ’과 단모음 ‘ㅣ’가 결합한 것으로, 이는 두 개의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된 유형에 해당한다. ㉤의 ‘나서-+-어→[나서]’에서는 단모음 ‘ㅣ’와 단모음 ‘ㅣ’가 만나 단모음 ‘ㅣ’ 하나만 남아 발음되고 있다. 이는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진 유형에 해당한다.

7 답 ①

음운

㉠이래서 정답

- ① ‘종교[조:코]’는 ‘ㅎ’이 ‘ㄱ’과 만나 ‘ㅋ’으로 축약되므로, ㉡에 해당한다. ‘닿아[다아]’는 어간 끝의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 앞에서 탈락하므로, ㉣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② ‘쌍네[싼네]’는 어간 끝의 ‘ㅎ’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교체되고, 이 ‘ㄷ’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교체되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넙는[넉:는]’은 어간 끝의 ‘ㅎ’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교체되고, 이 ‘ㄷ’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교체되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넙는[넉:는]’과 ‘쌍네[싼네]’는 교체에 해당하므로, ㉡나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좁힌[조핀]’은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므로 ㉡에 해당한다. ‘닿지[달치]’ 역시 ‘ㅎ’이 ‘ㅈ’과 만나 ‘ㅉ’으로 축약되므로, ㉡에 해당한다.

8 답 ③

음운

㉠이래서 정답

- ③ ‘뵈힌(㉢)’은 ‘ㅂ’과 ‘ㅎ’이 ‘ㅍ’으로 축약되어 [뵈핀]으로 발음된다. ‘술한(㉣)’은 ‘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순한]이 되었다가,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되어 [수탄]으로 발음된다. ㉡, ㉣ 모두 음운 축약이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의 결과 전체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 들게 된다.

㉡왜 오답

- ① ‘발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에 의해 [반닐]이 되었다가 앞말의 종성 ‘ㄷ’이 뒷말의 초성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반닐]로 발음된다. 즉 앞말의 종성이 뒷말의 초성과 조음 방법이 같아 지는 것이다.
 ②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교체와 ‘ㄴ’ 첨가 후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맞지만, ‘ㅌ’이 연음되지는 않는다.
 ④ ‘굳혔다(㉣)’는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된 후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며 ‘다’의 ‘ㄷ’이 된소리가 되어 [구철따]로 발음되므로,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에서는 축약 현상만 일어나고 교체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⑤ ㉣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에서는 거센소리되지만 일어날 뿐,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 어휘

- **국론**: 국민 또는 사회 일반의 공통된 의견.
- **내복약**: 바르거나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병을 치료하는 약. 알약, 물약, 가루약 따위가 있다.
- **눈요기**: 눈으로 보기만 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는 일.
- **술한**: 아주 많은.

1 답 ①

음운

이래서 정답

- ① ‘썰던’은 ‘ㅎ’이 예사소리 ‘ㄷ’보다 앞에 놓여 있으므로 거센소리되기보다 먼저 적용된다. 따라서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싸턴]으로 발음되며,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 오답

- ② ‘읽고’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일코]로 발음된다.
- ③ ‘끓이다’는 겹받침 ‘ㅌ’에서 ‘ㅎ’이 탈락한 후에, ‘ㄹ’이 뒤 음절로 연음되어 [끄리다]로 발음된다.
- ④ 체언 ‘끓’에 조사 ‘하고’가 결합된 ‘끓하고[치카고]’는 겹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한 후에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축약된다. ‘하찮은[하차는]’은 겹받침 ‘ㅌ’에서 ‘ㅎ’이 탈락한 후에 ‘ㄴ’이 뒤 음절로 연음된다. 따라서 탈락이 공통적으로 일어난다.
- ⑤ ‘먹히다[머키다]’에서는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고, ‘끓고서[끈코서]’에서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된다. 따라서 모두 음운 변동이 한 번씩만 일어난다.

문제 공식 적용 거센소리되기

ㅎ+ㄱ, ㄷ, ㅌ	→	ㅋ, ㅌ, ㅊ
썰던, 읽고, 끓고서		[싸턴], [일코], [끈코서]
ㄱ, ㄷ, ㅌ, ㅌ+ㅎ	→	ㅋ, ㅌ, ㅊ, ㅊ
먹히다	→	[머키다]
끓하고	→	[치카고]
	ㄹ → ㄱ (탈락)	

2 답 ①

음운

이래서 정답

- ① ㉓는 ‘낫’의 받침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되어 [낫한때]가 되었다가,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어 [나탄때]로 발음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거센소리되기보다 먼저 적용되었으므로 ㉓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② ㉔는 다른 음운 변동 없이 곧바로 ‘ㅌ’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므로 ㉔에 해당한다.
- ③ ㉕는 겹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하여 [닥한테]가 되었다가,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므로 ㉕에 해당한다.
- ④ ㉖는 ‘꽃’의 받침 ‘ㅌ’이 ‘ㄷ’으로 교체되어 [곤하고]가 되었다가,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므로 ㉖에 해당한다.
- ⑤ ㉗는 다른 음운 변동 없이 곧바로 겹받침 ‘ㅌ’의 ‘ㅌ’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므로 ㉗에 해당한다.

3 답 ⑤

음운

이래서 정답

- ⑤ 3문단에 따르면 15세기 국어에서 ‘ㅌ’는 이중 모음이었음으로 추정되므로, 체언 ‘바’에 조사 ‘이’가 붙어 ‘배’로 표기된 사례는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모음화는 반모음과 성질이 비슷한 단모음에 적용되므로, 체언의 단모음 ‘ㅌ’가 아닌 조사의 단모음 ‘ㅣ’가 반모음 ‘ㅣ̣’로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현대 국어에서 ‘피어’를 [피:]로 발음하는 것은 반모음화가 일어난 경우로, 규범상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② 반모음화는 반모음과 성질이 비슷한 단모음에 적용되는 것으로, 현대 국어에서 ‘피어’를 [피:]로 발음할 때는 어간 ‘피-’의 단모음 ‘ㅣ’가 반모음 ‘ㅣ̣’로 교체된다.
- ③ 현대 국어에서 어간이 ‘ㅣ, ㄱ, ㄴ’로 끝날 때 어미에 반모음 ‘ㅣ̣’가 첨가되는 경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만,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피어’가 [피어]로 발음되어도 ‘피어’로 표기해야 한다.
- ④ 15세기 국어에서는 ‘ㅌ, ㅌ, ㅌ, ㅌ, ㅌ, ㅌ’가 이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ㅌ’는 단모음 ‘ㅌ’과 반모음 ‘ㅣ̣’가 결합한 이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답 ②

음운

이래서 정답

- ② ‘괴여(㉒)’의 ‘ㅌ’는 ‘ㄷ’과 반모음 ‘ㅣ̣’가 결합한 이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괴여’는 어간 ‘괴-’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반모음 ‘ㅣ̣’ 뒤에서 반모음 ‘ㅣ̣’가 첨가된 사례(㉑)에 해당한다. ‘니겨(㉓)’는 어간 ‘니기-’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니겨’로 표기된 경우로, 어간의 끝모음 ‘ㅣ’가 반모음 ‘ㅣ̣’로 교체된 반모음화의 사례(㉔)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①, ③, ④, ⑤ ‘내(㉔)’의 ‘ㅌ’는 ‘ㅌ’와 반모음 ‘ㅣ̣’가 결합한 이중 모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나+이→내’는 체언 ‘나’에 조사 ‘이’가 붙을 때 조사의 ‘ㅣ’가 반모음 ‘ㅣ̣’로 교체된 반모음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디여(㉕)’는 어간 ‘디-’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어미에 반모음 ‘ㅣ̣’가 첨가된 경우이다. 이는 어간이 ‘ㅣ’로 끝나는 용언에서 일어난 반모음 첨가의 사례에 해당한다.

어휘

- 꽃: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뽀족하게 뻗은 육지.

확인 1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이르는 말이다.
- (2)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는 형태소를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나눈 것이다.
- (3) 접두사는 어근의 앞에, 접미사는 어근의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이다.

확인 2 답 (1) 의존 (2) 형식

이래서 정답

- (1) ‘-다’는 자립해서 쓸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 (2) ‘-다’는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이다.

확인 3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뽕개’는 어근 ‘뽕-’과 접미사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며, ‘풋과일’은 접두사 ‘풋-’과 어근 ‘과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왜 오답

- ①, ② ‘눈물’은 ‘눈’과 ‘물’, ‘밥술’은 ‘밥’과 ‘술’, ‘물병’은 ‘물’과 ‘병’이라는 어근끼리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고, ‘언니’는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일어이다.

확인 4 답 ㉠, ㉡

이래서 정답

‘팔다리(㉠)’는 ‘팔’과 ‘다리’, ‘배나무(㉡)’는 ‘배’와 ‘나무’라는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두 단어 모두 ㉠에 해당한다.

왜 오답

‘멋쟁이(㉢)’는 어근 ‘멋-’과 접미사 ‘-쟁이’, ‘풋사랑(㉣)’은 접두사 ‘풋-’과 어근 ‘사랑’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두 단어 모두 ㉠에 해당한다.

+ 어휘

- **자립성**: 남에게 예측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서려는 성질.
- **풋**: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1 답 ⑤

단어

| 보기 | 오려 보기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며, 더 나눌 경우 원래의 뜻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

이래서 정답

- ⑤ ‘놀았다’는 실질 형태소인 ‘놀-’과 형식 형태소인 ‘-았-’, ‘-다’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두 개가 아닌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이다.

왜 오답

- ① ‘우리’를 ‘우’와 ‘리’로 나누면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라는 ‘우리’의 뜻이 사라진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형태소이다.
- ② ‘아기만’은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인 ‘아기’와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인 ‘만’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형태소이다.
- ③ ‘맨발’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맨-’과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을 뜻하는 ‘발’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형태소이다.
- ④ ‘잔디밭’은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인 두 어근 ‘잔디’와 ‘밭’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형태소이다.

2 답 ④

단어

이래서 정답

- ④ ‘검불다(검-+불-+다)’는 두 어근 ‘검-’과 ‘불-’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그러나 ‘나무꾼’은 어근 ‘나무’에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왜 오답

- ① ‘치솟다’는 ‘위로 향하게’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치-’가 어근인 ‘솟다’에 붙어 뜻을 더하고 있는 파생어이다.
- ② ‘밤하늘’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 ‘밤’과 어근 ‘하늘’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③ ‘지우개’는 어근 ‘지우-’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며, ‘닭고기’는 두 어근 ‘닭’과 ‘고기’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 ⑤ ‘개살구’는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개-’가 어근 ‘살구’에 결합한 파생어이고, ‘부채질’은 어근 ‘부채’에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질’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3 답 ②

단어

이래서 정답

- ② ‘그’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에는 ‘ㅇ’가 들어간다. ‘도둑’ 뒤에 붙어 쓰인 조사 ‘을’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므로 ㉡에는 ‘ㅅ’가 들어간다. ‘잡-’은 ‘붙들어 손에 넣다.’라는 의미의 실질 형태소이므로 ㉢에는 ‘ㅇ’가 들어간다.

문제 공식 적용 형태소



4 답 ③

단어

| 보기 | 오려 보기

셋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단어를 직접 이루고 있는 두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

이래서 정답

- ③ ‘놀이터’는 먼저 어근 ‘놀이’와 어근 ‘터’로 나뉜다. ‘놀이’는 다시 어근 ‘놀-’과 접미사 ‘-이’로 나뉜다. 따라서 ‘놀이터’는 ‘(어근 + 접미사) + 어근’의 구조로 된 합성어이다.

왜 오답

- ① ‘집안일’은 먼저 어근 ‘집안’과 어근 ‘일’로 나눌 수 있다. ‘집안’은 다시 어근 ‘집’과 어근 ‘안’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집안일’은 ‘(어근 + 어근) + 어근’의 구조로 된 합성어이다.
- ② ‘내리막’은 어근 ‘내리-’와 접미사 ‘-막’으로 나눌 수 있다. ‘내리’는 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이므로, ‘내리막’은 ‘어근 + 접미사’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 ④ ‘코웃음’은 먼저 어근 ‘코’와 어근 ‘웃음’으로 나뉜다. ‘웃음’은 다시 어근 ‘웃-’과 접미사 ‘-음’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코웃음’은 ‘어근 + (어근 + 접미사)’로 된 합성어이다.
- ⑤ ‘군것질’은 먼저 어근 ‘군것’과 접미사 ‘-질’로 나뉜다. ‘군것’은 다시 접두사 ‘군-’과 어근 ‘것’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군것질’은 ‘(접두사 + 어근) + 접미사’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5 답 ⑤

단어

이래서 정답

- ⑤ ‘수팽, 솟양’은 ‘새끼를 배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수-/솟-’이 명사 ‘팽’과 ‘양’에 결합

한 단어이다. ‘팽’과 ‘양’이 모두 명사이므로 ㉡의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 오답

- ① ‘군기침, 군살’은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군-’이 명사 ‘기침’과 ‘살’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② ‘빋나가다, 빋맞다’는 ‘잘못’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빋-’이 용언 ‘나가다’와 ‘맞다’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③ ‘헛디디다, 헛수고’는 ‘잘못’,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헛-’이 동사 ‘디디다’와 명사 ‘수고’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④ ‘새빨강다, 셋노랑다’는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새-/셋-’이 용언 중 형용사에 해당하는 ‘빨강다’와 ‘노랑다’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이므로 ㉡과 ㉢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이다.

6 답 ⑤

단어

이래서 정답

- ⑤ ‘검먹다’는 ‘검(을)’과 ‘먹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본받다’와 마찬가지로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왜 오답

- ① ‘혼나다’는 ‘혼(이)’와 ‘나다’가 결합한 말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빋나다’는 ‘빋(이)’와 ‘나다’가 결합한 말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힘들다’는 ‘힘(이)’와 ‘들다’가 결합한 말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앞서다’는 ‘앞(에)’과 ‘서다’가 결합한 말로,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7 답 ①

단어

이래서 정답

- ① ‘울음보’는 ㉠에서 어근 ‘울음’과 접사 ‘-보’로 분석되며, ㉡에서 어근 ‘울-’과 접사 ‘-음’으로 분석된다.

왜 오답

- ② ‘헛웃음’은 ㉠에서 접사 ‘헛-’과 어근 ‘웃음’으로 분석되며, ㉡에서 어근 ‘웃-’과 접사 ‘-음’으로 분석된다.
- ③ ‘손목뼈’는 ㉠에서 어근 ‘손목’과 어근 ‘뼈’로 분석되며, ㉡에서 어근 ‘손’과 어근 ‘목’으로 분석된다.
- ④ ‘얼음길’은 ㉠에서 어근 ‘얼음’과 어근 ‘길’로 분석되며, ㉡에서 어근 ‘얼-’과 접사 ‘-음’으로 분석된다.

- ⑤ '물놀이'는 ㉠에서 어근 '물'과 어근 '놀이'로 분석되며, ㉡에서 어근 '놀-'과 접사 '-이'로 분석된다.

8 답 ①

⑤ 이래서 정답

- ① 그가 가지런히 모은 '손발'은 '손과 발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손'과 '발'이 결합한 '손발'에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⑥ 왜 오답

- ② '물불을 가리지 않고'에서 '물불'은 어근 '물'과 어근 '불'이 결합한 말로, '물'과 '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와 다른 '어려움이나 위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
- ③ '큰 폭발로 건물 전체가 쑥밭이 된'에서 '쑥밭'은 어근 '쑥'과 어근 '밭'이 결합한 말로, '쑥'과 '밭'의 원래 의미와 다른 '매우 어지럽거나 못 쓰게 된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
- ④ '피땀을 흘려 모은 재산'에서 '피땀'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노력과 정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원래의 어근 '피'와 '땀'에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 것이다.
- ⑤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에서 '바늘방석'은 '앉아 있기에 아주 불안스러운 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원래의 어근 '바늘'과 '방석'이 가지고 있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 것이다.

+ 어휘

- **생성**: 사물이 생겨남.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함.
- **보람**: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또는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일의 가치.

1 답 ⑤

⑤ 이래서 정답

- ⑤ '먹었다'의 '먹-'은 '음식 등을 입을 거쳐 배 속으로 들여보내다.'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자립하여 쓸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뜻을 지닌 형태소가 모두 자립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⑥ 왜 오답

- ① 1문단에서 형태소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한 것과 2문단에서 단어 '살구'를 쪼개면 각각은 뜻이 없다고 한 것을 통해 형태소를 더 작게 쪼개면 뜻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먹었다'는 '먹-', '-었-', '-다'라는 세 개의 의존 형태소로 형성된 단어이며, 조사 '를'은 의존 형태소인 동시에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 ③ '살구'와 '를'은 형태소 하나가 단어 하나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 ④ '를'과 '먹었다'의 '-었-', '-다'는 문법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2 답 ⑤

⑤ 이래서 정답

- ⑤ <보기>의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하면 '그, 가, 풀, 밭, 을, 맨-, 밭, 로, 뛰-, -ㄴ-, -다'가 된다. 형식 형태소에는 어미, 조사, 접사가 있는데, <보기>에서 '-ㄴ-, -다'는 어미, '가, 을, 로'는 조사, '맨-'은 접사이다. 따라서 이 문장의 형식 형태소는 모두 6개이다.

⑥ 왜 오답

- ① '풀밭'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두 어근 '풀'과 '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에 다른 말을 넣었을 때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 ② '맨밭'의 '맨-'은 '밭'과 결합하여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하나의 형태소이다.
- ③ '뛰다'의 '-ㄴ-'은 '먹었다'의 '-었-'과 같이 동작의 시제를 나타내므로 하나의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 ④ 다른 말에 기대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인 자립 형태소는 '그', '풀', '밭', '밭'로 모두 4개이다.

3 답 ③

⑤ 이래서 정답

- ③ '피땀(㉠)'은 명사 '피'와 명사 '땀'이 결합하였고, '송이송이(㉡)' 또한 명사 '송이'끼리 결합한 합성어이다. 하지만

㉠의 품사는 명사, ㉡의 품사는 부사이므로 두 합성어의 품사는 동일하지 않다.

③ 왜 오답

- ① ㉠은 융합 합성어로 두 어근 '피'와 '땀'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노력과 수고'라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② '봄비(㉡)'는 명사 '봄'과 명사 '비'가 결합한 합성 명사로, '봄철에 오는 비'를 뜻한다. 이를 통해 선행 어근인 '봄'이 후행 어근인 '비'에 의미상 종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논밭(㉢)'은 두 어근 '논'과 '밭'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대등 합성어이며, ㉡은 선행 어근 '봄'이 후행 어근 '비'에 의미상 종속되어 있는 종속 합성어이다. 두 합성어의 품사는 명사로 동일하다.
- ⑤ ㉢과 ㉡ 모두 결합한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대등 합성어이지만, ㉢의 품사는 명사, ㉡의 품사는 부사로 두 합성어의 품사는 다르다.

4 답 ②

단어

③ 이래서 정답

- ② '하루빨리'는 명사 '하루'와 부사 '빨리'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또다시'의 다른 예(㉤)라고 볼 수 없다.

③ 왜 오답

- ① '또다시'는 부사 '또'와 부사 '다시'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에는 '부사와 부사의 결합'이 들어갈 수 있다.
- ③ 관형사와 명사의 결합은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에 해당하므로 ㉢에는 '통사적 합성어'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연결 어미 없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한 단어는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이므로, ㉣에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굳세다'는 용언 '굳다'와 '세다'의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직접 결합한 단어이므로 '붙잡다'의 다른 예로 ㉥에 들어갈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 어휘

- 수행: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냄.

07 체언, 관계언

확인 1 답 (1) × (2) × (3) ○

③ 이래서 정답

- (1) 명사는 구체적 또는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2)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 (3) 대명사는 사람, 사물, 처소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로 '나, 너, 이것' 등이 대명사의 예이다.

확인 2 답 ③

③ 이래서 정답

- ③ '사회(㉡)'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확인 3 답 (1) 의미 (2) 같은 (3) 뒤

③ 이래서 정답

- (1)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이다.
- (2) 접속 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이다.
- (3) 격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체언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 주는 조사이다.

확인 4 답 ①

③ 이래서 정답

- ① '가'는 격 조사 중 하나인 주격 조사로,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주어임을 표시한다.

확인 5 답 ③

③ 이래서 정답

- ③ '만'은 단독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이다.

③ 왜 오답

- ①, ② '와'와 '이랑'은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잇는 접속 조사이다.

+ 어휘

- 추상적: ①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② 구체성이 없이 사실이나 현실에서 멀어져 막연하고 일반적인.
- 처소: ① 사람이 거거하거나 임시로 머무는 곳. ②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물건이 있는 곳.

1 답 ⑤

①이래서 정답

- ⑤ ㉔의 '수'는 조사가 아닌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즉 '기여할수'는 '기여할 수'로 써야 하므로 띄어쓰기의 적절성에는 '×'가 들어간다.

②왜 오답

- ①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각 별개의 단어인 '각종'과 '토론'은 띄어 써야 한다.
 ② <보기 1>에서 두 말을 이어 주는 말은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고 하였다. '및'은 '학교'와 '지역'을 이어 주는 말(부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③ ㉔의 '번'은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보기 1>에 따르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여러번'은 '여러 번'으로 띄어 써야 한다.
 ④ ㉔의 '데'는 앞에 수식어가 없으면 홀로 쓸 수 없는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알리는데'는 '알리는 데'로 띄어 써야 한다.

2 답 ③

①이래서 정답

- ③ ㄷ의 '만'과 '도'는 보조사로 각각 단독과 더함의 뜻에 더하고 있을 뿐 앞말의 품사는 바꾸지 않는다.

②왜 오답

- ① ㄱ의 '이'는 주격 조사, '을'은 목적격 조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이들은 체언에 붙어 체언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격 조사이다.
 ② ㄴ의 '와'와 '랑'은 두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④ ㄹ의 '이', '도', '만'은 각각 체언 '꽃', 용언 '예쁘게', 부사 '천천히' 뒤에 붙어 쓰인 조사이다.
 ⑤ ㄹ은 조사 '이'가 쓰인 예와 조사가 생략된 예, '만 + 으로 + 도'로 조사가 둘 이상 겹쳐서 쓰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3 답 ③

①이래서 정답

- ③ '와'는 앞뒤의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사로, ㉔의 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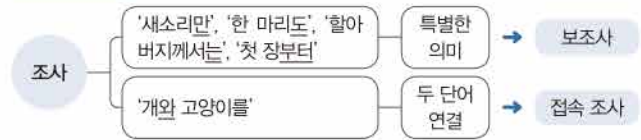
②왜 오답

- ① '만'은 보조사로, 앞말에 단독의 의미를 더해 준다.
 ② '도'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양보하여,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하다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④ '는'은 보조사로, 앞말에 강조의 의미를 더해 준다.
 ⑤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문해 공식 적용 조사



4 답 ③

①이래서 정답

- ③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에서의 '에서'는 '에서[1]'의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에서[3]'의 용례로 적절하지 않다.

②왜 오답

- ① '에서'가 모두 격 조사로만 쓰이는 반면 '에[1]'은 격 조사로, '에[2]'는 접속 조사로 쓰인다.
 ② '밥에, 국에, 떡에'에서 '에'는 문장에서 '밥', '국', '떡'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고 있으므로 '에[2]'의 용례로 적절하다.
 ④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를 '동생은 지금 집에서 없다.'로 바꾸어 쓰면 문장의 의미가 어색해지므로 바꿔 쓸 수 없다.
 ⑤ 형이 방금 집에 도착했다는 의미인 "형은 방금 집에 왔다."를 '형은 방금 집에서 왔다.'로 바꿔 쓰면 형이 방금 집에서 출발해서 왔다는 의미가 되므로, 조사가 바뀌면 문장의 의미가 바뀐다.

5 답 ④

①이래서 정답

- ④ 용언의 관형사형인 '먹을' 뒤에서 '만큼'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먹을 만큼'은 띄어 쓰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②왜 오답

- ① 용언의 관형사형인 '아는' 뒤에서 '대로'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아는대로'는 '아는 대로'로 띄어 써야 한다.
 ② '약해질대로'에서 '대로'는 용언의 관형사형인 '약해질' 뒤에 온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약해질대로'는 '약해질 대로'로 띄어 써야 한다.
 ③ 체언인 '생각' 뒤에서 '대로'는 조사이기 때문에 '생각 대로'는 '생각대로'로 붙여 써야 한다.
 ⑤ 체언인 '말' 뒤의 '만큼'은 조사이기 때문에 '말 만큼은'은 '말만큼은'으로 붙여 써야 한다.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

이래서 정답

- ① '균데'는 '날날의 곳을 세는 단위'라는 의미를 지닌 의존 명사이며, 자립 명사로 쓰이지 않는다.

왜 오답

- ② '그릇'은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라는 뜻을 지닌 자립 명사이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인 '두' 뒤에서 '밥그릇'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덩어리'는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을 지닌 자립 명사이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인 '세' 뒤에서 '수박'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숟가락'은 '밥이나 국물 따위를 떠먹는 기구'라는 뜻을 지닌 자립 명사이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인 '몇' 뒤에서 음식물을 뜯 숟가락의 분량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고 있다.
- ⑤ '밭자국'은 '밭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이라는 뜻을 지닌 자립 명사이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인 '서너' 뒤에서 걸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고 있다.

7 3

이래서 정답

- ③ '반찬도(㉔)'에서 '도'는 놀라움의 감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함의 의미를 덧붙이고 있다.

왜 오답

- ① '축구도(㉑)'가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보조사 '도'가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평소에도(㉒)'에서 조사 '에'와 보조사 '도'가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깎아도 먹고 구워도(㉓)'에서 보조사 '도'는 '깎다'와 '굽다'라는 두 가지 행위가 동등하게 일어남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갈아입지도(㉔)'에서 보조사 '도'는 더함의 의미를 덧붙여서 다른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어휘

- **기여** :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 **용례** : 쓰고 있는 예. 또는 용법의 보기.
- **수효** : 날날의 수.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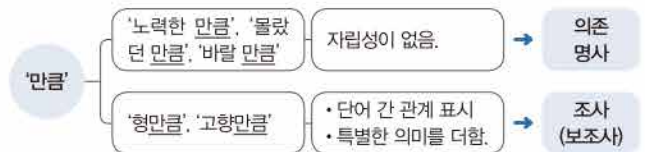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① '노력한 만큼'의 '만큼'은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의존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의 띄어쓰기 판단 결과는 '×'가 아닌 '○'여야 한다.

왜 오답

- ② '형 만큼'의 '만큼'은 체언인 '형' 뒤에서 조사로 쓰이기 때문에 '형만큼'으로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형 만큼'의 띄어쓰기 판단 결과는 '×'이다.
- ③, ④ '몰랐던 만큼', '바랄 만큼'의 '만큼'은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의존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몰랐던 만큼', '바랄 만큼'의 띄어쓰기 판단 결과는 '○'이다.
- ⑤ '고향만큼'의 '만큼'은 체언인 '고향' 뒤에서 조사로 쓰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고향만큼'의 띄어쓰기 판단 결과는 '○'이다.

문해 공식 적용 '만큼'의 품사



2 2

이래서 정답

- ② *받은 만, *받던 만'이 어색한 것으로 보아 ㄴ의 '만'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만 결합하는 선행어의 제약이 있다.

왜 오답

- ① ㄱ의 '바'는 '바를' 외에도 '바에', '바가' 등으로 쓸 수 있으므로 후행어의 제약이 없다.
- ③ ㄷ의 '무렵'은 '이다' 외에 조사 '에', '의' 등과도 함께 쓸 수 있으므로 후행어의 제약이 없다.
- ④ ㄹ의 '리' 뒤에 '가'가 아닌 다른 격 조사가 오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리'는 후행어 제약이 있다.
- ⑤ ㄹ의 '채' 앞에 '-(으)ㄴ' 외의 다른 관형사형 어미가 오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채'는 선행어 제약이 있다.

3 1

이래서 정답

- ① ㉑의 '이'는 '아니다'의 앞에서 체언인 '인물'이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하도록 하는 보격 조사이다.

❖ 왜 오답

- ② ㉠의 '이니'는 '이다'의 활용형으로, 체언 '날' 뒤에 붙어서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서술격 조사이다.
- ③ ㉡의 '도'는 부사인 '많이'에 붙어 놀라움의 감정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조사이다.
- ④ ㉢의 '의'는 체언 '동생'에 붙어 관형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관형격 조사이다.
- ⑤ ㉣의 '랑'은 '구두'와 '모자'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4 답 ⑤

답어

㉠ 이래서 정답

- ⑤ 첫 번째 문장의 '에서'는 체언 '부산' 뒤에 붙어 앞말이 부사어 자격을 갖게 하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으며, 두 번째 문장의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인 '학교' 뒤에 붙어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주격 조사로 쓰였다. 따라서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두 문장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예(㉠)로 적절하다.

❖ 왜 오답

- ① 두 문장의 '가'는 모두 앞말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조사로 쓰였다.
- ② 두 문장의 '를'은 모두 목적격 조사로 쓰여 앞말이 목적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두 문장의 '에'는 모두 앞말이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 ④ 두 문장의 '과'는 모두 부사격 조사로 쓰여 앞말이 부사어임을 나타내고 있다.

❖ 어휘

- **판단** :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
- **제약** : ①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함. 또는 그 조건. ② 사물의 성립에 필요한 규정이나 조건.

단어 08 품사 용언

확인 1 답 (1) 용언 (2) 형용사 (3) 목적어

㉠ 이래서 정답

- (1)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단어는 용언이다.
- (2) 용언 중에서 사람이나 사물 등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형용사이고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동사이다.
- (3) 타동사는 자동사와는 달리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확인 2 답 ㉠

㉠ 이래서 정답

- ㉠의 '가다'는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라는 뜻으로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반면 ㉡의 '예쁘다'는 '생긴 모양이 아름다워 눈으로 보기에 좋다.', ㉢의 '향기롭다'는 '향기가 있다.'라는 뜻으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따라서 품사가 다른 하나는 ㉠이다.

확인 3 답 ㉡

㉡ 이래서 정답

- ㉡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짜이 났다'의 '나다'는 목적어 없이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자동사이다.

❖ 왜 오답

- ① '소리를 질렀다'의 '지르다'는 '목청을 높여 소리를 크게 내다.'라는 뜻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 ③ '밥을 먹었다'의 '먹다'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라는 뜻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확인 4 답 ㉢

㉢ 이래서 정답

- ㉢ ㉠에서 용언이 활용할 때 '낫-'은 '나-'로 형태가 바뀌고 있다. '낫-'은 용언의 어간이므로 ㉡의 '나아'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인 '스' 불규칙의 예이다.

❖ 왜 오답

- ① '담그- + -아 → 담가', '예쁘- + -어서 → 예뻐서', '슬프- + -었- + -다 → 슬펐다'에서 공통적으로 '으'가 탈락

하고 있다. 따라서 ㉠은 '으' 탈락 규칙의 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웃- + -어 → 웃어', '씻- + -어 → 씻어'에서 보듯이 '웃다'와 '씻다'는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반면 '낮- + -아 → 나아'에서는 활용할 때 어간의 'ㅅ'이 탈락한다. 이처럼 활용에서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달라질 때 일반적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고, '나아'처럼 어간의 'ㅅ'이 탈락한 경우를 'ㅅ' 불규칙이라고 한다.

확인 5 답 (1) ㉠, ㉡ (2) ㉠, ㉢, ㉤, ㉥

◎ **이래서 정답**

- (1) '밟다'에서 '밟-'은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 '-다'는 어미 맨 뒤에 오는 어말 어미(㉡)이다.
 (2) '가시겠구나'에서 '가-'는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이고, '-시-'와 '-겠-'은 어말 어미 앞에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로, 각각 높임과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구나'는 어미 맨 뒤에 오는 어말 어미(㉤)이다.

⊕ **어휘**

- **서술** 사건이나 생각 따위를 차례대로 말하거나 적음.
- **공통적** 둘 또는 그 이상의 것에 두루 통하고 관계된 것.

1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차다'는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는 뜻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차다'는 '차니', '차서'와 같이 형태가 바뀌는 가변어이다.

⊙ **왜 오답**

- ① '한라산'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② '첫째'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④ '정원에'의 '에'는 앞의 체언이 부사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다.
 ⑤ '나의'의 '나'는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2 답 ②

| 보기 | 오려 보기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

◎ **이래서 정답**

- ② <보기>에 따르면 형용사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붙지 않는다. 그런데 ㉠의 '밝는다'는 '밝다'의 어간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하여 문장에서 '밝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온다.'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 **왜 오답**

- ① ㉠의 '던졌다'는 '손에 든 물건을 다른 곳에 떨어지게 팔과 손목을 움직여 공중으로 내보냈다.'라는 뜻으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③ ㉢의 '아는'은 '알다'의 어간에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동사이다.
 ④ ㉤의 '입어라'는 '입다'의 어간에 명령형 어미 '-어라'가 결합한 동사이다.
 ⑤ ㉥의 '건강하자'는 '건강하다'의 어간에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하여 비문법적 표현이 된 것이다. 따라서 '건강하다'는 형용사이다.

3 답 ②

| 보기 | 오려 보기

어간은 용언 등이 활용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용언은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바뀌면서 활용되는데,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

㉠이래서 정답

- ② <보기 1>에 따르면 어간은 용언이 문장에서 활용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활용 시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높-'은 '높다', '높고', '높지' 등으로 활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용언의 어간이므로, ㉠에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보기 1>에 따르면 어근은 단어를 구성할 때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말한다. '높다'에서 '높-'은 어근이므로, ㉠에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가 들어가야 한다.

4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보기>는 하나의 단어가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대가 크다.'에서 '크다'는 '몸이나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일의 영향, 충격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뜻의 형용사이고, '키가 쑥쑥 크다.'에서 '크다'는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왜 오답

- ① '높이 뛰다.'에서 '뛰다'는 '있던 자리로부터 몸을 높이 솟구쳐 오르다.'라는 뜻의 동사이고, '가슴이 뛰다.'에서 '뛰다'는 '맥박이나 심장 따위가 별떡별떡 움직이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 ② '얼굴이 젊다.'에서 '젊다'는 '보기에 나이가 제 나이보다 적은 듯하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젊은 나이'에서 '젊다'는 '나이가 한창때에 있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 ③ '봄바람이 따뜻하다.'에서 '따뜻하다'는 '덥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따뜻한 마음씨'에서 '따뜻하다'는 '감정, 태도, 분위기 따위가 정답고 포근하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 ⑤ '웃음이 피어나다.'에서 '피어나다'는 '웃음이나 미소 따위가 얼굴이나 입가에 드러나다.'라는 뜻의 동사이고, '개나리가 한창 피어나는'에서 '피어나다'는 '꽃 따위가 피게 되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5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갈증이 싹 가셨겠구나.'에서 '가시다'는 '어떤 상태가 없어지거나 달라지다.'라는 뜻의 동사로 어간은 '가시-'이다. 따라서 '가셨겠구나(㉠)'는 '가시- + -었- + -겠- + -구나'로 분석된다. 그중 용언의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선어말 어미('-(으)-', '-(으)')는 두 개가, 어말 어미(종결 어미 '-구나')는 한 개가 사용되었다.

㉡왜 오답

- ① '행복하셨기(㉠)'는 '행복하- + -시- + -었- + -기'로 분석된다. 그중 선어말 어미('-(으)-', '-(으)')는 두 개가, 어말 어미(전성 어미 '-기')는 한 개가 사용되었다.
- ② '됐을(㉠)'은 '새- + -었- + -을'로 분석된다. 그중 선어말 어미('-(으)')는 한 개, 어말 어미(전성 어미 '-을')는 한 개 사용되었다.
- ③ '귀찮으시겠지만(㉠)'은 '귀찮- + -으시- + -겠- + -지만'으로 분석된다. 그중 선어말 어미('-(으)-', '-(으)')는 두 개가, 어말 어미(연결 어미 '-지만')는 한 개가 사용되었다.
- ⑤ '다다른(㉠)'은 '다다르- + -ㄴ'으로 분석된다. 그중 선어말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어말 어미(전성 어미 '-ㄴ')만 한 개가 사용되었다.

6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음'의 용례 중 '그 말을 믿었음', '판단이 옳음'에서 격 조사 '이'와 '을'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음'의 용례 중 '믿음', '묵음'에서 격 조사 '을'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음', '-음' 모두 뒤에 격 조사가 올 수 있다.

㉡왜 오답

- ① '-음'의 첫 번째 용례 '믿었음'은 선어말 어미 '-었-'과 결합한 것이다.
- ② 용언 뒤에 '-음'이 붙은 것은 용언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단어는 본래의 품사를 유지한다.
- ③ '-음'의 두 번째 용례에서 '묵음'은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관형사 '한'의 수식을 받고 있다.
- ⑤ '음'은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뒤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로, '음'이 붙은 말은 앞의 주어와 어울려 문장에서 명사절이 된다. 따라서 '음'이 붙은 말은 앞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음'은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명사로 만드는 접미사이므로, '음'이 붙은 말은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할 수 없다.

7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ㄱ의 '아름다운'은 '꽃이 아름답다.'처럼 주어인 '꽃이'를 서술하는 기능을, ㄴ의 '빠른'은 '일 처리가 빠르다.'처럼 주어인 '일 처리가'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므로 형용사이다. 그러나 ㄴ의 '웬'과 ㄷ의 '새', ㄹ의 '모든'은 각각 '말이', '가구가', '사람들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관형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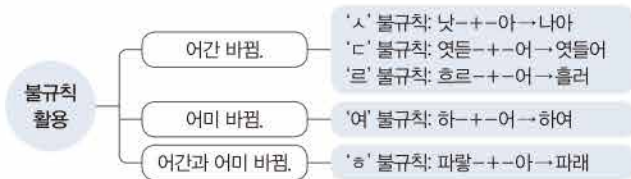
◎ 이어서 정답

- ④ ‘치르다’는 ‘치르-+ -어’가 ‘치러’로 바뀌며 ‘으’가 탈락하는 규칙 활용을 한다. 반면 ‘흐르다’는 ‘흐르-+ -어’가 ‘흘러’로 바뀌는데, 이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르’의 ‘ㄹ’이 탈락하고 ‘ㄹ’이 덧생겨 ‘ㄹㄹ’ 형태로 변하는 ‘르’ 불규칙 활용을 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 왜 오답

- ① ‘낫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ㅅ’이 탈락하므로 ㉡에 해당한다.
 ② ‘엷들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뀌므로 ㉢에 해당한다.
 ③ ‘하다’는 어간 ‘하-’ 뒤에 어미 ‘-아/-어’가 ‘-여’로 바뀌어 결합하므로 ㉣에 해당한다.
 ⑤ ‘파랗다’는 ‘ㅎ’으로 끝나는 어간 ‘파랗-’에 어미 ‘-아’가 올 때 ‘파래’가 된다. 이때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변하므로 ㉤에 해당한다.

문해 공식 적용 불규칙 활용



+ 어휘

- **결합**: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됨.
- **본래**: 사물이나 사실이 전하여 내려온 그 처음.

1 5

◎ 이어서 정답

- ⑤ ‘유쾌한’은 ‘유쾌하다’의 어간 ‘유쾌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용사이다. ㉡은 관형사에 대한 설명이며 형용사에 대한 설명은 ㉠~㉣ 중에서 찾을 수 없다.

❖ 왜 오답

- ① ‘옛날, 사진, 기억’은 활용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② ‘보다, 떠오르다’에서 활용된 ‘보니, 떠올랐다’는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③ ‘하나’는 활용하지 않으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을, 가’는 활용하지 않으며 앞말에 붙어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조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2 4

◎ 이어서 정답

- ④ ㉠에서 ‘돈이 있다’, ‘돈이 없다’의 경우 ‘있다’, ‘없다’가 존재나 소유와 같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형용사로 볼 수 있다. 다만 ‘있는’, ‘없는’도 자연스러운 것은 [A]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있다’, ‘없다’의 경우 형용사에도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왜 오답

- ① ㉢에서 동사 ‘먹다’의 경우 어간 ‘먹-’에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한 ‘먹는다’가 자연스러우나, 형용사 ‘예쁘다’의 경우 어간 ‘예쁘-’에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한 ‘예쁘다’가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A]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과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동사 ‘먹다’의 경우 명령형 어미 ‘-어라’나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한 ‘먹어라’, ‘먹자’가 자연스러우나, 형용사 ‘예쁘다’의 경우 명령형·청유형 어미가 결합한 ‘예뻐라’, ‘예쁘자’가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A]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명령형·청유형 종결 어미와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동사 ‘먹다’의 경우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려고’, ‘-(으)러’와 결합한 ‘먹으려고’, ‘먹으러’가 자연스러우나, 형용사 ‘예쁘다’의 경우 그러한 연결 어미와 결합한 ‘예쁘려고’, ‘예뻐러’가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A]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와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⑤ ㉔에서 '크다', '길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큰다', '긴다'처럼 선어말 어미 '-ㄴ-'과 결합이 가능한 동사가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크다', '길다'가 [A]에서 말한 '밝다'의 경우처럼 형용사, 동사로 모두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동사와 형용사



3 답 ⑤

답어

이래서 정답

- ⑤ 3문단에서 '가신다'의 선어말 어미는 '-시-', '-ㄴ-'이고, '가셨던'의 선어말 어미는 '-시-', '-었-'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5문단에서도 한 용언에서 서로 다른 선어말 어미가 동시에 쓰이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왜 오답

- ①, ② 2문단에서 어간이나 어미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고,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여 용언을 이룬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④ 5문단을 통해 어말 어미는 용언의 활용에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답 ④

답어

이래서 정답

- ④ ㉔의 '뜨는'은 동사 '뜨다'의 어간 '뜨-'에 전성 어미 '-는'이 결합한 형태이다. 그러나 '뜨는'이 뒤에 오는 체언 '해'를 수식하는 관형사처럼 쓰이고 있지, 부사처럼 쓰이고 있지 않다.

왜 오답

- ① ㉔의 '아니'는 동사 '알다'의 어간 '알-'에 의문형 종결 어미 '-니'가 결합하며 어간의 'ㄹ'이 탈락한 것이다.
 ② ㉔의 '맛있구나'는 형용사 '맛있다'의 어간 '맛있-'에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가 결합한 것이다.
 ③ ㉔의 '높고'는 형용사 '높다'의 어간 '높-'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앞뒤의 말을 연결하고 있다.
 ⑤ ㉔의 '먹었다'는 동사 '먹다'의 어간 '먹-'과 어말 어미 '-다' 사이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인 '-었-'이 결합한 단어이다.

9 품사 수식언, 독립언

확인 1 답 (1) 체언 (2) 용언

이래서 정답

- (1)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이다.
 (2)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관형사나 다른 부사, 일부 체언, 또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한다.

확인 2 답 (1) 부 (2) 부 (3) 관

이래서 정답

- (1) '참'은 용언을 수식하는 말로, '참 경치가 좋다.'와 같이 문장 안에서 자리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부사이다.
 (2) '너무'는 용언을 수식하는 말로, '너무도 어려웠다.'와 같이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부사이다.
 (3) '첫'은 체언을 수식하는 말로, 체언 앞에 놓이며 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관형사이다.

확인 3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보기>의 '새', '외판'은 관형사로 '옛', '온갖'과 품사가 같다. 반면 '매우'는 '매웠다'를 수식하는 부사로, 이들과 품사가 다르다.

확인 4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감탄사로, '아차'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는 감탄사이다. 한편, ①의 '현'은 관형사, ②의 '바람'은 명사이다.

확인 5 답 (1) ○ (2) × (3) ○ (4) ×

이래서 정답

- (1) ㉔의 '네'는 묻는 말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로, 다른 말과 연결되지 않고 단독으로 문장을 이루고 있다.
 (2) ㉔의 '지수야'는 상대방을 부르는 말로 명사 '지수'와 조사 '야'가 결합되어 있는데, 감탄사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므로, '지수야'는 감탄사로 볼 수 없다.
 (3) ㉔의 '후휴'는 일이 고되어서 힘에 부치거나 시름이 있을 때 크고 길게 내쉬는 소리로, 감정을 드러내는 감탄사로서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4) ㉔의 '음', '뭘'과 같은 감탄사는 '그렇게 되면 음, 곤란한데.'나 '뭘, 어쩔 수 없지.'처럼 문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놓일 수 있다.

1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보기>의 '새 구두'에서 '새'는 '구두'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관형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이/가, 을/를' 등의 조사가 뒤에 붙을 수 없고, 품사 중에서 명사를 꾸미는 것이 특징이다.

2 답 ④

◎보기 | 오려 보기

부사는 수식하는 범위에 따라 문장의 한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로 나뉜다. 이 중 성분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때로는 체언을 수식하거나 관형사,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

◎이래서 정답

- ④ '아주'는 뒤에 이어지는 관형사 '새'를 수식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매우'는 뒤에 이어지는 부사 '빨리'를 수식하고 있다.
- ② '설마'는 뒤의 문장 '나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이다.
- ③ '바로'는 뒤에 오는 체언(명사) '옆'을 수식하고 있다.
- ⑤ '과연'은 뒤의 문장 '그 아이는 재능이 정말 뛰어나군.'을 수식하고 있는 문장 부사이다. 그러나 '정말'은 뒤에 이어지는 용언(형용사) '뛰어나군'을 수식하고 있다.

3 답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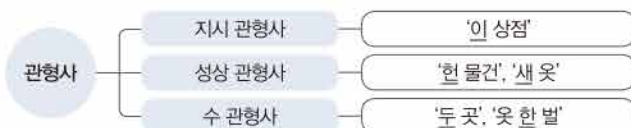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⑤ ㄷ의 '새'는 '옷'을 수식하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 성상 관형사이나, ㄴ의 '새로'는 용언 '산'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왜 오답

- ① ㄱ의 '이'는 지시 관형사로 뒤에 오는 '상점'을 꾸며 준다.
- ② ㄱ의 '현'은 뒤에 오는 체언인 '물건'의 상태를 드러내는 성상 관형사이다.
- ③ <보기>에 따르면 관형사는 어떤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으므로, ㄴ의 '다섯'은 관형사가 아니라 수사이다.
- ④ ㄱ의 '두'와 ㄷ의 '한'은 수 관형사로 뒤에 오는 의존 명사 '곳'과 '벌'을 수식한다.

문해 공식 적용 관형사



4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두'는 뒤에 오는 명사 '팔'을 수식하는 수 관형사이지만, '하나'는 조사와 결합한 수사로서 수식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왜 오답

- ① '는'은 '우리' 뒤에 붙는 조사, '참'은 '예쁘구나'를 꾸며 주는 부사로, 둘 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② '이루었다'는 동사, '예쁘구나'는 형용사이다. 둘 다 활용을 하므로 형태가 변한다.
- ④ '연필'과 '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⑤ '아'는 놀람, 느낌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5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이(㉠)'는 뒤에 오는 명사 '사과'를, '그(㉡)'는 뒤에 오는 명사 '책'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므로 ㉠, ㉡는 ㉠에 해당한다. '여기(㉢)'는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에 해당한다. '이리(㉣)'와 '그리(㉤)'는 뒤에 오는 용언 '오게'와 '보내겠습니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므로 ㉣, ㉤는 ㉢에 해당한다.

6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다섯(㉠)'과 '팔(㉡)'은 각각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판'과 '년'을 꾸미므로 수 관형사이다.

◎왜 오답

- ②, ③, ④, ⑤ '하나(㉢)'는 의존 명사와 함께 쓰이지 않았고 '하나를'과 같이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수사이다. '셋째(㉣)'는 의존 명사와 함께 쓰이지 않았고 조사가 붙어 있으므로 수사이다.

7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부디(㉠)'는 남에게 청하거나 부탁할 때 바라는 마음이 간절함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의 자리를 이동하여 '민우가 부디 편안하게 지냈으면'으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은 문장에서 놓이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왜 오답

- ① '저우(㉡)'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 '열'을 수식하고 있다.
- ② '바로(㉢)'는 체언인 '옆'을 수식하며 의미를 제한하고 있다.
- ③ '설마(㉣)'는 뒤에 오는 문장인 '민우가 이곳에 오지는 않았겠지.'를 수식하고 있다.

- ④ ‘못(㉔)’은 부정 부사로 용언 ‘만났지만’의 앞에서 그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

8 답 ④

답어

① 이어서 정답

- ④ ‘같이’가 ‘서로 함께’라는 의미로 사용된 부사이므로, ㄱ이 아닌 ㄴ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② 왜 오답

- ① 조사 ‘같이’가 체언 ‘눈’ 뒤에 붙어 ‘눈처럼’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ㄱ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② 조사 ‘같이’가 명사 ‘새벽’ 뒤에 붙어 새벽의 때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ㄴ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③ ‘서로 함께’라는 의미로 부사 ‘같이’가 쓰였으므로 ㄴ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⑤ ‘소같이’는 조사 ‘같이’가 체언 ‘소’ 뒤에 붙어 ‘소처럼’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ㄱ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물과 같이 흘렀다.’의 ‘같이’는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닮이 없음’의 의미로 쓰인 부사이므로 ㄴ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 어휘

- **성상**: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제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또는 그렇게 정한 한계.

1 답 ④

답어

① 이어서 정답

- ④ ㉔의 조사는 ‘께서’, ‘로’, ‘를’로 총 3개이지만, ㉔의 조사는 ‘까지’, ‘는’, ‘을’, ‘도’로 총 4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왜 오답

- ① ㉔에서 ‘아무’는 대명사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이다.
 ② ㉔에서 ‘온갖’은 ‘재료’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수식언이다.
 ③ ㉔에서 ‘네’는 들어가도 되냐는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말하는 이의 응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⑤ ㉔의 가변어는 ‘모르고’, ‘있다’로 총 2개이며, ㉔의 가변어는 ‘곱게’, ‘빚으셨다’로 총 2개이므로, ㉔과 ㉔의 가변어는 각각 2개씩이다.

2 답 ③

답어

① 이어서 정답

- ③ 첫 번째 문장의 ‘모두’는 조사 ‘가’가 붙는 명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모두’는 용언 ‘쏟았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따라서 ㉔의 예에 해당한다.

② 왜 오답

- ① 첫 번째 문장의 ‘일곱’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로 서술격 조사 ‘이다’와 함께 쓰인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의 ‘일곱’은 의존 명사 ‘개’와 함께 쓰여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이다.
 ② 첫 번째 문장의 ‘커서’는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뜻의 동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커서’는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④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대로’는 모두 명사와 붙어 쓰이는 조사이다.
 ⑤ 첫 번째 문장의 ‘같이’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라는 뜻의 부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3 답 ①

답어

① 이어서 정답

- ① 2문단에서 감탄사가 행동 유발적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② 왜 오답

- ② 2문단에서 감탄사는 외부 세계를 기술하는 기술적 정보를 나타내기보다는 표출적 기능, 행동 유발적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감탄사는 기본적으로 활용이나 파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④ 1문단에서 감탄사는 다른 단어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 ⑤ 3문단에서 감탄사에는 하나의 단어만으로 의사 전달을 할 때 관례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다고 하였다.

4 답 ①

| 보기 | 오려 보기

‘아이고’는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며,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사용된다. ...

이래서 정답

- ① <보기>의 ‘아이고’는 감탄사가 긍정적으로 사용된 예이다. 오랜만에 방문한 손자를 보고 말한 ‘아유’도 반가움을 표현하는 감탄사이므로, 두 감탄사의 쓰임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② ‘애고’가 아프거나 힘들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아이코’가 놀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하이고’가 원통하거나 기막힘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어이구’가 기막힘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5 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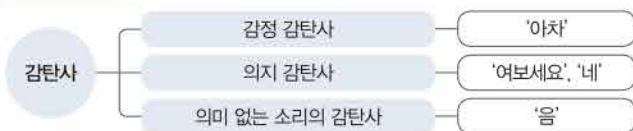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② ‘여보세요(㉠)’는 전화할 때의 상대방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지만, ‘음(㉢)’은 의미 없는 소리의 감탄사로 부름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왜 오답

- ① ㉠~㉣는 감탄사로 기능 면에서 다른 품사처럼 수식하는 문법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
- ③ ㉠과 ㉢는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다.
- ④ ㉢는 상대의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상대의 발화에 대한 인지를 전제로 한다.
- ⑤ ㉣는 화자의 인지 작용을 표출하는 표출적 기능을 한다.

문제 공식 적용 감탄사



어휘

- 외형적 ① 사물의 겉모양과 관련된 ② 겉으로 드러난.
- 기막힘 어떠한 일이 놀람거나 언짢아서 어이없음.

10 단어의 의미 관계

확인 1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의 ‘발’은 ‘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히 늘어뜨려 만든 물건’이라는 뜻으로, ㉠, ㉢의 ‘발’과 말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이다.

왜 오답

- ①, ② ㉠의 ‘발’은 ‘걸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의 ‘발’은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과 ㉢은 다의 관계로, ㉢이 중심 의미, ㉠이 주변 의미를 나타낸다.

확인 2 답 (1) 중 (2) 주 (3) 주

이래서 정답

- (1) ‘길’의 중심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이다. ‘시청 옆에 넓은 길이 생겼다.’에서의 ‘길’ 또한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중심 의미로 쓰인 것이다.
- (2) ‘지혜를 찾는 길’에서의 ‘길’은 ‘방법이나 수단’이라는 뜻이므로, 주변 의미로 쓰인 것이다.
- (3) ‘배움의 길’에서의 ‘길’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해 가는 데에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이나 전문 분야’라는 뜻이므로, 주변 의미로 쓰인 것이다.

확인 3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보기>는 하나의 단어와 유의 관계, 반의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획득하다’는 ‘얻어 내거나 얻어 가지다.’, ‘얻다’는 ‘거저 주는 것을 받아 가지다.’, ‘가지다’는 ‘손이나 몸 따위에 있게 하다.’ 혹은 ‘자기 것으로 하다.’라는 뜻이다. 세 단어는 모두 ‘가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유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보기>의 의미 관계와 다르다.

왜 오답

- ① ‘가깝다’는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다.’ 혹은 ‘서로의 사이가 다정하고 친하다.’라는 뜻이다. ‘친하다’는 ‘가까이 사귀어 정이 두텁다.’라는 뜻이므로, ‘가깝다’와 유의 관계이다. 반면에 ‘멀다’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므로, ‘가깝다’와 반의 관계이다.

- ③ '헤어지다'는 '모여 있던 사람들이 따로따로 흩어지다.' 혹은 '사귀거나 맺은 정을 끊고 갈라서다.'라는 뜻이다. '이별하다'는 '서로 갈리어 떨어지다.'라는 뜻이므로, '헤어지다'와 유의 관계이다. 반면에 '만나다'는 '누군가 가거나 와서 둘이 서로 마주 보다.'라는 뜻이므로, '헤어지다'와 반의 관계이다.

확인 4 답 (1) 상의어 (2) 상하 관계, 운동 - 달리기

이래서 정답

- (1) '직업'은 '가수'를, '한식'은 '불고기'를, '곤충'은 '사마귀'를, '감정'은 '기쁨'을 의미상 포함한다. 이렇게 ㄱ이 의미상 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ㄱ은 상의어, ㄴ은 하의어이다.
- (2) ㄱ이 상의어, ㄴ이 하의어이므로, ㄱ과 ㄴ은 상하 관계이다. '운동'도 '달리기'를 의미상 포함하므로, 상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위'와 '아래'는 의미가 서로 대립하는 반의 관계이다.

+ 어휘

- **비유적**: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
- **지향**: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 **지침**: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준거할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

1 답 ①

| 보기 | 오래 보기

다의어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가리킨다. 다의어는 단어가 원래 뜻하는 중심적 의미와 중심적 의미에서 파생된 주변적 의미를 갖는다. ...

이래서 정답

- ① ㉠의 '열다'는 '닫히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기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열다'는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시작하다.'라는 뜻의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왜 오답

- ② ㉠의 '먹다'는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먹다'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라는 뜻의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의 '잡다'는 '자리, 방향, 날짜 따위를 정하다.'라는 뜻의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잡다'는 '일, 기회 따위를 얻다.'라는 뜻의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두 단어 모두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의 '가다'는 '직책이나 자리를 옮기다.'라는 뜻의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가다'는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라는 뜻의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의 '멀다'는 '시간적으로 사이가 길거나 오래다.'라는 뜻의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멀다'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뜻의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2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아래'가 '조건, 영향 따위가 미치는 범위'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열등함'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왜 오답

- ① '위'가 '한 수'와 연결되어 '신분, 지위, 연령, 등급, 정도 따위에서 어떠한 것보다 더 높거나 나은 쪽'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우월함'의 의미를 갖는다.
- ② '앞'이 '서다'와 결합하여 '발전이나 진급, 중요성 따위의 정도가 남보다 높은 수준에 있거나 빠르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우월함'의 의미를 갖는다.
- ④ '뒤'가 '떨어지다'와 결합하여 '발전 속도가 느려 도달하여야 할 수준이나 기준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열등함'의 의미를 갖는다.
- ⑤ '뒤'가 '걸음질'과 결합하여 '본디보다 뒤지거나 뒤떨어짐.'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열등함'의 의미를 갖는다.

3 답 ③

단어

◎이래서 정답

- ③ '걱정'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을 뜻한다. 두 단어 모두 '속을 태움.'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유의 관계(㉠)'이다. '학생'과 '남학생'은 '학생'이 의미상 '남학생'을 포함하므로 '반의 관계(㉡)'가 아닌 '상하 관계'이다.

❖왜 오답

- ① '옷'과 '의복'은 모두 '몸을 싸서 입는 물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에, '밤'과 '낮'은 의미상 시간적 대립을 이루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② '서점'과 '책방'은 모두 '책을 팔거나 사는 가게'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에, '기쁨'과 '슬픔'은 의미상 감정적 대립을 이루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④ '환하다'는 '빛이 비치어 맑고 밝다.', '밝다'는 '불빛 따위가 환하다.'를 뜻하므로 ㉠에, '오르다'와 '내리다'는 동작의 이동 방향의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므로 ㉡에 해당한다.
- ⑤ '분명하다'와 '명료하다'는 모두 '뚜렷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에, '숨기다'와 '드러내다'는 각각 '보이지 않게 하다.'와 '보이게 하다.'를 뜻하므로 ㉡에 해당한다.

4 답 ③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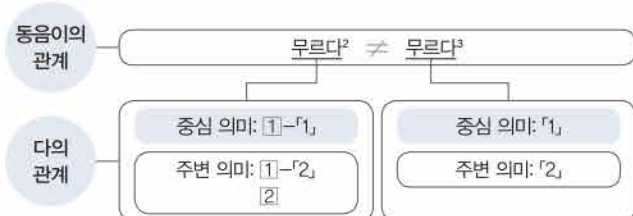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③ '속에 들어 있거나 끼여 있거나, 박혀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를 뜻하는 '빼다'와 무르다²의 ①-「1」은 의미가 비슷하지 않으므로 유의어라고 할 수 없다.

❖왜 오답

- ① '무르다²'와 '무르다³'은 말소리는 '무르다'로 같지만, 서로 뜻이 달라 다른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는 동음이의 관계이다.
- ② '무르다²'는 ①-「1」, ①-「2」, ② 등의 뜻이 있는 다의어이다.
- ④ '여리고 단단하지 않다.'라는 뜻의 '무르다³' 「1」과 '단단하다'는 의미상 서로 대립하므로, '단단하다'는 '무르다³' 「1」의 반의어라고 할 수 있다.
- ⑤ '마음이 물러서'에서 '무르다'는 '마음이 여리거나 힘이 약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무르다³'의 「2」의 용례로 적절하다.

문해 공식 적용 동음이의 관계, 다의 관계



5 답 ①

단어

◎이래서 정답

- ① '쓰다'는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 사람이 죄나 누명 따위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 등을 뜻하므로 모자, 안경, 누명 등과 쓸 수 있다. 한편 '배낭을 벗다.'에서 '벗다'는 '메거나 진 배낭이나 가방 따위를 몸에서 내려놓다.'라는 뜻이므로, '벗다'의 반의어는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라는 뜻의 '메다'가 될 수 있다.

6 답 ②

단어

◎이래서 정답

- ② '사과'는 의미상 '과일'에 포함되는 열매이므로 '과일'은 상의어, '사과'는 하의어이다.

❖왜 오답

- ① '벗'과 '친구'는 모두 '친하게 사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유의 관계이다.
- ③ '있다'는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를, '없다'는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를 뜻하므로 반의 관계이다.
- ④ '선생님'과 '스승'은 모두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유의 관계이다.
- ⑤ '달리다'와 '뛰다'는 모두 '빨리 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유의 관계이다.

7 답 ③

단어

◎이래서 정답

- ③ 유의어는 단어를 서로 바꾸었을 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제시된 문장을 '일을 성사시키려는 심보를 보였다.'로 바꾸면 부자연스럽지만, '일을 성사시키려는 의지를 보였다.'로 바꾸면 자연스러우므로, ㉡은 '심보'가 아닌 '의지'로 바꿀 수 있다.

❖왜 오답

- ① 제시된 문장을 '심성이 곱고 바르다.'로 바꾸었을 때 자연스러우므로 ㉠은 '심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② 제시된 문장을 '아이가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로 바꾸었을 때 자연스러우므로 ㉢은 '관심'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④ 제시된 문장을 '친구의 냉담한 태도에 기분이 상했다.'로 바꾸었을 때 자연스러우므로 ㉤은 '기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제시된 문장을 '나를 만날 의향이 있으면'으로 바꾸었을 때 자연스러우므로 ㉥은 '의향'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 답 ⑤

단어

㉠이래서 정답

- ⑤ 3문단에서 주변 의미는 기존의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사람의 감각 기관을 뜻하는 '눈'은 중심 의미로 기존의 의미이고, '눈이 나빠져서 안경의 도수를 올렸다.'에서의 '눈'은 '시력'을 의미하며 기존의 의미에서 확장된 '눈'의 주변 의미이다. '눈'의 주변 의미가 '눈'의 기존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되었으므로 확장된 의미가 더 구체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1문단에서 중심 의미는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다고 하였으므로 '별'의 중심 의미 '천체의 일부'를 '별'의 주변 의미 '군인의 계급장'보다 먼저 배울 것이다.
- ② 1문단에서 중심 의미가 주변 의미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앉다'의 중심 의미 '착석하다.'가 '앉다'의 주변 의미 '직위나 자리를 차지하다.'보다 쓰이는 빈도가 더 높을 것이다.
- ③ 4문단에서 다의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결론에 이르다.'의 '이르다'는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라는 뜻이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의 '이르다'는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라는 뜻이다. 두 '이르다'는 의미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관계로 볼 수 없다.
- ④ 2문단에서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침이 생기다.'를 뜻하는 '돌다'는 '군침을 돌리다.'라고 쓸 수 없으므로 주변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다의어의 특징

	중심 의미	주변 의미
개념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 의미는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며 사용 빈도가 높음. 주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남. 기존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주변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됨. 다의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가짐. 	

2 답 ②

단어

㉠이래서 정답

- ② 민수가 말한 '빚쟁이'는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뜻하고, 영희가 말한 '빚쟁이'는 '빚을 진 사람'을 뜻하므로 두 의미가 대립적 관계를 이룬다. 또한 영희가 말한 '금방'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를 뜻하고 민수가 말한 '금방'은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에'를 뜻하므로 두 의미가 대립적 관계를 이룬다.

㉡왜 오답

- ①, ③, ④, ⑤ 민수와 영희가 말한 '뒤'는 모두 '시간이나 순서상으로 다음이나 나중'을 의미하고, '돈'은 모두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화폐'를 의미하므로 의미가 동일하다.

3 답 ④

단어

㉠이래서 정답

- ④ 3문단에서 등급 반의어에서는 한쪽 단어의 긍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하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깝다/멀다'는 등급 반의어로, '가깝다'를 부정한 '가깝지 않다'가 '가깝지도 멀지도 않다.'를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가깝다'의 부정이 '멀다'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2문단에서 등급 반의어에 비교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좋다/나쁘다'는 등급 반의어로, '올해는 사과의 품질이 작년보다 더 좋다.'처럼 '좋다'에 비교 표현을 쓸 수 있다.
- ② 2문단에서 등급 반의어의 정도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무겁다/가볍다'는 등급 반의어로, '무겁다'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게는 다를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 등급 반의어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멀다/가깝다'는 등급 반의어로, '멀다'는 '기차역은 여기에서 아주 멀다.'처럼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 ⑤ 4문단에서 등급 반의어는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으며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별도의 말이 존재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등급 반의어인 '뜨겁다/차갑다'는 둘을 모두 부정하는 '미지근하다'라는 단어가 있다.

4 답 ②

단어

㉠이래서 정답

- ② 대상의 크기에 대해 물을 때 '커(㉠)?'가 '작아?'보다 일반적이고, 대상의 길이에 대해 물을 때 '길었어(㉡)?'가 '짧았어?'보다 일반적이다. 따라서 ㉠과 ㉡이 ㉢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①, ③, ④, ⑤ '왔어(㉢)'와 '갔어(㉣)'는 방향적으로 대립을 이루는 방향 반의어이므로 등급 반의어와 관련이 없다.

확인 1 답 ㉠, ㉡, ㉢

이래서 정답

‘학교에서(㉠)’는 단체 무정 명사인 ‘학교’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은 주어이다. ‘선수가(㉡)’와 ‘별명이(㉢)’는 체언 ‘선수’와 ‘별명’에 각각 주격 조사 ‘가’와 ‘이’가 붙은 주어이다.

확인 2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ㄱ의 ‘문법책이다’는 주어(‘이것은’)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ㄴ의 ‘먹었니’와 ㄷ의 ‘마셨다’는 각각 주어(‘누가’, ‘온유는’)와 목적어(‘이거’, ‘주스를’)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ㄴ의 “승현이가.”는 문맥상 목적어와 서술어가 분명하거나, 목적어와 서술어가 반복되어서 생략된 것이므로 완결된 내용을 갖춘 문장이다.
- ㄷ의 비문법적 표현 ‘*빵을 마셨다.’로 보아 ‘마셨다’가 액체나 기체를 나타내는 명사만 목적으로 요구함을 알 수 있다.

확인 3 답 (1) 목 (2) 보

이래서 정답

- ‘감자를’은 체언 ‘감자’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은 형태로, 타동사 ‘캐었다’의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이다.
- ‘녹초가’는 체언 ‘녹초’에 보격 조사 ‘가’가 붙은 형태로, 서술어 ‘되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보어이다.

확인 4 답 (1) 보조사 (2) 뒤, 앞 (3) 체언

이래서 정답

- ㄱ의 목적어는 ‘그만을’로 체언 ‘그’에 보조사 ‘만’과 목적격 조사 ‘을’이 함께 붙어 형성된 것이다.
- ㄴ에서 뒤 목적어(‘10개를’)는 앞 목적어(‘사과를’)의 수량을 나타낸다.
- ㄷ의 목적어 ‘꽃’과 보어 ‘일’은 모두 조사 없이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고 있다.

확인 5 답 ㉠

이래서 정답

문장의 주성분 중 ‘무엇이’의 형태로써 ‘되다’, ‘아니다’ 앞에 서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것은 보어 ‘중학생이(㉠)’이다.

1 답 ④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④ ‘학생이’는 주어, ‘밥을’은 목적어, ‘먹는다’는 서술어로,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① 용언 ‘출다’를 꾸며 주는 ‘무척(부사어)’은 부속 성분이다.
- ② 체언 ‘새’를 꾸며 주는 ‘작은(관형어)’과 용언 ‘난다’를 꾸며 주는 ‘높이(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다.
- ③ 용언 ‘핀다’를 꾸며 주는 ‘빨리(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다.
- ⑤ 용언 ‘간다’를 꾸며 주는 ‘천천히, 집에(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다.

2 답 ⑤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⑤ ㄱ의 ‘먹었다’는 주어 ‘희선이는’과 목적어 ‘빵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ㄴ의 ‘피었다’는 주어 ‘장미꽃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왜 오답

- ① ㄱ의 ‘희선이는’은 ‘먹었다’의 주어이므로 생략했을 때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ㄴ의 ‘빨간’은 체언 ‘장미꽃’을 꾸며 주는 말(관형어)이므로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그러나 ㄴ의 ‘장미꽃이’는 ‘피었다’의 주어이므로 생략했을 때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ㄱ의 ‘먹었다’는 목적어 ‘빵을’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다. 그러나 ㄴ의 ‘피었다’는 주어 ‘장미꽃이’만 필요로 할 뿐,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④ ㄱ의 ‘맛있는’은 체언 ‘빵’을 꾸며 주는 말(관형어)이고, ㄴ의 ‘활짝’은 용언 ‘피었다’를 꾸며 주는 말(부사어)로,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

3 답 ④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④ ㉠의 주어 ‘신임 장관은’은 ‘신임’과 ‘장관’이 결합된 명사구에 보조사 ‘은’이 붙은 형태이다. ㉡의 주어 ‘새 컴퓨터’는 ‘새’와 ‘컴퓨터’가 결합된 명사구에 주격 조사 ‘가’가 붙은 형태이다.

왜 오답

- ① ㉠의 주어 ‘나도’는 체언(대명사) ‘나’에 보조사 ‘도’가 붙은 것이고, ㉡의 주어 ‘바깥이’는 체언(명사) ‘바깥’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것이다.

② ㉠의 주어 '나도'와 ㉡의 주어 '신임 장관은'에 쓰인 조사는 보조사 '도'와 '은'이다. 따라서 격 조사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③ ㉢의 주어 '바깥'은 ㉣의 주어 '신임 장관은'과 다르게 서술어 동작의 주체가 아닌, 상태의 주체를 지시한다.

⑤ ㉤의 주어는 '새 컴퓨터가'이고, '고물'은 서술어 '되었다'가 필요로 하는 보어로, ㉤은 주어가 두 번 쓰이지 않았다.

4 답 ②

문장과 달화

이래서 정답

② ㉢의 '되었다'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 '올해'는 '되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문장 구성에 꼭 필요한 주성분이 아니다.

왜 오답

- ㉠의 '찍었다'는 주어 자리에 있는 '동생'의 동작을 풀이하므로 서술어이다.
- ㉢에는 서술어 '찍었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사진을'이 있다. 그러나 ㉢에는 서술어 '되었다'가 필요로 하는 보어 '대학생'만 있을 뿐, 목적어는 없다.
- ㉠에서 '찍었다'의 주체는 '동생'이고, ㉢에서 '되었다'의 주체는 '언니'이므로, ㉠과 ㉢의 주어는 '동생'과 '언니'로 각각 하나씩 있다. ㉢에서 '대학생'은 보어이다.
- ㉠에 쓰인 주성분은 주어('동생'), 목적어('사진을'), 서술어('찍었다')로 세 가지이다. ㉢에 쓰인 주성분은 주어('언니'), 보어('대학생'), 서술어('되었다')로 세 가지이다.

문해 공식 적용 주성분



5 답 ①

문장과 달화

이래서 정답

① '산책'은 체언 '산책'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은 말로, 체언 + 목적격 조사 '을/를'의 형태에 해당한다.

왜 오답

- '이사도'는 체언 '이사'에 '역시'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 '도'가 붙은 말로, ㉠의 예에 해당한다.
- ③, ④ '꽃구경'과 '배낭여행'은 조사 없이 체언을 단독으로 쓴 경우로, ㉢의 예에 해당한다.
- '한길만'은 '하나의 길'을 뜻하는 체언 '한길'에 '단독'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 '만'과 목적격 조사 '을'이 붙은 말로, ㉤의 예에 해당한다.

6 답 ④

문장과 달화

이래서 정답

④ '들다' ㉠ '3'은 예문의 '가을이 들면서'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를 필요로 한다. 반면 '들다' ㉡ '1'은 문형 정보 【...을 ...에】와 예문 "그녀는 차표를 손에 들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문장 구조상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들다' ㉡ '1'뿐이다.

왜 오답

- '들다' ㉠과 '들다' ㉡의 의미가 여러 개인 것을 통해 '들다' ㉠과 '들다' ㉡가 각각 다의어임을 알 수 있다.
- '그가 방으로 들자'는 그가 밖에서 방 안으로 향해 갔다는 의미이므로, '들다' ㉠ '1'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 '들다' ㉡ '2'는 주어 외에 부사어(【...에】)를 필요로 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들다' ㉡ '1'은 주어 외에 목적어와 부사어(【...을 ...에】)를 필요로 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 '들다' ㉡ '2'의 예문 "강아지가 앞발을 들었다."에서 서술어가 목적어 '앞발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아 ㉡에는 '...을'이 들어간다.

7 답 ③

문장과 달화

보기 | 오래 보기

선생님: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의어의 경우 의미에 따라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래서 정답

③ ㉠의 서술어는 주어('친구가')와 부사어('서울로')를, ㉡의 서술어는 부사어('바지에')와 주어('구김')를, ㉢의 서술어는 주어('학생')과 목적어('진로')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왜 오답

①, ②, ④, ⑤ ㉣의 서술어는 주어('패종시계가')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고, ㉤의 서술어는 주어('우리가')와 목적어('투표'), 부사어('의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어휘

- 명사구: 명사의 구실을 하는 구. '저 성실한 학생이 철수이다.'에서 '저 성실한 학생' 따위이다.
- 문형: 언어 요소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배치되고 결합되는지를 형식화하고 규칙화하여 분류한 글의 유형.
- 패종시계: 시간마다 종이 울리는 시계. 보통 추가 있으며 벽에 걸어 둔다.

1 답 ⑤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⑤ '주셨다'는 주어('부모님께서')와 필수적 부사어('나에게'), 목적어('선물들')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왜 오답

- ① '되었다'는 주어('계절이')와 보어('봄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생겼다'는 주어('아이는')와 필수적 부사어('영리하게')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만들었다'는 주어('승운이는')와 목적어('식탁을')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통나무로'는 문장에서 생략되어도 문장이 성립하므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이 아니다.
 ④ '적합하다'는 주어('기후는')와 필수적 부사어('벼농사에')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문예 공식 적용 두 자리 서술어

	주어		필수적 부사어	
그	아이는	매우	영리하게	생겼다.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두 자리 서술어

2 답 ③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③ '듣는다(㉡)'는 주어('그들은') 외에 목적어('농담을')와 부사어('진담으로')를 더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왜 오답

- ① '듣는다(㉡)'는 주어('나는')와 목적어('새소리를')만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숲에서'와 같은 부사어는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듣는다(㉡)'는 주어('아이는')와 목적어('칭찬을') 외에도 부사어('누나에게')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④ '듣는다(㉡)'가 주어('빗방울이')와 부사어('지붕에')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인 반면, ③은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다.
 ⑤ ①은 세 자리 서술어로 '주로 뒷사람에게 꾸지람을 맞거나 칭찬을 듣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④는 두 자리 서술어로 '눈물, 빗물 따위의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서로 의미에 차이도 있고, 서술어 자릿수도 다르므로 적절하지 않다.

3 답 ④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④ 서술어 '돌려주었다'가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에는 주어인 '철수는(㉠)'과 부사어 '민규에게(㉡)', 목적어 '책을(㉢)'이 있다. 한편, 부사어 '어제(㉣)'는 서술어 '돌려주었다'가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

4 답 ⑤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⑤ "그는 십 분 만에 선물 상자의 매듭을 풀었다."에 쓰인 '풀다'는 ㉠-㉠의 의미이므로, 문형 정보는 사전에 '【...을】'로 표시된다.

왜 오답

- ① ㉡-㉠의 의미로 쓰이는 '풀다'의 문형 정보가 '【...에 ...을】'인 것으로 보아, '풀다'가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함을 알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서술어는 주어를 항상 요구하므로 문형 정보에는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형 정보에 주어 표시는 없지만 '풀다'는 주어를 요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의 의미로 쓰이는 '풀다'의 문형 정보(【...을】)와 ㉡-㉠의 의미로 쓰이는 '풀다'의 문형 정보(【...에 ...을】)로 보아, 모두 목적어를 요구함을 알 수 있다.
 ④ '풀다' ㉠의 문형 정보가 '【...을】'인 것으로 보아, ㉠-㉠의 의미로 쓰일 때와 ㉡-㉤의 의미로 쓰일 때 모두 목적어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둘의 필수적 문장 성분의 개수는 같다.

5 답 ①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① "그래서 나는 물에 세제와 신발을 풀었다."에서 서술어 '풀었다'와 목적어 '세제와 신발을'은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 여기에 쓰인 '풀다'는 ㉡-㉠의 의미로, ㉠에는 목적어가, ㉡에는 '액체나 가루 따위에 해당하는 말'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래서 나는 물에 세제를 풀고 신발을 닦았다.'와 같이 수정하면 서술어와 목적어의 호응이 이루어진다.

왜 오답

- ② '복잡한 문제 따위에 해당하는 말'을 목적어로 필요로 하는 것은 '풀다'가 ㉠-㉤의 의미로 쓰일 때이다.
 ③ 부사어 '물에'는 ㉡-㉠의 의미로 쓰인 서술어 '풀었다'와 적절하게 호응하므로, ㉠에는 부사어가 들어갈 수 없다.

- ④, ⑤ 주어 '나는'은 서술어 '풀었다'와 적절하게 호응하므로,
①에는 주어가 들어갈 수 없으며, 주어로 '복잡한 문제'에
위에 해당하는 말'이 와야 호응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6 답 ①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① <보기>의 '유리하다'는 '이익이 있다.'라는 의미로, 주어와
부사어[...에/에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
어이다. ①의 '속하다'는 '관계되어 딸리다.'라는 의미로,
주어와 부사어[...에]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
술어이다. 따라서 '속하다'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유리하다'와 같다.

왜 오답

- ② '여미다'는 '벌어진 옷깃이나 장막 따위를 바로 합쳐 단정
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짓다'는 '재료를 들어 밥, 옷, 집 따위를 만들다.'라는 의
미로,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걷다'는 '다리를 움직여 바닥에서 발을 번갈아 떼어 옮기
다.'라는 의미로,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⑤ '보내다'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
다.'라는 의미로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에/에게] 혹은
[...(으)로]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어휘

- 진담: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짓이 없는 참된 말.
- 꾸지람: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말. <꾸중, 지청구>
- 호응: 앞에 어떤 말이 오면 거기에 응하는 말이 따라옴. 또는 그런 일. '결코'가 오
면 서술어에 부정. '제발'이 오면 서술어에 청원. '아마'가 오면 서술어에 추측의
뜻을 가지는 말이 오는 것 따위이다.

문장과 답화

12

문장 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 확인 1 답 (1) 지시 (2) 의존 명사, 관형어 (3) 문장, 엄마와
(4) 자유로움

이래서 정답

- (1) ㄱ의 '그 두 어린'은 '지시 관형어 + 수 관형어 + 성상 관형
어'의 순서를 지켜 쓴 것이다.
(2) ㄴ에서 '원하는'은 관형어로, '바'와 같은 의존 명사 앞에
는 관형어가 반드시 와야 한다.
(3) ㄷ의 '과연'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그러나'는 두 문장을
이어 주므로 모두 문장 부사어에 속한다. 그리고 '엄마와'
는 서술어 '비슷하다', '다르다'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 부사
어에 속한다.
(4) ㄹ에서 부사어 '부디'는 위치를 이동하여도 문장이 성립하므
로, 부사어의 자리 이동은 비교적 자유로움을 알 수 있다.

확인 2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꽤'는 관형어 '많은'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보통보다 조금 더
한 정도로.'라는 의미를 보충한다. 반면, '현'과 '모든'은 관
형사로 체언 '옷'과 '소망'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②, ③).

확인 3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독립어는 감탄사를 단독으로 쓰거나 체언에 호격 조사
'아/야', '이여' 등을 붙여 사용한다.
(2)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들과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3) 독립어는 자리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생략이 가능하다.

확인 4 답 ㄷ

이래서 정답

- ㄷ. '아이고'는 감탄사가 독립어로 쓰인 것이고, '양반아'는
체언(양반)에 호격 조사(아)가 붙은 독립어이다.

왜 오답

- ㄱ, ㄴ. '얼렁뚱땅', '쫓쫓'은 '둘러댈', '차며'를 꾸미는 부사어이다.

확인 5 답 ㉠, ㉡, ㉢, ㉣

이래서 정답

- 체언에 호격 조사가 붙은 '태형아(㉠)', 감탄사인 '그래(㉡)',
'오호(㉢)', '글쎄(㉣)'가 모두 독립어에 해당한다.

1 답 ②

문장과 답화

| 보기 | 오래 보기

...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실현되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되어 '체언+체언'의 구성으로 된 경우이다.

이래서 정답

- ② '가끔'은 부사로, 용언 '들른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왜 오답

- ① '새'는 관형사 그대로 체언 '운동화'를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③ '다니던'은 용언 어간 '다니-'에 관형사형 어미 '-던'이 결합되어 체언 '학교'를 꾸미는 관형어이다.
 ④ '바다'는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채 체언 '풍경'을 꾸미고 있으므로, '체언('바다') + 체언('풍경')의 구성으로 된 관형어이다.
 ⑤ '국민의'는 체언 '국민'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체언 '단결'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2 답 ⑤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⑤ '옛(㉠)'과 '온갖(㉡)'은 관형사로, 각각 체언 '이야기'와 '지역'을 꾸며 주므로, "1. 관형사"에 속하는 관형어이다.

왜 오답

- ①, ②, ③, ④ '초등학교(㉢)'는 체언으로,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상태로 체언 '친구'를 꾸며 주므로 "2. 체언 단독"에 속하는 관형어이다. 그리고 '만남(㉣)'은 용언의 어간 '만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되어 체언 '친구'를 꾸며 주므로, "4. 용언의 어간+관형사형 어미"에 속하는 관형어이다. 마지막으로 '때의(㉤)'는 체언 '때'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체언 '기억'을 꾸며 주므로, "3. 체언+조사"에 속하는 관형어이다.

3 답 ②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② 문장에서 '철수에게'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철수에게'는 '필수 부사어(㉠)'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①, ③, ④, ⑤ 제시된 문장에서 '매우', '마침내', '예쁘게', '오후에'가 빠져도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이루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답 ⑤

문장과 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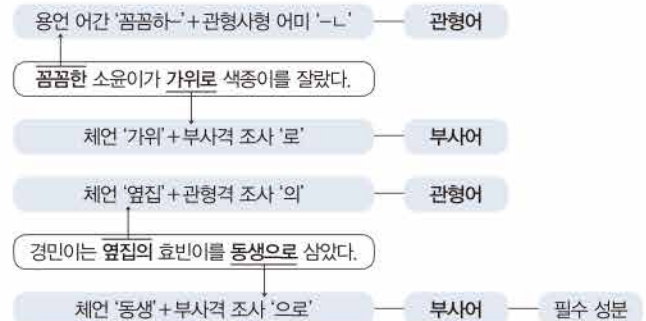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⑤ ㉠의 '가위로'와 달리 ㉡의 '동생으로'는 문장에서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필수 성분으로, 문장 내의 특정 단어인 '삼았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왜 오답

- ① ㉠의 '색종이를'은 문장에서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필수 성분이자, '잘랐다'라는 행위의 대상으로 기능하는 목적어이다.
 ② ㉠의 '꼼꼼한'과 ㉡의 '옆집의'는 생략하여도 문장이 성립하는 필수적이지 않은 성분으로, 각각 체언 '소유이'와 '효빈이'를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 ㉠의 '소유이가'와 ㉡의 '경민이는'은 문장에서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필수 성분으로, 문장 안에서 행위의 주체로 기능하는 주어이다.
 ㉣ ㉠의 '잘랐다'와 ㉡의 '삼았다'는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필수 성분으로, 문장 안에서 주체의 행위를 표현하는 서술어이다.

문제 공식 적용 관형어, 부사어



5 답 ②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② [A]는 문장 성분에 따라 구분해야 하므로, 체언을 한정하는 '새로운(㉠)', '새(㉡)'를 관형어로, 용언을 한정하는 '빠르게(㉢)'와 '빨리(㉣)'는 부사어로 분류할 수 있다. [B]는 품사에 따라 구분해야 하므로, 활용을 하는 ㉠과 ㉡을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하는 ㉢을 관형사로, 동사를 수식하는 ㉣은 부사로 분류할 수 있다.

6 답 ③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③ ㉡의 '시골'은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채 체언 '풍경'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따라서 관형격 조사가 붙지 않은 체언도 관형어가 될 수 있다.

❖ 왜 오답

- ① ㉠에서 관형어 '새'가 없으면 '*이 우산은 것이다.'가 되므로, 올바른 문장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이를 통해 의존 명사 앞에서는 관형어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관형어 '파란'은 옷의 색을 밝힘으로써 체언 '옷'의 의미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 ④ ㉢의 '읽은'과 '읽을'은 각각 체언 '책'과 '계획'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전자에 결합된 관형사형 어미 '-은'은 과거 시제를, 후자에 결합된 관형사형 어미 '-을'은 미래 시제를 표현한다.
- ⑤ 관형어 '새', '파란', '시골', '읽은', '읽을'은 각각 꾸밈을 받는 말 '것', '옷', '풍경', '책', '계획' 앞에 위치하고 있다.

7 답 ②

문장과 담화

❖ 이래서 정답

- ② '이상하게'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로, 문장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

❖ 왜 오답

- ① '정말'은 용언 '예쁘다'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이다.
- ③ '매우'는 부사어 '높이'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이다.
- ④ '아주'는 관형어 '새'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이다.
- ⑤ '다행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이다.

8 답 ①

문장과 담화

❖ 이래서 정답

- ① ㉠에서 부사어 '엄마와'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 이때 '엄마와'는 용언 '달았다'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지 않는다.

❖ 왜 오답

- ② ㉡에서 부사어 '안'의 위치를 바꾸면 비문법적 표현이 되므로, 부정의 의미를 갖는 부사어는 수식하는 문장 성분 앞으로 위치가 고정되어야 한다.
- ③ ㉢에서 부사어 '아이에게'를 생략하면 비문법적인 표현이 되므로, 서술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어는 문장 구성에 꼭 필요한 성분이 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 ④ ㉣의 "겨우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야?"에서 부사어 '겨우'는 체언 '하나'를 수식하지만, "하나를 겨우 만들었다는 거야?"에서 '겨우'는 용언 '만들었다'를 수식한다.
- ⑤ ㉤에서 단어를 이어 주는 부사어인 '및'의 위치를 바꾸면 비문법적 표현이 되므로,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 어휘

- 전자: 두 가지 사물이나 사람을 들어 말할 때, 먼저 든 사물이나 사람.
- 후자: 두 가지 사물이나 사람을 들어 말할 때, 뒤에 든 사물이나 사람.

1 답 ②

문장과 담화

❖ 이래서 정답

- ② <자료>의 1문단과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품사이고, 관형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이다. 이로 보아 '관형사'는 '품사가 무엇인가([A])'를, '관형어'는 '문장 성분이 무엇인가([B])'를 기준으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답 ④

문장과 담화

❖ 이래서 정답

- ④ '남자의(c) 친구'는 '성별이 남자인 (어떤) 사람의 친구'라는 뜻인 반면, '남자 친구'는 '이성 교제의 대상인 친구' 혹은 '성별이 남자인 친구'라는 의미이므로, '의'가 생략되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 왜 오답

- ① a~d 모두 체언 '친구'를 꾸밈으로써 친구가 어떠한 친구인지 그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 ② 체언 '고향(a)'은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채로 체언만으로 '친구'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 ③ '예쁜(b)'은 용언의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관형어로 체언 '친구'를 꾸며 주고 있다.
- ⑤ '옛(d)'은 관형사로 문장에서 관형어가 된 경우이다. <자료>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관형사는 체언과 달리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며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3 답 ②

문장과 담화

❖ 이래서 정답

- ② '친구와(㉠)'는 서술어 '싸웠다며'가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인 반면, '설마(㉡)'는 문장에서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아니다.

❖ 왜 오답

- ① 이 글의 3문단에서 부사격 조사는 같은 형태라고 해도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아침에(㉠)'의 부사격 조사 '에'는 '시간'을, '때문에(㉡)'의 부사격 조사 '에'는 '원인'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결코(㉢)'는 문장 전체인 "그렇지 않아."를 수식하며, 부정 표현과 호응 관계를 이루는 문장 부사어이다.
- ④ '그런데(㉣)'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 주면서 앞 문장의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접속 부사어이다.

- ⑤ '편하게(㉔)'는 용언의 어간 '편하-'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서술어 '대했던'을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문해 공식 적용 성분 부사어, 문장 부사어

성분 부사어	'아침에'	체언 '아침' + 부사격 조사 '에'(시간)
	'친구와'	체언 '친구' + 부사격 조사 '와'
	'때문에'	체언 '때문' + 부사격 조사 '에'(원인)
	'편하게'	용언의 어간 '편하-' + 부사형 어미 '-게'
문장 부사어	'설마'	부정적 추측을 강조할 때 씀.
	'결코'	부정 표현과 호응 관계를 이룸.
	'그런데'	문장과 문장을 이어 줌.(접속 부사)

4 답 ③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③ 부사어 '너무'는 서술어 '샀다'가 아닌, 관형어 '헌'을 수식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부시게'는 용언의 어간 '부시-'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관형어 '푸른'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였다.
 ② '하늘에서'는 체언 '하늘'에 부사격 조사 '에서'가 붙은 부사어이고, '평평'은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된 것으로 모두 서술어 '내리고 있다'를 수식한다.
 ④ '엄마와(㉔)'는 서술어 '닭았다'가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로 필수 성분인 반면, '취미로(㉕)'는 생략되어도 문장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필수 성분이 아니다.
 ⑤ '재로(㉖)'는 체언 '재'에 부사격 조사 '로'가 붙은 부사어이고, '재가(㉗)'는 체언 '재'에 보격 조사 '가'가 붙은 보어로,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㉖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 부사어이고, ㉗은 주성분인 보어이므로 둘 다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어휘

- 문맥: 글월에 표현된 의미의 앞뒤 연결.
- 화제: 이야기할 만한 재료나 소재. = 이야기거리.

문장과 답화

13 문장의 짜임, 이어진문장

확인 1 답 (1) 겹 (2) 겹 (3) 홑 (4) 겹

이래서 정답

- (1) '그 꽃은 아침에 핀다.'와 '그 꽃은 저녁에 진다.'가 이어져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씩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2) '어머니가 아이를 업었다.'와 '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갔다.'가 이어져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씩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3) 주어('별매는')와 서술어('사냥한다')가 한 번씩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4) '가실왕이 가야금을 처음 만들었다.'가 '가야금은 알려져 있다.'에 안겨서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씩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확인 2 답 (1) -아야 (2) 안긴문장 (3) -지만, 이어진문장

이래서 정답

- (1) ㄱ은 연결 어미 '-아야'에 의해 앞 절과 뒤 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어진문장이다.
 (2) ㄴ은 '(우리가) 놀러 가다.'라는 문장을 안긴문장(절)으로 가지고 있는 겹문장이다.
 (3) ㄷ은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앞 절과 뒤 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어진문장이다.

확인 3 답 (1) 목적·의도 (2) 양보 (3) 선택

이래서 정답

- (1) '받으려고'에서 연결 어미 '-려고'를 사용하여 '목적·의도'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2) '청소해도'에서 연결 어미 '-어도'를 사용하여 '양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3) '하든지'와 '보든지'에서 연결 어미 '-든지'를 사용하여 '선택'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확인 4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ㄱ, ㄴ에서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인 ㄴ은 비문이 되지만,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인 ㄱ은 의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2) ㄷ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철수가 오면'을 뒤 절 속으로 이동하여도 의미에 변화가 없으므로, 앞 절이 뒤 절 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
 (3) ㄹ에서 주어 '언니는'은 뒤 절에서 중복되어 생략되었다.

III

문장과 답화

1 답 ③

문장과 담화

① 이어서 정답

- ③ “우리는 어제 학교로 돌아왔다.”는 주어(‘우리는’)와 서술어(‘돌아왔다’)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② 왜 오답

- ① 주어(‘가을이’)와 서술어(‘오면’)를 갖춘 문장과 주어(‘곡식’)와 서술어(‘익는다’)를 갖춘 문장이 이어지므로 ‘겹문장(㉠)’이다.
 ② 주어(‘소리도’)와 서술어(‘없이’)를 갖춘 절이 ‘함박눈이 내린다.’라는 문장 속에서 부사어처럼 기능하므로 ㉠이다.
 ④ 주어(‘우리가’)와 서술어(‘돌아온’)를 갖춘 절이 ‘그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문장 속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므로 ㉠이다.
 ⑤ 주어(‘사람은’)와 서술어(‘만들고’)를 갖춘 문장과 주어(‘책은’)와 서술어(‘만든다’)를 갖춘 문장이 이어지므로 ㉠이다.

2 답 ②

문장과 담화

① 이어서 정답

- ② ‘봄이 오면’과 ‘꽃이 핀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으로, 앞 절과 뒤 절이 나란히 이어지는 이어진문장이다.

② 왜 오답

- ① 주어(‘형은’)와 서술어(‘달린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③ 주어(‘그가’)와 서술어(‘오기’)를 갖춘 절이 목적격 조사(‘를’)와 결합하여 ‘언니는 기다렸다.’라는 문장 속에서 목적어로 기능하므로 안은문장이다.
 ④ 주어(‘천적은’)와 서술어(‘무당벌레이다’)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⑤ 주어(‘머리가’)와 서술어(‘아프다’)를 갖춘 절이 ‘친구는 말했다.’라는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기능하므로 안은문장이다.

문해 공식 적용 문장의 짜임



3 답 ②

문장과 담화

| 보기 | 오려 보기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앞 절과 뒤 절이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를 가짐.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앞 절과 뒤 절이 ‘원인, 조건, 의도’ 등의 의미 관계를 가짐.

① 이어서 정답

- ② ㄱ과 ㄴ은 ‘암벽 등반은 재미있고 힘들다.’, ‘암벽 등반은 재미있지만 힘들다.’와 같이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반면 ㄴ은 앞뒤 절을 바꾸면 ‘암벽 등반은 재미있어서 힘들다.’가 되어 의미가 변한다.

② 왜 오답

- ①, ③ ㄱ~ㄴ은 주어(‘암벽 등반은’)가 같은 두 홑문장이 이어지면서 주어를 하나만 사용한 이어진문장이다.
 ④ ㄱ은 나열의 의미를 갖는 어미 ‘-고’로, ㄴ은 대조의 의미를 갖는 어미 ‘-지만’으로 두 홑문장이 연결되어 대등하게 이어지고 있다.
 ⑤ ㄴ은 원인의 의미를 갖는 어미 ‘-어서’로 연결되어 종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4 답 ③

문장과 담화

① 이어서 정답

- ③ ㄴ의 서술어는 ‘좋아한다’ 하나이다. 반면, ㄴ은 ‘그녀는 시인이다.’와 ‘그녀는 선생님이다.’가 이어진 문장으로, 서술어는 ‘시인이자’와 ‘선생님이다’로 두 개이다.

② 왜 오답

- ① ㄱ은 주어(‘나와 동생은’)와 서술어(‘학생이다’)로, ㄴ은 주어(‘그녀는’)와 서술어(‘시인이자’, ‘선생님이다’)로 구성된 문장으로 문장 성분의 종류가 동일하다.
 ② ㄱ은 ‘나는 학생이다.’, ‘동생은 학생이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ㄴ은 ‘그녀가 사과를 먹는다’, ‘나는 배를 먹는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④ ㄴ에서 주어는 ‘나는’이고 목적어는 ‘여름만’이다. ㄴ에서 주어는 ‘그녀가’, ‘나는’이고 목적어는 ‘사과를’, ‘배를’이다.
 ⑤ ㄴ의 ‘시인이자’의 ‘-자’는 일정한 자격과 함께 다른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ㄴ의 ‘먹고’의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연결 어미이다.

5 답 ④

문장과 담화

① 이어서 정답

- ④ ‘연습하고(㉠)’에는 앞뒤 문장을 ‘나열’의 의미 관계로 이어주는 연결 어미 ‘-고’가 쓰였으므로 ‘대등적 연결 어미(㉠)’

로 분류된다. 그리고 '연습하려고(㉓)'와 '있게(㉔)'에는 각각 앞 문장이 뒤 문장의 '목적'의 의미를 가지도록 이어 주는 연결 어미 '-려고'와 '-게'가 붙어 있으므로, '종속적 연결 어미(㉔)'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출전하게(㉕)'에는 본용언 '출전하다'에 보조 용언 '되다'를 이어 주는 보조적 연결 어미 '-게'가, '고민하고(㉖)'에는 본용언 '고민하다'에 보조 용언 '있다'를 이어 주는 보조적 연결 어미 '-고'가 쓰였으므로, '보조적 연결 어미(㉖)'로 분류된다.

6 답 ①

문장과 답화

㉓ 이래서 정답

- ① '읽으면'에 쓰인 연결 어미 '-으면'은 앞 절이 뒤 절의 '조건(㉗)'임을 나타낸다.

㉔ 왜 오답

- ② '읽으려고'에 쓰인 연결 어미 '-으려고'는 앞 절이 뒤 절의 '목적·의도'임을 나타낸다.
 ③ '읽어도'에 쓰인 연결 어미 '-어도'는 앞 절과 뒤 절이 '양보'의 의미 관계임을 나타낸다.
 ④ '있는데'에 쓰인 연결 어미 '-는데'는 앞 절이 뒤 절의 '배경'임을 나타낸다.
 ⑤ '읽어서'에 쓰인 연결 어미 '-어서'는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임을 나타내어 앞뒤 절이 '인과' 관계임을 보여 준다.

7 답 ④

문장과 답화

㉓ 이래서 정답

- ④ ㄹ의 '*가시켰으려고/*가시겠으려고'에서 알 수 있듯이, '-(으)려고'와 선어말 어미 '-었-', '-겠-'은 결합할 수 없다. 그러나 '가시려고'에서 알 수 있듯이 '-(으)려고'와 선어말 어미 '-시-'는 결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㉔ 왜 오답

- ① ㄱ을 통해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으)려고'로 연결된 문장에서는 앞 절의 주어('영희가')와 뒤 절의 주어('철호가')가 다르므로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② ㄴ을 통해 '-(으)려고'가 포함된 절인 '도서관에 가려고'는 문장의 중간, 맨 앞, 맨 끝 등으로 위치를 이동하여도 의미가 변하지 않아 위치 이동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③ ㄷ을 통해 '-(으)려고'가 연결된 절 뒤에 명령형('가라')이나 청유형('가자')이 이어지면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⑤ ㄹ에서 동사 어간 '운동하-'에 연결 어미 '-려고'가 결합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반면, 형용사 어간 '건강하-'에 연결 어미 '-려고'가 결합하면 비문이 되는 것으로 보아, '-(으)려고'가 형용사 어간과 결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 답 ⑤

문장과 답화

㉓ 이래서 정답

- ⑤ '여겼다'는 주어('그는'), 목적어('직업을'), 부사어('천직으로')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자신의'는 관형어로 필수 성분이 아니다.

㉔ 왜 오답

- ① '되었다'는 주어('계절이'), 보어('가을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어느덧'은 부사어로 필수 성분이 아니다.
 ② '닭았다'는 주어('오빠는'), 부사어('아빠와')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정말'과 '많이'는 부사어로 필수 성분이 아니다.
 ③ '피었다'는 주어('장미꽃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우리 집'은 관형구이고, '뜰에도'는 부사어로 필수 성분이 아니다.
 ④ '고치셨다'는 주어('아버지께서'), 목적어('집을')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현'은 관형어이고, '정성껏'은 부사어로 필수 성분이 아니다.

2 답 ⑤

문장과 답화

㉓ 이래서 정답

- ⑤ ㄹ은 주어('몸빛은')와 서술어('검은색이다')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넓적사슴벌레의'는 체언 '몸빛'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㉔ 왜 오답

- ① 주어('배가')와 서술어('떠났다')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② ㄴ은 '하늘이 높다.'에 '나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하늘이 푸르다.'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③ ㄷ의 '내려서'의 연결 어미 '-어서'는 땅이 젖게 된 원인이 '비가 내려서'임을 나타낸다.
 ④ ㄹ은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임을 나타내고, ㄹ은 연결 어미 '-러'를 사용하여 앞 절이 뒤 절의 목적임을 나타내므로 둘 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한다.

3 답 ④

문장과 답화

㉓ 이래서 정답

- ④ '창밖에는 비가 내렸다.'와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다.'가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㉗의 예로 적절하다.

㉔ 왜 오답

- ① '(계절이) 초여름이 되다.'와 '해당화가 꽃을 피운다.'가 이

어진 문장으로,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조건'의 종속적 의미 관계를 나타내므로, 문장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 ② '그 일이 끝나기'는 '주어-서술어'의 관계를 갖춘 명사절로 안은문장 속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 ③ 주어('그녀는')와 서술어('떠났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 ⑤ '형은 개를 좋아한다.'와 '형은 유기견 보호 봉사를 한다.'가 이어진 문장으로,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원인'의 종속적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문장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4 답 ⑤

문장과 담화

| 보기 | 오려 보기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라는 문장은 ... 두 홑문장이 결합된 이어진문장이다. 이때의 '와/과'는 접속 조사로, '자유'와 '평화'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준다. ...

① 이래서 정답

- ⑤ '그 사람과'에 쓰인 '과'는 주체인 '나'가 사귀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두 홑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조사가 아니므로 이어진문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왜 오답

- ① '나는 시를 좋아한다.'와 '나는 소설을 좋아한다.'가 이어진 문장이다.
- ② '그녀는 집에서 공부했다.'와 '그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가 이어진 문장이다.
- ③ '고향의 산은 예전 그대로였다.'와 '고향의 하늘은 예전 그대로였다.'가 이어진 문장이다.
- ④ '성난 군중이 앞문으로 들이닥쳤다.'와 '성난 군중이 뒷문으로 들이닥쳤다.'가 이어진 문장이다.

5 답 ⑤

문장과 담화

① 이래서 정답

- ⑤ 연결 어미 '-어서'가 쓰인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임을 나타낸다.

② 왜 오답

- ① 연결 어미 '-면'이 쓰인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앞 절이 뒤 절의 '조건'임을 나타낸다.
- ② 연결 어미 '-고'가 쓰인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앞 절과 뒤 절이 '나열'의 의미 관계임을 나타낸다.
- ③ 연결 어미 '-러'가 쓰인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앞 절이 뒤 절의 '목적'임을 나타낸다.

- ④ 연결 어미 '-지만'이 쓰인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앞 절과 뒤 절이 '대조'의 의미 관계임을 나타낸다.

문과 공식 적용 이어진문장



6 답 ⑤

문장과 담화

① 이래서 정답

- ⑤ 제시된 문장에서 '-며'를 '-면서'로 바꾸면, '*출근할 때, 일부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일부는 지하철을 이용한다.'가 되어 비문이 되므로, 앞뒤 문장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부는 버스를 이용한다.'와 '일부는 지하철을 이용한다.'의 '일부'가 동일한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으므로, 앞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왜 오답

- ①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우리는'으로 같고, '우리는 함께 걸으면서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④에 해당한다.
- ② 앞 문장과 뒤 문장에 같은 주어 '(우리) 모두들'이 생략되어 있고, '(우리) 모두들 음정에 주의하면서 노래를 제대로 부르자.'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④에 해당한다.
- ③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아는 사람 하나가'로 같고, '아는 사람 하나가 미소를 지으면서 내게 다가왔다.'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④에 해당한다.
- ④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마라톤 선수'로 같고, '마라톤 선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결승선을 통과했다.'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④에 해당한다.

+ 어휘

- 천작: 타고난 직업이나 직분.
- 관형구: 관형어의 구실을 하는 어구. '맑고 고운 마음'의 '맑고 고운' 따위이다.
- 성난: 몹시 노엽거나 언짢은 기분이 인.
- 비문: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확인 1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그녀는 기분이 언짢았다.”에서 ‘기분이 언짢았다.’는 서술어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다. 반면 ②, ③의 안긴문장인 ‘학생들이 운동하기’와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음’은 모두 명사절이다.

확인 2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뒀다리가 길다’는 별도의 어미나 조사가 붙지 않은 채 문장 안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다.
 (2)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기능을 한다. ‘벚나무에 꽃이 피기’는 명사절로,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3) ‘지금의 일에 충실하라고’는 조사 ‘고’를 붙여 어머니의 말씀을 화자의 표현으로 바꾸어 간접 인용한 절이다.

확인 3 답 (1) 관 (2) 부

이래서 정답

- (1) ‘일찍 일어나는’은 안은문장에서 체언 ‘새’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2) ‘광이 나도록’은 안은문장에서 서술어 ‘닭았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현’은 관형사로 관형절이 아니다.

확인 4 답 (1) ㄴ (2) -아서, -게

이래서 정답

- (1) ㄴ의 부사절 ‘재미있게’에는 주어 ‘이야기가’가 생략되어 있는 반면, ㄱ의 부사절 ‘배가 아파서’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2) ㄱ의 ‘배가 아파서’는 전성 어미 ‘-아서’가, ㄴ의 ‘재미있게’는 전성 어미 ‘-게’가 붙어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확인 5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따뜻하-’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붙어 형성된 관형절에는 부사어가 없다. ‘마당에서’는 안은문장의 부사어이다.

왜 오답

- ①, ② ‘따뜻한’은 주어 ‘봄벌이’가 생략된 채 체언 ‘봄벌’을 수식하는 관형절로, 안은문장에 안겨 있다.

1 답 ①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① ‘성격이 좋다.’가 관형절의 형태로 ‘민수는 학생이다.’에 안겨 있는 문장으로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하다.

왜 오답

- ② 주어(‘장미꽃이’)와 서술어(‘피었다’)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우리 집’은 체언 ‘정원’을 꾸며 주는 관형구이다.
 ③ 주어(‘다예가’)와 서술어(‘읽었다’)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교실에서’는 부사어, ‘소설책을’은 목적어이다.
 ④ ‘그는 갔다.’와 ‘그의 예술은 살아 있다.’가 대조의 의미를 지니는 연결 어미 ‘-으나’를 통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⑤ ‘바람이 세차게 불다.’와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가 나열의 의미를 지니는 연결 어미 ‘-고’를 통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2 답 ④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④ ㉡은 ‘날이 매우 추워지다.’와 ‘방한 용품이 필요하다.’가 조건을 의미하는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왜 오답

- ① ㉠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는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로,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에서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는 주어(‘후각이’)와 서술어(‘예민하다’)를 갖춘 서술절로, 안은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에서 ‘그가 우리를 도와준’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붙어서 만들어진 관형절로, 체언 ‘일’을 꾸며 주고 있다.
 ⑤ ㉥에서 ‘관객들이’는 주어이고, ‘메웠다’는 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수만 명의’는 체언 ‘관객들’을 꾸며 주는 관형구이고, ‘가득’은 동사 ‘메웠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문해 공식 적용 명사절, 서술절, 관형절

명사형 전성 어미 ‘-기’+목적격 조사 ‘를’		
우리와 함께 일하다.	ㄷ	그는 ~ 거부했다. → 명사절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	ㄷ	개는 사람보다 ~ 예민하다. → 서술절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		
그가 우리를 도와주다.	ㄷ	나는 ~ 일을 잊지 않았다. → 관형절

3 답 ④

문장과 달화

| 보기 | 오래 보기

... 안긴문장의 종류에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안긴문장은 문장의 필수 성분을 일부 갖추지 않기도 하는데, 안은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에 공통되는 요소는 생략되기 때문이다. ...

❶ 이어서 정답

- ④ ㄷ의 안긴문장 '수업이 끝나기'에는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지 않다. 반면 ㄹ의 안긴문장 '조종사가 된'에는 보어('조종사가')와 서술어('된')만 있고, 안은문장과 공통되는 요소인 주어 '소년이'는 생략되어 있다.

❷ 왜 오답

- ① ㄱ의 안긴문장은 '여행을 가기'로, 안은문장과 공통되는 요소인 주어 '나는'이 생략되어 있다.
 ② ㄴ의 안긴문장 '그녀가 착함'의 주어는 '그녀가'이고, 안은문장의 주어는 '우리는'으로, 안긴문장의 주어와 안은문장의 주어는 다르다.
 ③ ㄴ의 안긴문장은 '그녀가 착함'으로,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ㄷ의 안긴문장은 '수업이 끝나기'로,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⑤ ㄱ의 안긴문장 '여행을 가기'는 명사형 전성 어미 '-기'와 결합된 명사절로 안은문장에서 체언 '전'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ㄹ의 안긴문장 '조종사가 된'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결합된 관형절로, 체언 '소년'을 꾸며 준다. 따라서 ㄱ과 ㄹ의 안긴문장은 종류는 다르지만 문장 성분은 같다.

4 답 ④

문장과 달화

❶ 이어서 정답

- ④ ㉠의 안긴문장은 용언 '나갔다'를 수식하는 부사절이고, ㉡의 안긴문장은 체언 '수박'을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❷ 왜 오답

- ① ㉠의 안긴문장 '소리도 없이'에서 주어는 '소리도'로 생략되어 있지 않다.
 ② ㉡의 안긴문장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은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③ ㉢의 안긴문장 '어머님께서 시장에서 산'에는 용언 '사다'를 수식하는 부사어 '시장에서'가 있을 뿐,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⑤ ㉤의 안긴문장에는 주어('그가'), 관형구('이 사건의'), 서술어('범인이다')가 있을 뿐, 목적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 '수박을'이 생략되어 있다.

5 답 ①

문장과 달화

❶ 이어서 정답

- ① 관형절 '그가 여행을 간'과 이 관형절이 안겨 있는 '그녀가 사실을 몰랐다.' 사이에는 서로 중복되는 단어가 없다. '그가 여행을 간'은 생략된 문장 성분 없이 체언 '사실'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❷ 왜 오답

- ② 관형절 '내가 사는'에는 부사어 '마을에'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 '마을'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③ 관형절 '책장에 있던'에는 주어 '소설책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 '소설책'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④ 관형절 '동생이 먹을'에는 목적어 '딸기를'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 '딸기'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⑤ 관형절 '골짜기에 흐르는'에는 주어 '물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 '물'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6 답 ②

문장과 달화

❶ 이어서 정답

- ② '이가 시리도록'은 주어('이가')와 서술어('시리다')로 이루어진 절이다. '시리다'에 부사형 전성 어미 '-도록'을 결합하여 용언 '차가웠다'를 수식하므로 부사절(㉠)에 해당한다.

❷ 왜 오답

- ① '이 일은 하기'는 생략된 주어(누가), 목적어 '이 일', 서술어 '하다'로 이루어진 절로, '하다'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붙어 형성된 명사절이다. 여기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체언처럼 쓰이고 있다.
 ③ '꼭 꿈을 이루겠다'는 생략된 주어 '은기가'와 목적어 '꿈을', 서술어 '이루다'로 이루어진 절로, 조사 '고'와 결합하여 은기가 한 말을 간접 인용하는 인용절에 해당한다.
 ④ '마음이 따뜻한'은 주어 '마음이'와 서술어 '따뜻하다'로 이루어진 절로, '따뜻하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결합하여 체언 '사람'을 수식하므로 관형절에 해당한다.
 ⑤ '우리가 어제 돌아온'은 주어 '우리가'와 서술어 '돌아오다'로 이루어진 절로, '돌아오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결합하여 체언 '사실'을 수식하므로 관형절에 해당한다.

7 답 ③

문장과 달화

❶ 이어서 정답

- ③ ㉡을 보면 직접 인용문에 쓰이던 높임 표현 '계시다'가 간

접 인용문에서 '있다'로 바뀌며 높임 표현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인용문에서 실현된 높임 표현이 간접 인용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보기>에서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붙여 표현하고, 간접 인용은 문장 부호 없이, 조사 '고'를 붙여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의 직접 인용문에 쓰인 큰따옴표는 간접 인용문에서 사라지고, 직접 인용문의 조사 '라고'는 간접 인용문에서 조사 '고'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 ② <보기>에 따르면 간접 인용문에서는 인용하는 말이 화자의 관점에서 표현된다. 이를 고려할 때, ㉠의 직접 인용문에 쓰인 시간 표현 '내일'이 간접 인용문에서 '오늘'로 달라지는 것은 진우의 관점에서 '내일'이, 화자의 관점에서 '오늘'이 되기 때문이다.
- ④ ㉠의 직접 인용문에 쓰인 인칭 표현 '나'는 1인칭 표현으로 이 말을 한 '아영이'를 가리킨다. 이 문장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제삼자인 화자의 관점에서 표현하게 되므로 '나'는 3인칭 표현인 '자기'로 바뀐다.
- ⑤ ㉠의 직접 인용문에 쓰인 지시 표현 '이곳'은 아영이와 가까운 곳을 가리킨다. 이 문장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화자의 관점에서 표현하게 되므로 '이곳'은 '그곳'으로 바뀐다.

⊕ 어휘

- **1인칭**: 말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의 동아리를 이르는 인칭. 예를 들어 '나는 학생이다.'에서 '나', '우리는 소풍을 간다.'에서 '우리' 따위이다.
- **3인칭**: 화자와 청자 이외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 '그', '그녀', '그이' 따위이다.
- **자기**: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

1 답 ⑤

문장과 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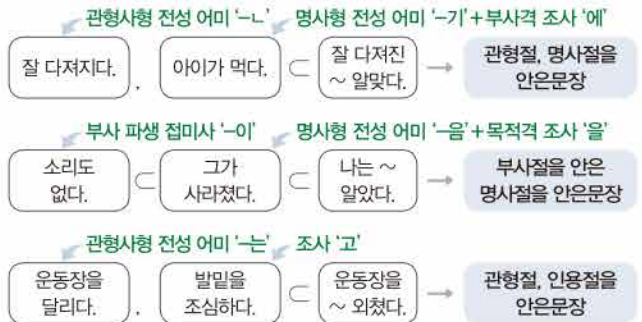
❖ 이어서 정답

- ⑤ ㄴ의 부사절 '소리도 없이'는 명사절 '그가 사라졌음'에 안겨 있다. 그러나 ㄷ의 안긴문장 '운동장을 달리는'과 '발밀을 조심하라고'는 안은문장에 각각 안겨 있을 뿐, 안긴문장이 또 다른 안긴문장을 안고 있지 않다.

❖ 왜 오답

- ① ㄱ의 명사절 '아이가 먹기'는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ㄴ의 명사절 '그가 사라졌음'은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② ㄴ의 '소리도 없이'는 '없다'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절로 용언 '사라졌다'를 수식하고 있다. 반면 ㄱ에는 부사절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③ ㄷ의 '발밀을 조심하라고'는 조사 '고'를 붙여 만든 간접 인용절로, 그가 한 말을 화자인 '나'의 표현으로 바꾸어 나타낸 것이다. 반면 ㄴ에는 인용절이 없다.
- ④ ㄱ의 안긴문장 '(음식이) 잘 다져진'은 '다져지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붙어 형성된 관형절로, 주어 '음식'이 생략되어 있다. ㄷ의 안긴문장 '(내가) 운동장을 달리는'은 '달리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붙어 형성된 관형절로, 주어 '내가'가 생략되어 있다.

문해 공식 적용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2 답 ⑤

문장과 답화

❖ 이어서 정답

- ⑤ ㄴ의 '나무가'는 서술절 '나무가 많다'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ㄷ의 '대학생이'는 서술어 '되었다'가 필요로 하는 보어로, 주어가 아니다.

❖ 왜 오답

- ① ㄱ의 주어는 '토끼는' '앞발이'이고, 서술어는 '짧다'이다. ㄴ의 주어는 '이 산은', '나무가'이고, 서술어는 '많다'이다. ㄷ의 주어는 '우리 오빠는'이고, 서술어는 '되었다'이다.
- ②, ③, ④ ㄱ의 '토끼는'은 서술절 '앞발이 짧다'의 주어이고,

ㄴ의 '나무가 많다.'는 주어 '이 산은'의 서술어 기능을 하므로, ㄱ과 ㄴ은 서술절이 전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3 답 ③

문장과 대화

이래서 정답

- ③ ㉠의 명사절 '비가 오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고, ㉡의 명사절 '병원에 가기'는 조사가 생략된 상태로 목적어로 쓰였다. 한편 ㉢의 명사절 '집에 가기'와 ㉣의 명사절 '1년 후에 돌아가기'는 각각 부사격 조사 '에',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4 답 ②

문장과 대화

이래서 정답

- ② ㉢의 '축추기'는 '축축하게'라는 뜻으로 용언 '들뚫(뚫뚫)'을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왜 오답

- ① ㉠의 '날로 뿌메'는 '나날이 씬에'라는 뜻이다. '뿌메'는 '쓰- + -음(명사형 전성 어미) + 에(부사격 조사)'로 분석되므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로 볼 수 있다.
- ③ ㉣의 '부모를 현더케 흠이'는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라는 뜻으로,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붙어 형성된 명사절에 주격 조사 '이'가 붙어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의 '본향에 도라옴만'은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붙어 형성된 명사절에 보조사 '만'이 붙어 서술어 '근디(갈지)'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의 '보디'는 '보기'라는 뜻으로, 명사형 전성 어미 '-디'가 붙어 형성된 명사절에 주격 조사가 생략된 채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5 답 ④

문장과 대화

이래서 정답

- ④ 명사절 '겨울이 오기'는 관형격 조사 '의'를 생략한 상태로 체언 '전'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왜 오답

- ① '색깔이 희기'는 주격 조사 '가'가 붙어 주어로 쓰였다.
- ② '첫눈이 오기'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목적어로 쓰였다.
- ③ '자식이 행복하기'는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된 상태로 '바란다'의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로 쓰였다.
- ⑤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 부사어로 쓰였다.

15 높임 표현

확인 1 답 ㄱ, ㄴ

이래서 정답

ㄱ, ㄴ. ㄱ의 '중으십니다'와 ㄴ의 '그치겠습니까'는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ㅂ니다'를 사용한 것으로 듣는 이를 아주 높인다. 반면 ㄷ의 '가자'와 ㄸ의 '드렸다'는 해라체의 종결 어미 '-자'와 '-다'를 사용한 아주낮춤 표현이다.

확인 2 답 (1) 해체, 해요체, 친근감 (2) 하십시오체, 공적 (3) 두루낮춤, 아주높임, 두루높임

이래서 정답

- (1) ㄱ의 '왔어'는 해체의 종결 어미 '-어'가 쓰인 것이고, ㄸ의 '싫어요'는 해요체의 종결 표현 '-어요'가 쓰인 것으로 모두 친근감을 주는 비격식체에 속한다.
- (2) ㄴ의 '-하십시오'와 ㄴ의 '-ㅂ니다'는 모두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로 공적 상황에서 쓰는 격식체에 속한다.
- (3) ㄱ은 두루낮춤의 해체가, ㄴ, ㄷ은 아주높임의 하십시오체가, ㄸ은 두루높임의 해요체가 실현된 것이다.

확인 3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말은 '다녀오실'과 '있으시다'이다.
- (2) 주격 조사 '께서'와, '다녀오실'에 쓰인 선어말 어미 '-시-'는 주체인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으시다'의 선어말 어미 '-시-'는 어머니와 관련된 대상인 '생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인다.
- (3) 객체(목적어의 지시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데리고'의 높임말)인 '모시고'를 사용하고 있다.

확인 4 답 ㉠, ㉣

이래서 정답

'드시나요(㉠)'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손님을 직접 높인 말이고, '물어(㉣)'는 높일 필요가 없는 친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므로 바른 표현이다. 반면, '드실(㉡)', '나오셨습니다(㉢)'은 각각 주체인 '나(손님)'와 친구, 커피 등 높일 필요가 없는 대상을 높여 말한 것으로 바른 표현이 아니다.

+ 어휘

• 비격식체: 표현이 부드럽고 주관적인 느낌을 주는 상대 높임법.

1 답 ①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① ㄱ은 주체인 '나'를 높이지 않으므로, [A]로 분류된다.
ㄴ은 '께서'와 '계신다'를 통해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객체인 '우리 집'을 높이지 않으므로, [B]로 분류된다.
ㄷ은 '께서'와 '가셨다'를 통해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모시고'를 통해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므로 [C]로 분류된다.

2 답 ⑤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⑤ ㉔의 '편찮다'는 '아프다'의 높임말로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① ㉓의 '드리다'는 '주다'의 높임말이다.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②, ③ ㉖의 '뵙다'와 ㉔의 '모시다'는 각각 '보다'와 '데리다'의 높임말이다.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④ ㉔에 쓰인 부사격 조사 '께'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객체)인 '큰아버지'를 높인 말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3 답 ①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① '아버지께서'와 '가시었어요'의 '께서'와 '-시-'는 주체인 '아버지(㉔)'를 높이고, '할아버지께'와 '드리러'의 '께'와 '드리다'는 객체인 '할아버지(㉔)'를 높인다. 또 해요체의 종결 표현 '-어요(㉔)'는 청자인 '어머니'를 높인다.

4 답 ②

문장과 담화

| 보기 | 오려 보기

... 높임법은 조사, 특수 어휘,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등에 의해 실현되는데 ...

이래서 정답

- ② '아버지께서는', '나가셨어'에서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데리다'의 높임말인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또 청자인 영희에게 '나가셨어'와 같이 두루낮춤 표현인 해체의 종결 어미 '-어'를 쓴 것으로 보아 상대를 낮추고 있다.

5 답 ③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③ '연세'는 높여야 할 인물인 할머니의 '나이'를 높이는 명사(㉔)이고, '잡수신다'는 '먹는다'의 높임말로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용언(㉔)이다.

왜 오답

- ① '그분'은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대명사이고, '성함'은 높여야 할 인물의 '이름'을 높이는 명사(㉔)이다.
② '여쭙'은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용언이고, '댁'은 할머니의 '집'을 높이는 명사(㉔)이다.
④ '부모님'은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이고, '모시다'는 객체인 '부모님'을 높이는 용언이다.
⑤ '피곤하셨는지'와 '주무신다'는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용언(㉔)이다.

6 답 ②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② ㉔을 고려할 때 ㉔의 '편하게 (신발을) 신으실'에 주어 '어머니가'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 '-으시-'가 높이는 주어의 지시 대상은 '어머니'이다. 반면 해요체의 보조사 '요'는 청자인 '점원'을 높이는 문법적 수단이므로, 높임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

왜 오답

- ① ㉔의 '어머니께'와 '드릴'에서 문법적 수단인 부사격 조사 '께'와 어휘적 수단인 특수 어휘 '드리다'를 통해 부사어의 지시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③ ㉔의 '모시고'에서 '데리다'의 높임말을 통해 목적어의 지시 대상인 '부모님'을 높이고, '손님들께서'에서 조사 '께서'를 통해 주어의 지시 대상인 '손님들'을 높이므로 높임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
④ ㉔의 '저렴합니다'에서 하십시오체의 종결 표현인 '-니다'(문법적 수단)를 통해 청자인 손님을 높이고 있다.
⑤ ㉔의 '뵙고'에서 '보다'의 높임말인 '뵙다'(어휘적 수단)를 통해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7 답 ①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① 주어의 지시 대상인 ㉔이 영희에서 '선생님'으로 바뀌면 주체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를 '께서'로 고쳐야 한다.

왜 오답

- ② ㉔이 '선생님'으로 바뀌면 주체 높임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조사 '에게'를 '께'로 고치면 부사어의 지시 대상 즉, 객체를 높이게 되므로 주체 높임이 실현되지 않는다.

- ③ 부사어의 지시 대상인 ㉠이 '선생님'으로 바뀌면 객체 높임을 실현해야 한다. '주시는'에 쓰인 선어말 어미 '-시-'는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므로 객체 높임이 실현되지 않는다.
- ④, ⑤ ㉠이 '선생님'으로 바뀌면 객체 높임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보았어'를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보셨어'로 고치면, 주체인 '나'(화자 자신)를 높이게 된다. 그리고 '보았어'를 종결 표현 '-니다'를 사용하여 '보았습니다'로 고치면, 청자인 철수를 높이게 된다. 따라서 둘 다 객체 높임을 실현하지 못한다.

8 답 ②

문장과 답화

① 이래서 정답

- ② ㉠의 '데리고'를 '모시고'로 수정하면 목적어의 지시 대상(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게 되므로, 삼촌을 간접적으로 높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왜 오답

- ① ㉠에서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 '계신가요'를 '있다'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인 형태인 '있으신가요'로 수정하면, 주어의 지시 대상인 '(아버지의) 고민'을 높임으로써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인 표현이 된다.
- ③ ㉢에서 '부장님'을 '부장님께서'로, '온다고'를 '오신다고'로 수정하면, 주어의 지시 대상인 부장님을 직접 높인 표현이 된다.
- ④ ㉡에서 '할아버지한테'를 '할아버지께'로, '주라고'를 '드리라고'로 수정하면, 부사어의 지시 대상(객체)인 할아버지를 직접 높인 표현이 된다.
- ⑤ ㉡에서 '선생님한테'를 '선생님께'로, '물어봐'를 '여쭙봐'로 수정하면, 부사어의 지시 대상(객체)인 선생님을 직접 높인 표현이 된다.

문해 공식 적용 높임 표현



1 답 ②

문장과 답화

① 이래서 정답

- ② '많으시다'의 선어말 어미 '-시-'는 교수님의 소유물인 책을 높임으로써 그 책을 소유한 교수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으므로, 간접 높임(㉡)에 해당한다.

② 왜 오답

- ①, ③, ④, ⑤ 주격 조사 '께서'와 용언에 쓰인 선어말 어미 '-시-'는 각각 서술어의 주체인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할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있다.

2 답 ③

문장과 답화

① 이래서 정답

- ③ ㉢에서 사용한 특수 어휘 '뵙다'는 서술의 객체(목적어)의 지시 대상인 선생님을 높인다.

② 왜 오답

- ① ㉡의 '선생님께서'와 '하셨어'에 사용된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는 모두 서술의 주체(주어의 지시 대상)인 선생님을 높인다.
- ② ㉡의 '선생님께'와 '드리기'에 사용된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는 모두 서술의 객체(부사어의 지시 대상)인 선생님을 높인다.
- ④ ㉡의 '준비했어요'에 쓰인 '-어요'는 해요체의 종결 표현으로 듣는 사람인 선생님을 높인다.
- ⑤ ㉡의 '마치겠습니다'에 쓰인 어미 '-니다'는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로, 수업 중에 발표하는 공식적인 상황에 어울리는 격식체에 해당한다.

문해 공식 적용 상대 높임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아주높임)	하오체 (예사 높임)	하계체 (예사 낮춤)	해라체 (아주낮춤)	해요체 (두루높임)	해체 (두루낮춤)
'-니다'	'-오'	'-네'	'-(ㄴ)다'	'-아요/-어요'	'-아/-어'
㉢ 마치겠습니다		㉡ 준비했어요		㉡ 하셨어	
격식체의 아주높임		비격식체의 두루높임		비격식체의 두루낮춤	

3 답 ⑤

문장과 답화

① 이래서 정답

- ⑤ ㉡에서 주체인 아버지는 화자보다 나이가 많아 높임의 대상이지만, 청자인 할아버지와 관계를 고려했을 때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지 않았습니다'에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지 않고 있다.

❖ 왜 오답

- ① ㄱ의 '있으십니다'에 쓰인 선어말 어미 '-시-'는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을 높여서 '사장님'을 간접적으로 높인다.
- ② 2문단에서는 방송과 같은 공적 담화에서 객관성을 고려하여 주체를 높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ㄴ에서 주체인 세종대왕을 높이지 않은 것은 담화의 객관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 ③ ㄷ의 '드시면'에 쓰인 선어말 어미 '-시-'는 주체인 어린이를 높이고 있다. 이는 수업이라는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높인 것에 해당한다.
- ④ ㄹ에서 청자가 어린 손자인 것으로 보아 화자는 조부모임을 알 수 있다. 화자의 입장에서 주체인 '엄마'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청자(손자)와 주체(엄마)의 관계를 고려하여 '출근하셨니'와 같이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엄마)를 높이고 있다.

4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c에서 '뵈셔'와 '모셔'는 모두 객체 높임에 사용하는 특수 어휘로, 주체가 아니라, 객체(목적어의 지시 대상)인 '태자'를 높인다.

❖ 왜 오답

- ① a의 중세 국어 'ᄃᆞᆫ'에 쓰인 '-샤-'와, 현대 국어 '하신'에 쓰인 '-시-'는 모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 주체(주어의 지시 대상)인 '대사'를 높이고 있다.
- ② a의 중세 국어 '거시잇고'에 쓰인 '-잇-'은 현대 국어에 없는 말이다. 4문단에 따르면 '-잇-'은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아주 높이는 데 사용되었다.
- ③ b의 중세 국어 '공양ᄃᆞᆫ'에 쓰인 '-습-'은 현대 국어에 없는 말이다. 3문단에 따르면 '-습-'은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 객체(목적어의 지시 대상)인 '어마님'을 높인다.
- ④ c의 중세 국어 '부인ᄃᆞᆫ'에 쓰인 '-ᄃᆞᆫ'과 현대 국어 '부인께'에 쓰인 '-께'는 모두 객체(부사어의 지시 대상)인 '부인'을 높이고 있다.

❖ 어휘

- 소유물: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
- 객관성: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문장과 담화

16 시간 표현, 부정 표현

확인 1 답 (1) 지금, 현재 (2) 어제, 과거 (3) -겠-, 미래

❖ 이래서 정답

- (1) ㄱ에 쓰인 시간 부사 '지금'은 '말하는 바로 이때에'라는 뜻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또한 ㄱ의 서술어 '백제 문화 단지이다'는 체언 '백제 문화 단지'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형태로,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 (2) ㄴ에 쓰인 시간 부사는 '어제'로, '연착되었다'에 붙은 선어말 어미 '-었-'과 함께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
- (3) ㄷ에 쓰인 시간 부사어 '모래에는'과 '우화하겠다'에 붙은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 시제를 표현한다.

확인 2 답 (1) 완 (2) 완 (3) 진

❖ 이래서 정답

- (1)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어 있다'를 사용하여 저녁 식사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완료상이다.
- (2) '음식을 먹고서 배탈이 났다.'는 '-고서'를 사용하여 음식을 먹은 동작이 완료된 후 일어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완료상이다.
- (3) '강변을 걷고 있다.'는 '-고 있다'를 사용하여 강변을 걷는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진행상이다.

확인 3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오르지 않을까?(㉠)'는 용언의 어간 '오르-'에 '안' 부정문인 '-지 않을까'가 결합하여 단순한 상태 부정을 나타낸다. ㉠은 부정 부사 '안'을 사용해 '안 오를까'와 같이 짧은 부정문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왜 오답

- ② '우울해하지 말자.(㉡)'는 용언의 어간 '우울해하-'에 '-지 말자'를 결합한 청유문의 부정 표현으로, '말다' 부정문이자 긴 부정문이다. '말다' 부정문은 짧은 부정문으로 실현할 수 없으므로 ㉡은 짧은 부정문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③ '못 읽겠어.(㉢)'는 부정 부사 '못'을 용언 '읽겠어' 앞에 붙여 주체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짧은 부정문이다. 짧은 부정문을 긴 부정문으로 바꿀 때에는 용언의 어간에 '-지

못하다'를 붙이므로, ㉠은 '읽지 못하겠어'와 같이 긴 부정문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확인 4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ㄱ에서 “장대비가 그치지 않아 눈발이 잠겼다.”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하지만, 이를 “*장대비가 그치지 못하여”와 같이 바꾸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행위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못’ 부정문이 아닌 ‘안’ 부정문만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2) ㄴ의 두 문장이 모두 비문인 것으로 보아, ‘안’ 부정문은 ‘깨닫다, 알다’ 등 주어의 의미가 작용할 수 없는 말에서는 쓰일 수 없다.

+ 어휘

- 연착: 정하여진 시간보다 늦게 도착함.
- 우화: 번데기가 날개 있는 성충이 됨. 녹날개뚱이.

1 답 ①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① 발화시(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시(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가 앞서는 경우(㉠)는 과거 시제에 해당한다. ①은 ‘먹은’에 쓰인 관형사형 어미(㉠) ‘-은’, ‘맛있었다’에 쓰인 선어말 어미(㉡) ‘-었-’과 시간 부사어 ‘지난번에’가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므로 ①을 실현하는 문장이다.

왜 오답

- ② ‘읽을’에 쓰인 관형사형 어미 ‘-르’와 시간 부사어 ‘내일’을 통해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인 미래 시제를 실현하였다.
- ③ ‘도착했다’에 쓰인 선어말 어미 ‘-었-’과 시간 부사어 ‘이미’를 통해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과거 시제를 실현하였지만, 관형사형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 ④ ‘왔었다’에 쓰인 선어말 어미 ‘-았었-’과 시간 부사어 ‘작년에는’를 통해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과거 시제를 실현하였지만, 관형사형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 ⑤ ‘한다’에 쓰인 선어말 어미 ‘-ㄴ-’과 시간 부사어 ‘지금’을 통해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를 실현하였다.

2 답 ②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② 주체의 의지가 아닌, 능력이나 외부의 원인으로 인한 행동 부정일 때는 ‘못’ 부정문을 쓰므로, ㉠에는 ‘동생이 못 잔다./자지 못한다.’가 들어간다.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동 부정이면서 짧은 부정문일 때는 부정 부사 ‘안’을 쓰므로, ㉡에는 ‘동생이 안 잔다.’가 들어간다. 이를 긴 부정문으로 나타내면 ㉢에는 ‘동생이 자지 않는다.’가 들어간다.

3 답 ②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② ㄴ은 행동 주체의 의지가 아닌, 객관적 사실(‘해가 비친다.’)을 부정하는 표현이며, ‘여기에는 이제 해가 {안/못} 비친다.’처럼 짧은 부정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ㄱ의 “나는 수학 공부를 안 했다.”는 주체의 의지에 의한 ‘의지 부정’을, “나는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었다.”는 주체의 능력 부족에 의한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
- ③ ㄷ의 “그녀를 만나지 마라.”와 같이 명령문의 부정 표현에는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대신 보조 용언 ‘말다’가 활용된다.
- ④ ㄹ의 ‘결코’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라는 의미로, ‘분명히’와 다르게 반드시 부정 표현과 함께 쓰인다.

- ⑤ ㄹ의 “*교실이 못 깨끗하다.”를 통해 형용사를 부정할 때에는 부사 ‘못’을 사용할 수 없으며, 상태 부정은 ‘안’ 부정문을 통해서만 실현됨을 알 수 있다.

4 답 ④

문장과 담화

㉠ 이래서 정답

- ④ ㄹ의 ‘적었었다’에 쓰인 선어말 어미 ‘-었었-’은 발화시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하여 현재와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낸다.

㉡ 왜 오답

- ① ㄱ의 시간 부사어 ‘어제’는 ‘떠났다’에 쓰인 선어말 어미 ‘-았-’과 함께 과거를 나타낸다.
 ② ㄴ의 ‘출터라’에 쓰인 선어말 어미 ‘-터-’는 시간 부사어 ‘지난겨울에는’과 함께 과거를 나타내는데, 특히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의미를 더해 준다.
 ③ ㄷ의 ‘본’에 쓰인 관형사형 어미 ‘-ㄴ’은 ‘재미있었다’에 쓰인 선어말 어미 ‘-었-’과 함께 과거를 나타낸다.
 ⑤ ㄹ의 ‘잡네’에 쓰인 ‘-았-’은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가 아닌,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5 답 ④

문장과 담화

㉠ 이래서 정답

- ④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지 아니하다’를 사용하여(㉠) 단순히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왜 오답

- ① 부사 ‘못’을 통해 단순한 사실을 부정한 짧은 부정문이다.
 ② 부사 ‘안’을 통해 의지를 부정한 짧은 부정문이다.
 ③ ‘-지 못하다’를 통해 능력을 부정한 긴 부정문이다.
 ⑤ ‘-지 아니하다’를 통해 의지를 부정한 긴 부정문이다.

6 답 ⑤

문장과 담화

㉠ 이래서 정답

- ⑤ ㉠은 부정 용언 ‘못하다’로 만들어진 긴 부정문이고, ㉡은 부정 부사 ‘못’으로 만들어진 짧은 부정문으로 그 형태만 다를 뿐, 의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 왜 오답

- ①, ④ ㉠, ㉡은 부정 부사 ‘안’, ㉢, ㉣은 부정 부사 ‘못’, ㉤은 부정 용언 ‘못하다’를 사용하여 만든 부정문이다.
 ②, ③ ㉡의 ‘안’은 ‘하고 싶지 않다’는 화자의 의지를, ㉢의 ‘못’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야.”는 ‘하고 싶지 않

은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거야.’로 해석할 수 있다.

7 답 ③

문장과 담화

| 보기 | 오래 보기

… 동작상은 ‘-고 있다’, ‘-아/-어 있다’ 등과 같이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실현된다. 또한 ‘-(으)면서’, ‘-고서’ 등과 같은 연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한다. …

㉠ 이래서 정답

- ③ ㄷ은 연결 어미 ‘-면서’를 통해 노래를 부르는 동작이 특정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의 완료를 표현하지 않는다.

㉡ 왜 오답

- ① ㄱ에서는 동생이 책을 읽는 행위가 일어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므로 현재 시제가 나타난다. 또한 ‘-고 있다’를 통해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을 실현하고 있다.
 ② ㄴ에서는 ‘-어 있다’를 통해 꽃이 핀 후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을 실현하고 있다.
 ④ ㄹ은 그가 빨간 티셔츠를 입는 동작 중이라는 진행상으로도, 빨간 티셔츠를 입은 채로 있다는 완료상으로도 해석된다.
 ⑤ ㄹ에서는 ‘나’가 밥을 먹고 집을 나서는 행위가 일어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으므로 과거 시제가 나타난다. 또한 ‘-고서’를 통해 ‘나’가 밥을 먹은 행위가 끝났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을 실현하고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시제와 동작상



+ 어휘

- 회상: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1 답 ⑤

문장과 답화

③ 이래서 정답

- ⑤ 2문단에서 ‘-았-/-었-’은 주로 과거 시제를 표현하지만, 미래의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에 쓰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어린 동생과 싸웠으니 난 이제 어머니께 혼났다.”에서 ‘어머니께 혼나는 일’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혼났다’에서 ‘-았-’을 사용하여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③ 왜 오답

- ①, ②, ④ ‘결심했다’, ‘일어났다’, ‘있었다’에서 각각 선어말 어미 ‘-았-/-었-’을 사용하여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고 있다.
③ “봄날 거리에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다.”에서 ‘피었다’에 ‘-었-’을 사용하여 과거에 핀 꽃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답 ④

문장과 답화

③ 이래서 정답

- ④ ㉡는 시간 부사 ‘어제’와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발화시보다 영화를 본 사건시가 앞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③ 왜 오답

- ①, ② ㉢는 ‘잔다’에서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여 발화시와 아기가 잠을 자는 사건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③ ㉣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므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시간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은 현재 시제이다.
⑤ ㉤는 시간 부사 ‘곧’과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발화시보다 비가 내리는 사건시가 나중인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3 답 ①

문장과 답화

③ 이래서 정답

- ① ㉦의 ‘-겠-’은 미래의 사건이 아닌 과거(‘왔겠다’)나 현재(‘오겠지’)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③ 왜 오답

- ②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에서 선어말 어미 ‘-았-’은 과거 시제가 아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나타낸다.

- ③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에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은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 ‘내년에’와 함께 쓰여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
⑤ 형용사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는 ‘작았다’와 같이 선어말 어미 ‘-았-/-었-’이 붙지만,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는 ‘작다’와 같이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지 않는다.

4 답 ③

문장과 답화

③ 이래서 정답

- ③ 3문단에서 ‘못’ 부정문은 동작 주체의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부정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 ‘못’은 다리를 다쳐 축구를 할 수 없게 된 그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지,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③ 왜 오답

- ① 3문단에서 ‘못’ 부정문은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예쁘다’는 형용사이므로, ㉢에서 ‘안’을 ‘못’으로 바꾸면 *‘나팔꽃이 못 예쁘다.’가 되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2문단에서 ‘안’ 부정문은 상태를 부정하는 ‘단순 부정’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 ‘안’은 단순히 상태가 그러하지 않음을 표현할 때 쓰는 부정 부사로, ‘예쁘다’라는 상태를 부정한다.
④ 3문단에서 ‘못’ 부정문은 부정 부사 ‘못’으로 실현되는 짧은 부정문과 ‘-지 못하다’로 실현되는 긴 부정문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을 ‘그는 다리를 다쳐 축구를 하지 못한다.’와 같이 긴 부정문으로 바꾸어도 어법상 문제가 없다.
⑤ ㉥은 과자를 먹지 말라는 명령의 의미가 담긴 문장으로, 4문단에서 이와 같은 명령문의 부정 표현에는 ‘말다’ 부정문이 쓰인다고 하였다. 그런데 형용사는 대부분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서술어로 쓰일 수 없어서, ‘말다’ 부정문도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5 답 ②

문장과 답화

③ 이래서 정답

- ② ㉧의 주어인 ‘물품’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동작 주체가 아니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단순 부정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③ 왜 오답

- ① ㉨은 형용사 ‘넓다’에 ‘-지 못하다’를 붙여 긴 부정문을 실

현하고 있는데, 이는 동아리실의 크기가 화자가 기대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함을 나타낸다.

- ③ 3문단에서 '못' 부정문은 완곡한 거절, 또는 강한 거부와 같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반영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㉔의 '못 와.'에는 내일 물품을 옮기자는 제안에 대한 화자의 거절이 담겨 있다.
- ④ 3문단에서 동작 주체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는 '못' 부정문에 쓰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의미의 '내 키다'에 '안' 부정문이 쓰인 것이다.
- ⑤ ㉔은 형용사 '덥다'에 '-지 마라'가 붙은 긴 부정문 형태로, 화자의 기원이나 희망의 의미를 나타낸다.

문제 공식 적용 부정 표현

'안' 부정문	물품이 전부 안 들어가겠는데?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동작 주체가 아님. → 단순 부정으로만 해석됨.
	나도 별로 안 내키는데	동작 주체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 → '안' 부정문만 쓰임.
'못' 부정문	동아리실이 그리 넓지 못해	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냄. → 형용사에 '못' 부정문이 쓰임.
	나는 내일 못 와.	화자의 완곡한 거절을 나타냄.
'말다' 부정문	내일은 제발 덥지만 마라.	화자의 희망을 나타냄. → 형용사에 '말다' 부정문이 쓰임.

어휘

- **완곡한**: 말하는 투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 **기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빌.

문장과 담화

17 피동 표현, 사동 표현

확인 1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능동문인 ㉑의 목적어 '쥐를'은 피동문인 ㉒에서 주어 '쥐'가 바뀌어 나타난다.

왜 오답

- ① ㉑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고양이가 제힘으로 쥐를 잡았음을 나타내는 능동문이다.
- ③ ㉒은 능동사 '잡다'의 어근 '잡-'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인 피동사 '잡히다'를 활용하여 쥐가 고양이에게 '잡힘'의 행위를 당했다는 의미를 나타낸 피동문이다.

확인 2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ㄱ~ㄴ에서 '-어지다'와 달리 피동 접미사는 '뒹다', '팔다'에만 붙고 '던지다'에는 붙지 않는다. 따라서 '던지다'는 짧은 피동문이 실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피동 접미사가 붙을 수 있는 동사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 (2) ㄱ의 짧은 피동문은 어근 '뒹-'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에 의한 피동 표현이다. 반면, ㄴ의 '팔린다'는 어근 '팔-'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에 의한 피동 표현이다.
- (3) ㄱ은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와 같은 능동문을, ㄴ은 '(누가) 아이스크림을 잘 판다.'와 같은 능동문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ㄱ, ㄴ 모두 동작을 하는 주체를 상정할 수 있으며 ㄱ, ㄴ에 대응하는 능동문도 만들 수 있다.

확인 3 답 (1) 주 (2) 사 (3) 사 (4) 주

이래서 정답

- (1) '소가 밭에서 풀을 먹는 동작을 직접 함을 나타내는 주동문이다.
- (2)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 읽는 동작을 시켰다는 의미로, 사동 접미사 '-히-'가 붙은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이다.
- (3) '노인'이 '젊은이'가 많은 짐을 지는 동작을 하도록 시켰다는 의미로, 사동 접미사 '-우-'가 붙은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이다.
- (4)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북쪽으로 날아가는 동작을 직접 함을 나타내는 주동문이다.

② 이래서 정답

- (1) ㄱ~ㄴ에서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서 각각 '내가', '엄마가', '아빠가'가 새로운 주어로 도입됨을 알 수 있다.
- (2) ㄱ에서 주동사가 '웃다'와 같은 자동사일 때, 주동문의 주어('친구가')는 사동문에서 목적어('친구를')로 바뀐다. ㄴ에서 주동사가 '하다'와 같은 타동사일 때, 주동문의 주어('나는')는 사동문에서 부사어('나에게')로 바뀌고, 목적어('청소를')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3) ㄴ의 '재우다'는 '자다'의 어근에 두 개의 사동 접미사가 연속된 '-이우-'가 붙어 된 사동사로, 사동의 의미를 한 번만 가진다. 그리고 '재우게 하다'는 사동사 '재우다'에 '-게 하다'가 더 붙어 사동의 사동 표현이 된 것이다.

⊕ 어휘

- 제한적: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
- 상정: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함. 또는 그런 단정.
- 무리: 사람이나 짐승, 사물 따위가 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

1 답 ①

③ 이래서 정답

- ① "동생에게 사탕을 빼앗기다."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주어의 지시 대상이 다른 주체인 동생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했다는 의미이므로 피동 표현의 예로 적절하다.

③ 왜 오답

- ② "운동장에서 친구를 만나다."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주어의 지시 대상이 제힘으로 친구를 만난다는 의미이므로 능동 표현이다.
- ③ 주어의 지시 대상인 친구가 제힘으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이므로 능동 표현이다.
- ④, ⑤ "교장 선생님께 고개를 숙이다."와 "할머니께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다."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주어의 지시 대상이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한 것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피동 표현이 아니다. '숙이다'와 '굽히다'는 각각 '숙다'와 '굽다'의 사동사로 모두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2 답 ④

| 보기 | 오려 보기

사동문은 용언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을 붙인 사동사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데 ...

③ 이래서 정답

- ④ 손자가 스스로 색동옷을 입도록 할머니가 시켰다는 의미만 나타나므로 의미가 중의적으로 나타나는(㉠) 예로 볼 수 없다. ㉠의 예가 되려면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색동옷을 입히셨다.'와 같이 사동사를 써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직접 색동옷을 입혔다는 의미와, 손자가 스스로 입게 시켰다는 의미가 모두 나타나야 한다.

③ 왜 오답

- ① 선생님께서 윤호에게 책을 읽는 동작을 하도록 했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② '재우고'는 '자다'에 사동 접미사 '-이-'와 '-우-'가 두 개 붙은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 ③ 영희가 태호에게 사과를 꺾는 동작을 하게 했다는 의미로 '-게 하다'를 붙여 사동문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⑤ '먹이다'는 '먹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사동사의 형태를 띠지만, '농장에서 돼지를 먹인다.'에 쓰인 '먹이다'는 '가축 따위를 기르다.'라는 뜻으로 사동의 의미에서 멀어졌으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3 답 ③

문장과 답화

| 보기 | 오려 보기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피동 표현은 주로 어근에 접사 ‘-이-, -히-, -리-, -기-’, ‘-되다’ 등이 결합하여 실현된다. ...

◎이래서 정답

- ③ “친구는 버스에서 자기 짐까지 나에게 안겼다.”는 친구가 나에게 자기 짐을 안게 시켰다는 의미의 사동 표현으로,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피동 표현이 아니다.

❖왜 오답

- ① ‘풀렸다’의 ‘풀리다’는 어근 ‘풀-’에 접사 ‘-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사로, ‘문제’가 다른 주체에 의해 푸는 동작을 당하였다는 의미의 피동 표현이다.
 ② ‘읽혔다’의 ‘읽히다’는 어근 ‘읽-’에 접사 ‘-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사로, ‘그의 글’이 다른 주체인 ‘나’에 의해 읽는 동작을 당하였다는 의미의 피동 표현이다.
 ④ ‘깎였다’의 ‘깎이다’는 어근 ‘깎-’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사로, ‘잔디’가 다른 주체인 ‘칼날’에 의해 깎는 동작을 당하였다는 의미의 피동 표현이다.
 ⑤ ‘이용되었다’의 ‘이용되다’는 어근 ‘이용-’에 ‘-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동사로, ‘운동장’이 다른 주체에 의해 주차장으로 이용을 당하였다는 의미의 피동 표현이다.

4 답 ④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④ ㉠에서 ‘읽히셨다’는 접사 ‘-히-’에 의한 사동 표현이고, ‘읽게 하셨다.’는 ‘-게 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이다. 두 문장 모두 철수에게 책을 읽도록 시켰다는 간접 사동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왜 오답

- ① ㉠의 ‘낮춘다’는 형용사 ‘낮다’에 사동 접사 ‘-추-’가 결합한 사동사로, 동네 사람들이 담장을 낮게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② ㉡에서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주어(‘엄마가’)가 추가되고,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부사어(‘아이에게’)로 나타나므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③ “사람들이 방으로 이삿짐을 옮긴다.”를 주동문으로 바꾸면 ‘*이삿짐이 방으로 옮다.’와 같은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를 통해 대응하는 주동문을 만들 수 없는 사동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자동사가 쓰인 주동문 “아기가 웃는다.”를 사동문으로 바꾸면 주어(‘아기가’)는 목적어(‘아기를’)로 바뀐다. 그런데 타동사가 쓰인 주동문 “철수가 짐을 졌다.”를 사동문으로 바꾸면 주어(‘철수가’)는 부사어(‘철수에게’)가 된다. 따라서 주동문의 서술어(자동사/타동사)에 따라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에서 그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5 답 ②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② ‘만지다’의 어근 ‘만지-’에는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결합할 수 없어서 짧은 피동문을 만들 수 없다.

❖왜 오답

- ① ‘끓다’의 어근 ‘끓-’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냇숫줄이 물고기에 의해 끓졌다.’와 같은 짧은 피동문을 만들 수 있다.
 ③ ‘걸다’의 어근 ‘걸-’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하여 ‘그림이 어머니에 의해 벽에 걸렸다.’와 같은 짧은 피동문을 만들 수 있다.
 ④ ‘묻다’의 어근 ‘묻-’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도토리가 다람쥐에 의해 땅에 묻혔다.’와 같은 짧은 피동문을 만들 수 있다.
 ⑤ ‘담다’의 어근 ‘담-’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음식이 요리사에 의해 접시에 담졌다.’와 같은 짧은 피동문을 만들 수 있다.

6 답 ②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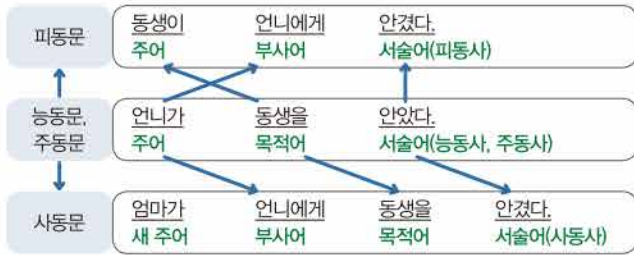
- ② <보기>의 ㉠, ㉡은 능동문이자 주동문이고, ㉢, ㉣는 피동문, ㉤, ㉥는 사동문이다. ㉡의 목적어 ‘그림을’은 피동문인 ㉣에서 ‘그림이’와 같이 주어로 바뀐다.

❖왜 오답

- ① ㉠의 ‘언니가’가 피동문인 ㉢에서 ‘언니에게’로 바뀐 것으로 보아,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됨을 알 수 있다.
 ③ ㉡이 사동문인 ㉣로 바뀌면서 ‘형이’라는 주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 새로운 주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④ 피동문인 ㉢과 사동문인 ㉤의 서술어가 모두 ‘안겼다’인 것으로 보아,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같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사동사 ‘안기다’를 활용한 ㉤과, ‘-게 하다’를 활용한 ㉣를 통해 사동사나 ‘-게 하다’를 통해 사동문을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회
문
답



7 답 ④

문장과 답화

① 이어서 정답

- ④ ㉔에서 '그려졌다'의 '그리다'는 어근 '그리-'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로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다.

② 왜 오답

- ① ㉑에서 '굴렸다'의 '굴히다'는 어근 '굴-'에 피동 접사 '-히-'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 ② ㉒에서 '빼앗겼다'의 '빼앗기다'는 어근 '빼앗-'에 피동 접사 '-기-'가 결합하여, '형'이 '동생'에 의해 빼앗김을 당하였음을 표현한다.
- ③ ㉓에서 '가려졌다'의 '가리다'는 어간 '가리-'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하여 장형 피동으로 실현된 것이다.
- ⑤ ㉕에서 '나뉘었다'의 '나뉘다'는 어근 '나누-'에 피동 접사 '-이-'가 결합하여 '나뉘-'로 줄어든 형태의 피동 표현이다.

+ 어휘

- **숙다**: 앞으로나 한쪽으로 기울어지다.
- **굽다**: 한쪽으로 휘다.
- **재우고**: 눈을 감고 한동안 의식 활동을 쉬는 상태가 되게 하고.

1 답 ②

문장과 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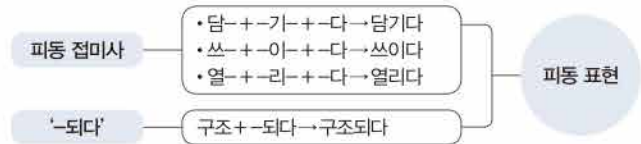
① 이어서 정답

- ② ㉒의 '버려지다'는 어간 '버리-'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된 피동 표현으로,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다.

② 왜 오답

- ① ㉑의 '담기다'는 어근 '담-'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실현된 피동 표현이다.
- ③ ㉓의 '구조되다'는 명사 '구조' 뒤에 '-되다'가 결합하여 주어진 강아지들이 '구조' 행위를 당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쓰인다고(㉔)'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고'로 표현하면 주어인 '성금이'는 '성금을'과 같이 목적어로 바뀐다.
- ⑤ '열린다는데(㉕)'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인 '유기전 보호 행사'를 주어로 삼은 피동사로, 행사를 여는 주체보다 '유기전 보호 행사'가 강조된다.

문해 공식 적용 피동 표현의 실현



2 답 ②

문장과 답화

① 이어서 정답

- ② 형용사에 '-아/-어지다'가 결합되면 동사화되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형용사의 어간 '작-'에 '-아지다'가 결합된 '(소리가) 작아지다'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② 왜 오답

- ① '(노래가) 불리다'는 '부르다'의 어간 '부르-'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피동사이다. 이는 동사의 어간 끝 '르'의 'ㄹ'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고, 'ㄹ'이 덧생기는 'ㄹ' 불규칙 활용이 적용되어 '불리다'가 된 것이다.
- ③ '(줄이) 꼬이다'는 동사 어간 '꼬-'를 어근으로 하여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피동사이다.
- ④ "경찰이 도둑을 잡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가 되어 능동문의 목적어 '도둑을'이 피동문의 주어 '도둑이'로 바뀐다.
- ⑤ '만나다', '싸우다'와 같이 대칭되는 대상이 필요한 동사는 피동사로 파생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버지와) 다투다'도 대칭 대상을 필요로 하는 동사로 피동 접미사와 결합되지 않는다.

3 답 ⑤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⑤ 사동사에 의한 단형 사동은 맥락에 따라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으나, '-게 하다'에 의한 장형 사동은 간접 사동의 해석만을 허용한다. ㉠은 '-게 하다'에 의한 장형 사동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스스로 우유를 먹도록 시켰다는 의미의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된다. 반면, ㉡은 사동사 '먹이다'에 의한 단형 사동으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 모두로 해석된다.

왜 오답

- ①, ② ㉠을 단형 사동문으로 바꾸면 '아이들이 얼음 위에서 팽이를 돌린다.'가 된다. 이를 통해 ㉠의 주어('팽이가')가 단형 사동문에서 목적어('팽이를')로 바뀌며, 서술어 자릿수가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④ ㉡을 단형 사동문으로 바꾸면 '선생님께서 지원이에게 그 일을 맡겼다.'가 된다. 이를 통해 ㉡의 주어('지원이가')가 단형 사동문에서 부사어('지원이에게')로 바뀌며, 서술어 자릿수가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답 ⑤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⑤ ㉡의 '땀기시면'은 현대 국어에서 '땀기시면'으로 쓰이므로, 어근 형태가 '땀-'에서 '땀-'으로 달라진 것이 맞다. 그러나 각각의 어근에 결합한 사동 접미사는 '-기-'로 같다.

왜 오답

- ① '얼우시고(㉠)'에는 어근 '얼-'에 사동 접미사 '-우-'가, 현대 국어 '얼리시고'에는 사동 접미사 '-리-'가 결합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다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 ② ㉢을 통해 현대 국어에 쓰인 '-게 하다'가 15세기 국어에 서는 '-게 하다'의 형태를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을 통해 현대 국어에서는 어근 '앉-'과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형태가 드러나도록 '앉히시고'와 같이 쓰는 반면, 15세기 국어에서는 '안치시고'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은 어근 '살-'에 사동 접미사 '-으-'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로, '-으-'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어휘

• 성금: 정성으로 내는 돈.

문장과 답화

18 잘못된 문장

확인 1 답 (1) ㉠ (2) ㉢ (3) ㉣ (4) ㉤

이래서 정답

- (1) '열릴지'의 주어가 없으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된 문장이다. '축제가' 등의 주어를 추가해야 한다.
- (2) '하고 있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된 문장이다. '운동을' 등의 목적어를 추가해야 한다.
- (3) '넣었다'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없으므로,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된 문장이다. '물에'와 같은 부사어를 추가해야 한다.
- (4) 부사어 '아무리'와 호응하는 연결 어미 '-아도/-어도'를 쓰지 않은 것으로,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된 문장이다.

확인 2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비단'은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부사어로, '비단 나쁜만이 아니었다.'와 같이 써야 한다. 그런데 이를 '비단 나쁜이었다.'와 같이 잘못 수정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목적어 '불편(을)'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으므로 '불편을 겪고'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 ③ 주어 '누구도'와 호응하는 서술어는 '모르고 있다'인데, 주어 '문제는'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없으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도록 '~는 것이다'를 추가해야 한다.

확인 3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ㄱ은 '밤'이 저녁 이후의 시간과 밤나무의 열매로 모두 해석되는 동음이의어여서 중의성이 나타난다.
- (2) ㄴ은 선호도의 비교 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중의성이 나타난다.

확인 4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손을 내밀다'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 외에도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 등과 같은 관용적 의미도 지닌다. 따라서 ㄴ에서 '민수가 우리 중에 가장 먼저 두 손을 내밀었다.'와 같이 단어를 추가해야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III

문장과 답화

1 답 ④

문장과 담화

[보기] 오려 보기

... 중의성은 문장의 통사 구조나 특정 어휘가 갖는 영향 범위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순을 바꿔 주거나, 문장 부호나 보조사 '은/는'을 사용한다. ...

㉠이래서 정답

- ④ ㄱ은 '친구가 모두는 오지 않았다.'와 같이 보조사 '는'을 사용하여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반면, ㄴ은 보조사 '는'으로 중의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가 떠나는 아이를 울면서 안아 주었다.'와 같이 어순을 바꾸거나, '그가, 울면서 떠나는 아이를 안아 주었다.'와 같이 문장 부호를 써야 한다.

㉡왜 오답

- ① ㄱ은 수량을 나타내는 '모두'와 부정을 나타내는 '않았다'가 함께 사용되어, 친구 중 일부가 오지 않았다는 의미와 모든 친구가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적 문장이다.
 ② ㄴ은 '울면서'의 주체가 '그'인지, '아이'인지가 불분명하여 중의성이 생긴 문장이다.
 ③ ㄷ은 '사랑스러운'이 수식하는 대상이 '친구'인지, '강아지'인지가 불분명하여 중의성이 생긴 문장이다.
 ⑤ ㄴ은 '울면서'의 위치를 바꾸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ㄷ 역시 '나는 친구의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보았다.'와 같이 어순을 바꾸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2 답 ④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④ '참여하려는'을 '참여한'으로 바꾼 것은 ㉠을 고려하여 과거 시제의 어미로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에'를 '각 지역의'로 바꾼 것은 ㉡을 고려하여 앞말이 '청소년들'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쓰이도록 조사 '에'를 '의'로 수정한 것이다. 또 '답사함으로써' 앞에 '유적지를'을 첨가한 것은 ㉢을 고려하여 목적어를 밝혀 준 것이다.

3 답 ②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② ㄴ은 음악을 좋아하는 정도에 대해서 주체인 '그'와 '나'를 비교한 것인지, 좋아하는 대상으로서 '나'와 '음악'을 비교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중의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그'와 '음악'을 비교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ㄱ은 영희가 예쁘다는 의미인지, 영희의 동생이 예쁘다는 의미인지가 불분명한 중의적 표현이다.

- ③ ㄷ은 영수가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의미인지, 친구들이 영수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의미인지가 불분명한 중의적 표현이다.
 ④ ㄴ은 학생들이 학교에 일부가 오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학생들이 학교에 모두 다 오지 않았다는 의미인지가 모호한 중의적 표현이다.
 ⑤ ㄹ은 진우가 바지를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지,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지가 불분명한 중의적 표현이다.

4 답 ①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① ㉠에서 "나는 형과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보았다."는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나와 형이 함께 보았다는 의미와 형과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내가 보았다는 의미 모두로 해석된다. 이 문장은 '함께' 등의 말을 추가하거나 어순을 바꿈으로써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지, '집에서'를 추가한 것으로는 중의성을 해소할 수 없다.

㉡왜 오답

- ② '재론'은 '이미 논의한 것을 다시 논의함.'이라는 뜻으로 '다시'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에서 '다시'를 삭제한 것이다.
 ③ '소개하다'에 '관계를 맺어 주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시키다'를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에서 '소개해'로 고친 것이다.
 ④ '구름'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으므로, ㉡에서 서술어 '끼고'를 추가한 것이다.
 ⑤ '신상품이세요.'에 쓰인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높일 필요가 없는 '제품'을 높이고 있으므로, ㉡에서 '신상품이에요.'와 같이 고친 것이다.

5 답 ①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① 친구가 키가 크다는 의미와, 친구의 동생이 키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ㄱ과 같이 '키가 큰' 뒤에 섬표를 추가하여 친구의 동생이 키가 크다는 의미만 드러나게 하였다.

㉡왜 오답

- ② 사과와 귤을 각각 두 개씩 주셨다는 의미와, 사과와 귤을 합쳐서 두 개를 주셨다는 의미 등으로 해석되므로, ㄴ에서 다른 말을 추가하여 과일의 수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다의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한 것이 아니다.
 ③ 오빠와 동생이 함께 선생님을 찾아갔다는 의미와, 오빠와 동생이 각자 선생님을 찾아갔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ㄷ에서 조사가 아닌 부사 '함께'를 추가하여 전자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였다.

- ④ 그가 고향에서 온 친구를 어제 만났다는 의미와, 고향에서 어제 온 친구를 그가 만났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ㄹ에서 '어제'의 어순을 바꾸어 전자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였다.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고 있지 않다.
- ⑤ 답을 쓴 것이 몇 개인지, 답을 쓰지 못한 것이 몇 개인지가 불분명하므로, ㄹ에서 조사 '밖에'를 추가하여 부정의 대상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였다. 어순을 변경하고 있지 않다.

6 답 ①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① ㉠은 서술어 '되었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인 보어 '회장이'를 추가하여 적절하게 고친 것이다.

왜 오답

- ② ㉡은 낚시를 좋아하는 정도에 대해 주체인 '그'와 '나'를 비교한 것인지, 좋아하는 대상으로서 '나'와 '낚시'를 비교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단어들을 추가하여 중의성을 해소한 것이다.
- ③ ㉢은 주어 '특징은'과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으므로, 서술어를 '넓다는 것이다'로 바꾸어 적절하게 고친 것이다.
- ④ ㉣은 불필요한 사동 표현인 '개선시켜야'를 '개선해야'로 바꾸어 적절하게 고친 것이다.
- ⑤ ㉤의 '조용히'는 '정숙(조용하고 엄숙함.)'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적절하게 고친 것이다.

7 답 ③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③ ㄷ의 '만약'은 연결 어미 '-ㄴ다면, -라면' 등과 호응되는 부사어이므로, '아프니'가 아닌, '아프면'으로 바뀌어야 한다.

왜 오답

- ① ㄱ의 '전혀'는 '아니다, 없다, 없다' 등의 부정 표현과만 호응하므로, '매우'로 바뀌어야 한다.
- ②, ④ ㄴ에는 '키우기에'가 필요로 하는 목적어가, ㄹ에는 '순응하기도'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각각 '동작물'과 같은 말을, '운명'을 추가해야 한다.
- ⑤ ㄹ에서 '용감한'이 '영호'를 수식하는지 '영호의 아버지'를 수식하는지 모호하므로, 아버지가 용감하다는 의미만 나타나도록 '용감한'을 '아버지는'의 앞으로 옮겨야 한다.

문해 공식 적용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전혀'+아니다, 없다 등	철수는 노래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ㄴ다면, -라면	만약 민수가 아프다면 너는 그를 돌봐 줘야 한다.

어휘

- **방자**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음.

1 답 ④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④ '야호'는 독립어, '우리가'는 주어, '드디어'는 부사어, '힘든'은 관형어, '관문을'은 목적어, '통과했어'는 서술어이므로 주성분에는 '우리가', '관문을', '통과했어'가, 부속 성분에는 '드디어', '힘든'이, 독립 성분에는 '야호'가 들어간다.

2 답 ④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④ 고쳐 쓴 문장 "할아버지께서 어제 입학 선물을 주셨다."에 추가된 부사어는 시간을 의미하는 '어제'로, 서술어 '주셨다'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누구에게)는 여전히 생략되어 있으므로 적절하게 고쳐 쓴 문장이 아니다.

왜 오답

- ① "그는 친구에게 보냈다."는 서술어 '보냈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 잘못된 문장이다.
- ② "이번 일은 결코 성공해야 한다."는 부사어 '결코'와 서술어 '성공해야 한다'가 서로 호응하지 않아 잘못된 문장이다.
- ③ "그의 뛰어난 점은 필기를 잘한다."는 주어 '그의 뛰어난 점'과 서술어 '잘한다'가 서로 호응하지 않아 잘못된 문장이다.
- ⑤ "사람들은 즐겁게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에서 목적어 '춤'과 어울리는 서술어인 '추고'를 추가하여 고쳐 쓴 문장이므로 올바른 문장 표현이다.

3 답 ③

문장과 답화

이래서 정답

- ③ 구조적 중의성 중 '수식 관계'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는 "예쁜 민지의 목소리가 들린다."와 같이 하나의 수식어('예쁜')가 둘 이상의 피수식어('민지', '목소리')를 수식할 때이다.

왜 오답

- ① 중의적 표현은 광고나 유머 등에서 표현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 ② 이 글에서 동음이의어인 '차'를 언급할 때, '엔진이 달린 탈것[車]'과 '마시는 음료[茶]'라고 쓴 것에서 동음이의어에 따른 중의성을 한자 표기의 병행을 통해 해소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 ④ 작용역의 중의성은 하나의 문장에서 어떠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다르게 해석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수량 표현 등을 통해 실현된다고 하

였다. 따라서 수량 표현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둘 이상 이 되면 작용역의 중의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강을 더 좋아한다.”는 행위의 주체 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강을 놓고 그 선호도를 비교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아버지가 행위의 대상인 ‘어머니와 강’을 놓고 그 선호도를 비교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때 ‘어머니’는 행위의 주체도 될 수 있고 대상도 될 수 있다. 따라서 비교 구문에서 특정 부분이 행위의 주체도 될 수 있고 행위의 대상도 될 수 있을 때 중의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4 답 ⑤

문장과 담화

○ 아래서 정답

- ⑤ “학생들이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한다.”는 학생들이 컴퓨터 한 대를 함께 사용하는지, 각각 한 대를 사용하는지가 불분명한 중의적 문장이다. 이때 ‘모든’을 ‘학생들이’ 앞에 추가한다고 해도 중의성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은 고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 문장의 중의성은 ‘함께’, ‘각각’을 추가하여 해소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① ‘길’은 도로 외에도 살아가는 데에 지향하는 방향이나 목적, 방법이나 수단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므로, 이로 인해 문장에 중의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길’을 ‘도로’로 바꾸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 ② ‘착한’이 ‘주희’와 ‘주희의 동생’을 모두 수식할 수 있으므로, ‘착한’을 ‘동생’ 앞에 두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 ③ 내가 ‘영호와 민주’를 함께 보았다는 의미와, 내가 영호와 함께 ‘민주’를 보았다는 의미로 모두 해석되므로, ‘나는’ 뒤에 섬표를 사용하여 전자의 의미만 드러나게 고칠 수 있다.
- ④ 회원들이 일부만 오지 않은 것인지, 모두 오지 않은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조사 ‘는’을 ‘다’ 뒤에 추가하여 전자의 의미만 드러나게 고칠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중의성 해소

문장 부호 사용	나는 영호와 민주를 보았다. → 나는, 영호와 민주를 보았다.
어순 바꾸기	착한 주희의 동생을 만났다. → 주희의 착한 동생을 만났다.
단어, 보조사 변경·추가	• 길이 없다. → 도로가 없다. • 회원들이 다 오지 않았다. → 회원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 어휘

- 병행: ① 둘 이상의 사물이 나란히 감. ②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행함.

19

담화의 특성과 표현

확인 1 답 (1) 맥락 (2) 간접 발화 (3) 담화

○ 아래서 정답

- (1) 발화가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상황을 ‘맥락’이라고 한다.
- (2) 문장의 유형과 발화 의도가 불일치하는 발화를 ‘간접 발화’라고 한다.
- (3) 화자(글쓴이), 청자(독자), 전달 내용, 맥락은 담화의 구성 요소로, 이들이 상호 작용하여 역동적으로 담화가 구성된다.

확인 2 답 ③

○ 아래서 정답

- ③ ㄴ은 평서형 종결 어미 ‘-ㅂ니다’를 사용한 평서문이지만, 7시에 와 달라는 명령 의미를 나타내므로 간접 발화이다.

⊕ 왜 오답

- ① ㄱ이 점심을 먹으러 나와서 피자집을 보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A가 평서문과 의문문을 사용하여 피자를 먹자는 요청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ㄱ의 B는 점심을 먹으러 나온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A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여, 청유문을 사용한 직접 발화를 통해 피자를 먹자고 제안하고 있다.

확인 3 답 (1) ○ (2) ○ (3) ×

○ 아래서 정답

- (1) ‘그러나’는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 표현으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 줌으로써 담화의 응집성을 높여 준다.
- (2) ‘그렇다’는 앞의 문장 “적당한 운동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용 표현으로, 문장 단위만이 아니라 단어나 문단 이상의 언어 형식도 대신할 수 있다.
- (3) ‘저기’는 화자, 청자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으로,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려고 쓰는 대용 표현이 아니다.

확인 4 답 (1) ㉠ (2) ㉡ (3) ㉢

○ 아래서 정답

- (1) ‘이’는 A가 들고 있는 옷을, ‘저건’은 A와 B 모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옷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 (2) ‘그렇게’는 앞에서 A가 말한 내용(개가 신발을 다 물어뜯어 놓은 일)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용 표현(㉡)이다.
- (3) ‘그래서’는 앞뒤의 발화를 인과의 관계로 이어 주는 접속 표현(㉢)이다.

1 답 ⑤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⑤ 승강기에서 뒤쪽에 있던 남자가 “자, 좀 내립시다!”라고 한 말에는 자신이 내릴 수 있도록 비켜 달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2 답 ⑤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⑤ ‘그거(㉠)’은 앞에서 원세가 말한 ‘다음 주에 제출할 작품’을 지칭하는 말이지, 지완이 이미 언급했던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왜 오답

- ① ‘그것(㉡)’은 원세가 갖고 있던 ‘무릎 담요’를 가리키는 말로, 담요가 지완에게는 멀고 원세에게는 가까이 있음을 나타낸다.
- ② ‘저(㉢)’는 원세와 지완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둘 다 볼 수 있는 대상인 난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지완도 난로를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그렇게(㉣)’는 원세가 앞에서 한 말 “일기예보에서는 날이 풀린다고 하던데.”를 대신 표현한 말로, 담화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 ④ ‘그나저나(㉤)’는 대화의 화제를 날씨에서 다음 주에 제출할 작품으로 돌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

3 답 ④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④ 행인 2는 행인 1이 자신에게 한국 고등학교의 위치를 아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이해하여 ㉠과 같이 답하였다. 이는 행인 1의 발화를 ‘언어적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왜 오답

- ① ㉡에서 영수는 선희와 철호가 ‘조금 춥다’고 말한 것을, 쌀쌀한 교실이라는 장소와 목적 등을 포함하는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하여 말한 것이다.
- ② ㉢에서 철호는 창문을 닫기 위해 일어나기 귀찮았다는 말을 통해 영수가 자신의 발화를 ㉢을 중심으로 정확히 이해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 ③ ㉣에서 선희는 말 그대로 조금 쌀쌀해서 말한 것이었다고 의도를 밝힘으로써, 영수에게 앞선 자신의 발화가 ㉣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 ⑤ ㉤에서 행인 1은 앞에서 한국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방법을 물어본 자신의 발화를 행인 2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하자, ㉠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바꾸어 말하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나) 담화의 맥락

한국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언어적 맥락	상황 맥락
발화의 의도	한국 고등학교의 위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함.	한국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방법을 물어봄.
대답의 예	예 / 아니요	오른쪽 길로 5분쯤 걸어가시면 됩니다.

4 답 ⑤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⑤ ‘저희(㉠)’는 화자인 후배 2가 후배 1과 자신을 함께 낮추기 위해 사용한 말로, 여기에는 청자인 선배가 포함되지 않는다.

㉡왜 오답

- ① ‘학교에서(㉡)’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서’가 붙은 부사어이고, ‘학교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은 주어로,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다.
- ② 후배 2가 ‘지난번에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했던 예산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우리(㉣)’에는 화자(선배)와 청자(후배 1,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③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 달라는 동아리’에서 ‘자신(㉤)’은 뒤에 있는 ‘동아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 ④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안에 대한 학교와 동아리 간 의견에 대해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서로(㉥)’는 ㉠의 ‘학교’와 ㉤의 ‘우리’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5 답 ②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② A가 사용한 ‘저기(㉠)’는 말을 꺼내기 거북할 때에 쓰는 감탄사이다. 화자나 청자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B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관심을 유도한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끊어진 거야(㉡)’는 ‘-어지다’를 활용한 피동 표현으로, 주체가 끊김을 당했음을 나타낸다. B는 이러한 피동 표현을 통해 전화가 끊긴 상황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아차(㉔)'는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하는 감탄사로, A의 발화를 듣고 B가 어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음을 갑자기 깨달았음을 나타낸다.
- ④ ㉔에 쓰인 '못'은 주체의 능력상 불가능하거나 어떤 원인 때문에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제 B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불가피한 일 때문임을 나타낸다.
- ⑤ ㉔은 형식상 의문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B에게 어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해 달라고 요청하는 발화이다. 이처럼 종결 표현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표현을 간접 발화라고 한다.

6 답 ⑤

문장과 담화

| 보기 | 오래 보기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이래서 정답

- ⑤ ㉔에서는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는 요청의 뜻을 나타내는 청유형 어미 '-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뮤지컬을 함께 보러 갈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㉔은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① ㉔은 평서형으로 표현되었으나, 소란을 피우는 관객에게 조용히 하라는 명령의 뜻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발화이다.
- ② ㉔은 의문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게임을 그만하라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발화이다.
- ③ ㉔은 의문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의 뜻을 담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발화이다.
- ④ ㉔은 의문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수를 하지 말라는 주의의 뜻을 담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발화이다.

+ 어휘

- **감안**: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함.
- **거북할**: 마음이 어색하고 겹언쩍어 편하지 않을.
- **소란**: 시끄럽고 어수선했.

1 답 ⑤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⑤ '거기(㉔)'는 앞선 영선의 발화 중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왜 오답

- ① <보기>의 대화 주제는 '주말 나들이 장소 정하기'이다. 그런데 "지금 저녁 먹으러 가자(㉔)."는 대화 주제와 관련 없는 말이므로, 담화의 완결성을 떨어뜨린다.
- ② '거기(㉔)'는 앞에서 영선이 말한 '놀이동산'을 대신하는 말이므로 대용 표현에 해당한다.
- ③ '여기(㉔)'와 '거기(㉔)'는 모두 선희가 보여 준 사진 속 해수욕장을 나타낸다.
- ④ '그리고(㉔)'는 두 발화를 대등하게 이어 주는 접속 표현이다.

문제 공식 적용 담화의 표현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
'여기(㉔)': 해수욕장	'거기(㉔)': 놀이동산, '거기(㉔)':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	'그리고(㉔)'

※ '거기(㉔)': 맥락에 따라 지시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대용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음.

2 답 ④

문장과 담화

이래서 정답

- ④ ㉔의 "(네가 할아버지께) 과일(을) 좀 드리고 오렴."에서 '드리고'는 과일을 받을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즉 객체를 높이고 있을 뿐, 청자이자 문장의 주체인 '너'를 높이지 않는다.

왜 오답

- ① '할아버지께서'의 '께서'는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로,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② '계셨구나'의 '계시-'는 '있다'의 높임말로,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인다.
- ③ '계셨구나'의 '-구나'는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감탄형 종결 어미로,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부각한다.
- ⑤ '오렴'의 '-렴'은 부드러운 명령이나 허락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화자는 이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에게 할아버지께 과일을 드리고 오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답 ③

문장과 담화

| 보기 | 오래 보기

지칭어와 호칭어, 높임 표현이 발달한 우리말에서는 특히 담화 상황에서 화자, 청자,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 이래서 정답

- ③ ㉠에서 문장의 객체는 ‘할아버지’로, 화자는 조사가 아닌 특수 어휘 ‘모시고’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차가 밀리는지 할머니께서도 아직 도착하지 못하셨어요.”에서 혜연은 삼촌을 기준으로 하여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신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여 ‘할머니(㉠)’라는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에서 문장의 주체인 ‘어머니’는 청자인 혜연이 높여야 할 대상이다. 이를 고려하여 화자는 특수 어휘 ‘계시다’를 통해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④ ‘어머니(㉢)’는 혜연의 어머니로, 화자가 청자인 혜연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여 사용한 지칭어이다.
- ⑤ “언니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에서 청자인 삼촌은 화자인 혜연보다 높은 대상이므로, 높임의 종결 표현 ‘-아요’를 사용하여 상대를 높이고 있다.

4 답 ④

문장과 담화

㉠ 이래서 정답

- ④ ‘그렇게 한 다음’에서 ‘그렇게’는 앞에서 말한 ‘타카 건’으로 나무 판들을 고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결어에 의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떤 차례의 바로 뒤’를 의미하므로, 직접적으로 순서나 과정을 드러내는 어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먼저’에서 ㉣만 확인할 수 있다.
- ② 지시 대명사 ‘여기’에서 ㉡만 확인할 수 있다.
- ③ 접속 표현 ‘그러니’에서 ㉡만 확인할 수 있다.
- ⑤ ‘사포질’의 반복을 통해 담화의 후반부가 ‘사포질’ 단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낼 뿐, ㉡와 ㉣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어휘

- 부각: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 사포질: 까칠까칠한 물건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려고 사포로 문지르는 일.

국어규범

20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확인 1 답 (1) ○ (2) ○ (3) ×

㉠ 이래서 정답

- (1)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 (2)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 (3)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은 규범이다.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범은 외래어 표기법이다.

확인 2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국어’는 [구거]로 발음되므로 ㉠에 따르면 ‘구거’라고 적어야 하지만 각 글자의 소리를 밝혀 적는 것이 독서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에 따라 ‘국어’로 표기한다. ‘꽃밭’은 [꼇밭]으로 발음되는데, ‘꽃[꼇]’은 ‘꽃’으로, ‘밭[받]’은 ‘밭’으로 일관되게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에 따라 원래의 형태소 모양을 밝혀 ‘꽃밭’으로 적는다. 따라서 ‘국어’, ‘꽃밭’ 모두 ㉣에 해당하는 예이다.

확인 3 답 (1) 골프 (2) 풋볼 (3) 카페

㉠ 이래서 정답

- (1) 외래어 표기법 제4항에 따르면 파열음(ㄷ, ㅃ, ㅈ, ㅊ, ㅌ, ㅍ, ㅊ, ㅋ)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으므로, ‘golf’는 ‘골프’로 적는다.
- (2) 외래어 표기법 제3항에 따르면 받침에는 ‘ㄷ’이 아닌 ‘ㅌ’이 쓰이므로, ‘football’은 ‘풋볼’로 적는다.
- (3) 외래어 표기법 제4항에 따라 ‘cafe’는 ‘카페’로 적는다.

확인 4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원어 발음을 존중하되, 국어의 말소리와 글자 체계에 맞게 표기하고 있다. 외래어의 원어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1 음운을 여러 기호로 적는다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1 음운은 1 기호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어휘

- 총칙: 전체를 포괄하는 규칙이나 법칙.

IV

외래어 표기법

1 답 ③

국어 규범

보기 | 오려 보기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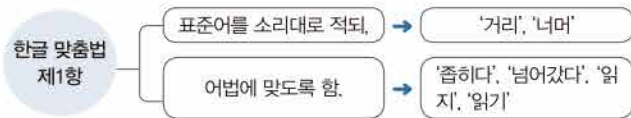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③ ㄴ의 '너머'는 '넘다'의 '넘-'에 '어'가 결합한 말로, 어원에서 떨어져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왜 오답

- ① ㄱ의 '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도 '거리'이므로,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ㄱ의 '좁히다'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은 '조피다'이다. '좁히다'를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법에 맞도록 적었음을 알 수 있다.
 ④ ㄴ의 '넘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은 '너머'이다. 본 모양을 밝혀 '넘어'로 적은 것은 뜻이 잘 파악되게 하여 독자의 능률을 올리기 위함이다.
 ⑤ ㄷ의 '읽지', '읽기'는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으로, 이는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문해 공식 적용 한글 맞춤법 제1항



2 답 ①

국어 규범

이래서 정답

- ① '밖에'는 '그것 말고는' 등을 뜻하는 조사로, 제41항에 따르면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따라서 '안개꽃 밖에(㉠)'는 '안개꽃밖에'로 붙여 써야 한다.

왜 오답

- ② '만큼'은 의존 명사와 조사로 모두 쓰일 수 있다. '너만큼(㉡)'에서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처럼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맞다.
 ③ '원'은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이므로 제43항에 따라 '천 원'은 띄어 써야 한다. 하지만 '짜리'는 '그만한 수나 양을 가진 것'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④ '줄'은 '어떤 방법, 셈속 따위를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에 따라 ㉢처럼 띄어 쓰는 것이 맞다.
 ⑤ 제43항에 따르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 붙여 쓸 수 있다. 하지만 '연구실'은 단위

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7 연구실(㉣)'과 같이 쓰는 것이 맞다.

3 답 ③

국어 규범

이래서 정답

- ③ ㉠에서 'Paris'의 파열음[P]는 제4항에 따라 된소리로 쓰지 않으므로 '파리'로 적어야 한다. ㉡의 'racket'에서 받음 [t]는 받침 표기와 관련된 것으로, 제3항에 따라 'ㅅ'으로 적어야 한다. ㉢의 [f]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호를 만들지 않고 현용 24 자모만으로 표기해야 한다.

4 답 ①

국어 규범

이래서 정답

- ① '고래 + 기름'은 [고래끼름]이 아닌 [고래기름]으로 발음된다. 합성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지 않으므로, '고래기름'이 아닌 '고래기름'으로 적는다.

왜 오답

- ②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바다 + 물'은 뒷말 '물'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바단물]로 발음되므로, '제30항-1-(2)'에 따라 '바닷물'로 적는다.
 ③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뒤 + 일'은 뒷말 '일'의 첫소리 모음 'ㅣ'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 [뉘:닐]로 발음되므로, '제30항-1-(3)'에 따라 '뉘:닐'로 적는다.
 ④ 한자어 '등교'와 순우리말 '길'이 결합한 합성어 '등교 + 길'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가 되어 [등교낄/등곧낄]로 발음되므로, '제30항-2-(1)'에 따라 '등곧길'로 적는다.
 ⑤ 한자어 '후'와 순우리말 '날'이 결합한 합성어 '후 + 날'은 뒷말 '날'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훈:날]로 발음되므로, '제30항-2-(2)'에 따라 '훈날'로 적는다.

5 답 ④

국어 규범

이래서 정답

- ④ [씩씩]은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 'ㅍ'이 발음되며,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이다. 따라서 [씩씩]은 ㉠이 아닌 ㉢에 따라 '씩씩'으로 표기해야 한다.

왜 오답

- ① [으뜸]은 두 모음 'ㅡ' 사이에서 된소리 'ㅌ'이 발음되므로, ㉡에 따라 '으뜸'으로 표기해야 한다.
 ② [거꾸로]는 두 모음 'ㅏ'와 'ㅜ' 사이에서 된소리 'ㅍ'이 발음되므로, ㉢에 따라 '거꾸로'로 표기해야 한다.
 ③ [살짝]은 '살'의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 'ㅈ'이 발음되므로, ㉣에 따라 '살짝'으로 표기해야 한다.
 ⑤ [낙찌]는 '낙'의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 'ㅈ'이 발음되는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에 따라 '낙지'로 표기해야 한다.

6 답 ①

국어 규범

㉠이래서 정답

- ① '멧쟁이'는 명사 '멧'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쟁이'가 붙어 된 말로, ㉠에 해당한다. '굴기'는 어간 '굴-'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기'가 붙어 된 말로, ㉡에 해당한다. '알따랗다'는 어간 '알-'에 접미사 '-다랗다'가 붙어 된 말로, 어간의 겹받침 중에 'ㄹ'만 드러나므로 ㉢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② '넋두리'와 '값지다'는 각각 명사 '넋'과 '값'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로 ㉠에 해당한다.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말끔하다'는 ㉢에 해당한다.
- ③ '먹거리'와 '닭시'는 각각 어간 '먹-'과 '닭-'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에 해당한다. '할짝거리다'에서 '할짝'은 어간 '할-'에 접미사가 결합한 말로,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에 해당한다.
- ④ '오희'는 부사 '오희'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이'가 결합한 말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굵적거리다'에서 '굵적'은 어간 '굵-'에 접미사가 결합한 말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에 해당한다. '짹막하다'는 어간 '짹-'에 접미사가 결합한 말로,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에 해당한다.
- ⑤ '옆구리'는 명사 '옆'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로 ㉠에 해당한다. '지우개'는 어간 '지우-'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로 ㉡에 해당한다. 어간 끝소리에 겹받침이 없는 '깊숙하다'는 ㉢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답 ⑤

국어 규범

㉠이래서 정답

- ⑤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도전해 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무엇이든지'는 올바른 표현이다.

㉡왜 오답

- ①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가든지'가 올바른 표현이다.
- ② 어떤 사람이 말을 잘했던 과거의 일에 대한 감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잘하던데'가 올바른 표현이다.
- ③ 과거에 놀랐던 감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놀랐던지'가 올바른 표현이다.
- ④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어찌하든지'가 올바른 표현이다.

1 답 ③

국어 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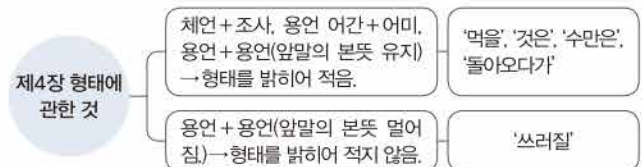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③ 4문단에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는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고 하였다. '수만은(㉢)'에서 '수'는 의존 명사로 실질 형태소이며, '만'과 '은'은 보조사로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은 형태를 밝히어 적어야 한다.

㉡왜 오답

- ① 4문단에서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 소리가 바뀔 때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먹을(㉠)'은 형태를 밝히어 적어야 한다.
- ② 4문단에서 체언에 조사가 붙어 소리가 바뀔 때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것은(㉡)'은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 ④ '돌아오다'는 '돌다'와 '오다'가 결합된 말로,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5문단에서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돌아오다(㉣)'는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 ⑤ '쓰러지다'는 '쓸다'와 '지다'가 결합한 말로,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다. 그런데 5문단에서 앞말이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쓰러질(㉤)'은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않는다.

문제 공식 적용 한글 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2 답 ②

국어 규범

㉠이래서 정답

- ② '높이'는 어간 '높-'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므로 ㉠이 아닌 ㉡에 해당하는 예이다.

㉡왜 오답

- ① '먹이'는 어간 '먹-'에 '-이'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③ '익히'는 어간 '익-'에 '-히'가 붙은 부사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④, ⑤ '고름'과 '너비'는 각각 어간에 '-음'과 '-이'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지만, 어간의 뜻과 멀어졌으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따라서 ㉢의 예로 적절하다.

3 답 ④

국어 규범

◎ 이래서 정답

- ④ 1문단에서 어간 끝모음 ‘ㄱ’ 뒤에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간 끝모음이 ‘ㄱ’인 ‘베-’ 뒤에 ‘-었-’이 결합된 ‘베-+-었-+-다’를 ‘뻬다’로 줄여도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왜 오답

- ① 1문단에서 제34항 [붙임 1]에 따르면 어간 끝모음 ‘ㄱ’ 뒤에 ‘-어’가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간 끝모음이 ‘ㄱ’인 ‘매-’에 ‘-어’가 결합한 ‘매어’는 ‘매’로 적어도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② 1문단에서 어간 끝 자음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는 경우에 원래 자음이 있었음이 고려되어 ‘ㅏ’가 줄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ㅏ’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된 ‘나아’에서는 ‘ㅏ’가 줄지 않으므로, ‘나’는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 ③ 1문단에서 모음이 줄어들어서 ‘ㄱ’이 된 경우에 ‘-어’가 결합하더라도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땅이) 패다’는 ‘파이다’의 준말이므로, ‘패어’를 줄인 ‘패’는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 ⑤ 1문단에서 모음 ‘ㅏ’로 끝난 어간에 어미 ‘-어’가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간이 ‘ㅏ’로 끝나는 ‘건너-’, ‘서-’에 ‘-어’가 결합할 때에는 준말인 ‘건너’, ‘서’로 적어야 한다.

4 답 ③

국어 규범

◎ 이래서 정답

- ③ ‘서툴다(㉠)’와 ‘머물다(㉡)’는 각각 ‘서투르다’와 ‘머무르다’에서 모음 ‘ㅡ’가 줄고 남은 자음 ‘ㄷ’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이다. 또한 ㉠, ㉡에 모음 어미 ‘-어, -었-’이 결합한 ‘*서툴어, *서툴었다’, ‘*머물어, *머물었다’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A]에는 ㉠, ㉡이 들어간다.

❖ 왜 오답

- ①, ②, ④, ⑤ ‘견다(㉢)’는 ‘거두다’에서 모음 ‘ㅏ’가 줄고 남은 자음 ‘ㄷ’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준말이다. 하지만 ㉢에 모음 어미 ‘-어, -었-’을 결합한 ‘견어, 견었다’는 표준어로 인정되므로, [A]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다(㉣)’는 ‘외우다’에서 ‘우’가 준 것이므로, [A]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어휘

• 원형: ① 본디의 꼴, ②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기 이전의 단순한 모습.

21

표준어 규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확인 1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제14항에 따르면 ‘값’의 받침 ‘ㅈ’ 중 ‘ㅈ’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데, 이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값이’는 [갑씨]로 발음해야 한다.

❖ 왜 오답

- ② ‘넓-’의 받침 ‘ㅈ’ 중 ‘ㅈ’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넓이’는 [널비]로 발음해야 한다.
- ③ ‘뭇’의 받침 ‘ㅈ’ 중 ‘ㅈ’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기고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뭇을’은 [목썬]로 발음해야 한다.

확인 2 답 (1) ㉠, ㉡, ㉢ (2) ㉡, ㉢

◎ 이래서 정답

- ① ㉠의 ‘심리[심니]’는 받침 ‘ㄹ’ 뒤에서 ‘ㄹ’을 [ㄴ]으로 발음하고, ㉡의 ‘종로[종노]’, ㉢의 ‘상록수[상록쑤]’는 받침 ‘ㅇ’ 뒤에서 ‘ㄹ’을 [ㄴ]으로 발음하므로, 제19항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② ㉡의 ‘두통약[두통냐]’은 ‘두통’과 ‘약’이 결합된 합성어로, 앞 단어의 끝이 ‘ㅇ’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야(약)’이므로, ‘ㄴ’을 첨가하여 [냐(냐)]로 발음한다. ㉢의 ‘한여름[한너름]’은 ‘한-’과 ‘여름’이 결합된 파생어로, 접두사의 끝이 ‘ㄴ’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여’이므로, ‘ㄴ’을 첨가하여 [너]로 발음한다. 따라서 ㉡, ㉢ 모두 제29항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확인 3 답 (1) haedoji (2) Wangsimni

◎ 이래서 정답

- ① 로마자 표기는 음운 변화가 된 발음을 반영하므로, ‘해돋이[해도지]’는 구개음화된 발음을 반영하여 ‘haedoji’로 표기한다.
- ② ‘왕십리[왕심니]’는 비음화된 발음을 반영하여 ‘Wangsimni’로 표기한다.

확인 4 답 (1) Bakha (2) Gyeong

◎ 이래서 정답

- ① 사람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로마자 표기에서 반영하지 않으므로, ‘박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바카]로 발음되더라도 ‘Bakha’로 표기한다.
- ②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적고, ‘ㅅ’은 ‘yeo’로 적으므로, ‘경복궁’은 ‘Gyeongbokgung’로 표기한다.

1 답 ③

국어 규범

[보기] | 오려 보기

제9항 받침 ‘ㄱ, ㅋ, ㆁ, ㄷ, ㅌ, ㄴ,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ㄴ]으로 발음한다. ...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ㄷ(ㄷ, ㅌ, ㄴ, ㄹ), ㄴ(ㄴ, ㄹ, ㅁ)’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ㄴ, ㄹ, ㅁ’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래서 정답

- ③ ‘없단다(ㄷ)’는 제23항에 따라 ‘ㄷ(ㄷ)’ 뒤에 연결되는 ‘ㄷ’을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업:판다]로 발음한다. ‘없-’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되므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인 제14항과는 관련이 없다.

왜 오답

- ① ‘맏던(ㄷ)’은 제12항에 따라 ‘ㅎ(ㅅ)’과 뒤에 오는 ‘ㄷ’이 합쳐져서 [ㅌ]으로 발음하므로, [만:던]으로 발음한다.
 ② ‘젊어(ㄷ)’는 제14항에 따라 ‘ㅁ’의 ‘ㄷ’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절머]로 발음한다.
 ④ ‘꽃(ㄷ)’은 제9항에 따라 받침 ‘ㄷ’을 대표음 [ㄷ]으로 발음하므로, [꼇]으로 발음한다.
 ⑤ ‘웃던(ㄷ)’은 제9항에 따라 받침 ‘ㄷ’을 대표음 [ㄷ]으로 발음하고, 제23항에 따라 그 뒤에 연결되는 ‘ㄷ’을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웃:던]으로 발음한다.

2 답 ①

국어 규범

이래서 정답

- ① ‘국물’은 ‘국’의 받침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어 [궁물]로 발음한다. 따라서 ‘국물’은 비음화 현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8항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다.

왜 오답

- ② ‘먹이’는 받침 ‘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된 경우로, ‘ㄱ’이 뒤 음절로 옮겨져 [머기]로 발음한다.
 ③ ‘밤낮’에서 ‘ㅈ’은 받침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밤난]으로 발음한다.
 ④ ‘식용유’는 ‘식용’에 접미사 ‘-유’가 결합된 파생어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이어지는 접미사의 첫음절이 ‘유’이므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 [뉴]로 발음한다. 그리고 첫음절의 받침 ‘ㄱ’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연음 현상도 일어나므로 [시궁뉴]로 발음한다.
 ⑤ ‘가을걷이’는 받침 ‘ㄷ’이 ‘ㅣ’ 모음과 결합하여 ‘ㅌ’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므로, [가을거지]로 발음한다.

3 답 ①

국어 규범

이래서 정답

- ① ‘고려[고려]’에서 ‘g→G’의 수정은 ㉔을 적용한 것이고, ‘l→r’의 수정은 ㉕을 적용한 것이다. ㉖을 적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왜 오답

- ② ‘발해[발해]’에서 ‘P→B’의 수정은 ㉖을 적용한 것이고, ‘r→l’의 수정은 ㉕을 적용한 것이다.
 ③ ‘백제[백제]’에서 ‘P→B’, ‘g→k’의 수정은 모두 ㉖을 적용한 것이다.
 ④ ‘신라[실라]’에서 ‘lr→ll’의 수정은 ㉕을 적용한 것이다.
 ⑤ ‘옥저[옥저]’에서 ‘o→O’의 수정은 ㉔을 적용한 것이고, ‘jj→j’의 수정은 ㉔을 적용한 것이다.

4 답 ⑤

국어 규범

이래서 정답

- ⑤ ‘않다’는 ‘ㅎ(ㅅ)’ 뒤에 ‘ㄷ’이 결합되어 [ㅌ]으로 발음하는 경우로, ㉔이 아니라 ㉖에 따라 [안타]로 발음한다.

왜 오답

- ① ‘끓고’는 ‘ㅎ(ㅅ)’ 뒤에 ‘ㄱ’이 결합되어 [ㅋ]으로 발음하는 경우로, ㉖에 따라 [끌코]로 발음한다.
 ② ‘쌓지’는 ‘ㅎ’ 뒤에 ‘ㅈ’이 결합되어 [ㅉ]으로 발음하는 경우로, ㉖에 따라 [싸치]로 발음한다.
 ③ ‘달네’는 ‘ㅎ’ 뒤에 ‘ㄴ’이 결합되어 ‘ㅎ’을 [ㄴ]으로 발음하는 경우로, ㉕에 따라 [단:네]로 발음한다.
 ④ ‘놓여’는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어 ‘ㅎ’을 발음하지 않는 경우로, ㉔에 따라 [노여]로 발음한다.

문예 공식 적용 표준 발음법 제12항

받침 ‘ㅎ’ 발음	ㅎ(ㅅ, ㅆ)+ㄱ, ㄷ, ㅈ 끓고, 않다, 쌓지	ㅋ, ㅌ, ㄷ [끌코], [안타], [싸치]
	ㅎ+ㄴ 달네	ㄴ+ㄴ [단:네]
	ㅎ(ㅅ, ㅆ)+모음 어미, 접미사 놓여	‘ㅎ’ 탈락 [노여]

5 답 ①

국어 규범

이래서 정답

- ① ㉑에서는 개정 후의 표제어 ‘굵다’의 뜻풀이에 「10」의 내용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심적 의미에 해당하는 「1」의 뜻풀이는 개정 전후로 변화가 없으므로, 중심적 의미가 수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국어사전에서 ‘[]’ 안에는 표준 발음이 제시된다. ㉠에서 ‘김밥’의 경우 개정 전에는 [김:밥]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었다가 개정 후에는 [김:밥]과 [김:뺨]이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냄새’에 대한 뜻풀이는 개정 전후로 변한 것이 없지만, ‘내음’에 대한 뜻풀이는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개정 전에는 ‘내음’이 경상도 방언으로 처리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표준어 표제어로 등재되고 새로운 뜻풀이가 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에서 ‘태양계’의 뜻풀이가 개정 전에는 ‘9개의 행성’이었다가 개정 후에는 ‘8개의 행성’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왕성을 태양계의 행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과학적 정보를 새롭게 반영한 결과이다.
- ⑤ ㉣에서는 ‘스마트폰’을 표제어로 추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문물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지칭하는 표현이 신어(새말)로서 표제어가 된 것이다.

6 답 ①

국어 규범

㉠ 이래서 정답

- ① ㉠에서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ㅀ’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땀받이[땀바지]’도 이와 같은 음운 환경을 보이는 단어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같이[가치]’의 로마자 표기가 ‘gati’가 아니라 ‘gachi’인 것을 통해, 구개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

- ② ㉡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며, 이는 ‘삭제[삭째]’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나 ‘잡다[잡따]’의 로마자 표기가 ‘japdda’가 아니라 ‘japda’인 것을 통해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반면, ‘닿아[다라]’에서는 ‘ㅎ’ 탈락이 일어난다. 한편 ‘놓지[노치]’의 로마자 표기가 ‘nohji’가 아니라 ‘nochi’인 것을 통해 용언 활용에서 거센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나며, 이는 ‘한여름[한너름]’에서도 일어난다. 한편 ‘맨입[맨닙]’의 로마자 표기가 ‘maenip’가 아니라 ‘maennip’인 것을 통해 ‘ㄴ’ 첨가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며, 이는 ‘밥물[밤물]’에서도 일어난다. 한편 ‘백미[뱅미]’의 로마자 표기가 ‘baekmi’가 아니라 ‘baengmi’인 것을 통해 비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1 답 ③

국어 규범

㉠ 이래서 정답

- ③ ㉢의 ‘별내[별래]’에서는 ‘내’의 초성 ‘ㄴ’이 앞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면, ㉢가 고유 명사라는 점과 발음을 반영하여 ‘Byeollae’로 적을 수 있다.

❖ 왜 오답

- ① ㉠의 ‘대관령[대:괭령]’에서는 ‘관’의 종성 ‘ㄴ’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면, ㉠가 고유 명사라는 점과 발음, 장모음 표기를 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하여 ‘Daegwallyeong’로 적을 수 있다.
- ② ㉡의 ‘백마[뱅마]’에서는 ‘백’의 종성 ‘ㄱ’이 뒤에 오는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면, ㉡가 고유 명사라는 점과 발음을 반영하여 ‘Baengma’로 적을 수 있다.
- ④ ㉣의 ‘삼목묘[삼몽묘]’에서는 ‘삼’의 종성 ‘ㅁ’이 뒤에 오는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목’의 종성 ‘ㄱ’이 뒤에 오는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면, ‘sammongmyo’로 적을 수 있다.
- ⑤ ㉤의 ‘물난리[물랄리]’에서는 ‘난’의 초성과 종성 ‘ㄴ’이 앞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모두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면, ‘mullalli’로 적을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음운 변동에 따른 로마자 표기법

ㄱ+ㅁ 백마	→ 비음화	ㅇ+ㅁ [뱅마]	→ 로마자	ㅇ → ng Baengma
ㄹ+ㄴ 별내	→ 유음화	ㄹ+ㄹ [별래]	→ 로마자	ㄹㄹ → ll Byeollae

2 답 ①

국어 규범

㉠ 이래서 정답

- ① ‘곤란[골:란]’은 동화음 ‘ㄹ’이 피동화음 ‘ㄴ’에 후행하는 동화(㉠)가 일어나며, 피동화음 ‘ㄴ’이 ‘ㄹ’로 바뀌어 동화음 ‘ㄹ’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가 일어난다. ‘입문[임문]’은 동화음 ‘ㅁ’이 피동화음 ‘ㅂ’에 후행하는 동화(㉢)가 일어나며, 피동화음 ‘ㅂ’이 ‘ㅁ’으로 바뀌어 동화음 ‘ㅁ’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가 일어난다.

❖ 왜 오답

- ②, ③ ‘국민[궁민]’은 동화음 ‘ㄱ’이 피동화음 ‘ㄱ’에 후행하는

동화(㉠)가 일어나며, 피동화음 ‘ㄱ’이 ‘ㅇ’으로 바뀌어 동화음 ‘ㄹ’과 조음 방법만 닮는 동화가 일어난다. ‘읍내[읍내]’는 동화음 ‘ㄴ’이 피동화음 ‘ㅂ’에 후행하는 동화(㉡)가 일어나며, 피동화음 ‘ㅂ’이 ‘ㄹ’으로 바뀌어 동화음 ‘ㄴ’과 조음 방법만 닮는 동화가 일어난다.

- ④, ⑤ ‘갈날[갈랄]’은 동화음 ‘ㄹ’이 피동화음 ‘ㄴ’에 선행하는 동화가 일어나며, 피동화음 ‘ㄴ’이 ‘ㄹ’로 바뀌어 동화음 ‘ㄹ’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㉔)가 일어난다.

3 **답** ②

국어 규범

◎이래서 정답

- ② ‘웃깃[으깃]’은 명사 ‘웃’과 명사 ‘깃’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명사이다. 받침 ‘ㄷ(ㅌ)’ 뒤에 연결되는 ‘ㄱ’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칙에 따라 ‘깃’의 ‘ㄱ’이 [ㄲ]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된소리되기에 의한 것이다. ‘웃’의 ‘ㅌ’은 사이시옷이 아니고 앞 어근의 끝소리가 안올림소리이므로 ㉗의 예로 볼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빨랫돌[빨래돌/빨랜돌]’은 ‘빨래’와 ‘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명사이다. 앞 어근의 끝소리가 모음이므로 올림소리이고, 뒤 어근의 첫소리인 ‘ㄷ’이 된소리로 바뀌므로 ㉗의 예로 볼 수 있다.
- ③ ‘홀이불[혼니불]’은 접사 ‘홀-’과 명사 ‘이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 명사이다. 발음할 때 ‘ㄴ’ 첨가가 나타나지만, 앞말이 어근이 아니라 접사이고 끝소리도 모음이나 올림소리가 아니므로 ㉘의 예로 볼 수 없다.
- ④ ‘뱃머리[뱌머리]’는 ‘배’와 ‘머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명사이다. 뒤 어근이 ‘ㄹ’으로 시작하며 모음으로 끝나는 앞 어근의 끝소리에 ‘ㄴ’이 첨가되므로 ㉘의 예로 볼 수 있다.
- ⑤ ‘깻잎[깡닙]’은 ‘깨’와 ‘잎’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명사이다.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ㄴ’로 시작되는데, 이때 앞 어근의 끝소리와 뒤 어근의 첫소리에 각각 ‘ㄴ’이 첨가되므로 ㉘의 예로 볼 수 있다.

4 답 ④

국어 규범

| 보기 | 오류 보기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ㅈ,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이래서 정답

- ④ ‘층의사’에서 ‘의’는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 4 규정에 따라 [i]로 발음할 수도 있지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 [붙임 1]에 따라 ‘wi’로 표기해야 한다.

❶ 왜 오답

- ① ‘승례문’에서 ‘례’의 ‘ㄹ’은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 2 규정에 따라 [ㄹ]로 발음하므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 2에 따라 ‘ye’로 표기해야 한다.
- ② ‘도예촌’에서 ‘예’의 ‘ㄹ’은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 2 규정에 따라 [ㄹ]로 발음하므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 2에 따라 ‘ye’로 표기해야 한다.
- ③ ‘퇴계원’에서 ‘계’의 ‘ㄹ’은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 2 규정에 따라 [ㄹ]나 [ㄴ]로 모두 발음할 수 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에 따라 [ㄹ]로 발음할 경우에는 ‘ye’, [ㄴ]로 발음할 경우에는 ‘e’로 표기해야 한다.
- ⑤ ‘광희문’에서 ‘희’는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 3 규정에 따라 [ɰ]로 발음되지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 [붙임 1]에 따라 ‘ui’로 표기해야 한다.

⊕ 어휘

- **후행** 어떠한 것보다 뒤에 처져 가거나 뒤에 있음.
- **조음** 말소리의 산출에 관여하는 발음 기관 즉, 성대, 목젖, 혀, 이, 입술 따위의 움직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선행** 어떠한 것보다 앞서가거나 앞에 있음.

확인 1 답 (1) × (2) ○ (3) ×

◎ 아래서 정답

- (1) 훈민정음은 상형의 원리를 통해 기본자를 만들고, 가획의 원리를 통해 가획자를, 합성의 원리를 통해 초출자, 재출자를 만들었다.
- (2) 자음자의 기본자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ㄷ’은 입 모양, ‘ㄱ’은 이의 모양,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모음자의 기본자 ‘ㆍ’는 하늘의 둥근 모양,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3) ‘ㄱ’에 가획하여 ‘ㅋ’을 만든 것은 맞으나, 이체자 ‘ㅇ(옛이응)’은 가획의 원리로 만든 것이 아니다.

확인 2 답 (1) 입 (2) 혀소리 (3) 초출자 (4) ㆍ

◎ 아래서 정답

- (1) ‘ㄷ’은 입술소리로, 입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2) ‘ㄴ, ㄷ, ㅌ, ㄹ’은 혀소리로, 조음 위치가 같다.
- (3) 모음자 중 ‘ㆍ, ㅡ, ㅣ’는 기본자, ‘ㅏ, ㅑ, ㅓ, ㅕ’는 초출자, ‘ㅛ, ㅜ, ㅠ, ㅡ’는 재출자이다.
- (4)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기본자는 모음자인 ‘ㆍ’이다. 자음자인 ‘ㅇ(여린히읇)’ 역시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지만, 이 글자는 기본자가 아니라 가획자이다.

확인 3 답 (1) × (2) × (3) ○ (4) ○

◎ 아래서 정답

- (1) 순음자(ㅁ, ㅂ, ㅅ, ㅈ) 밑에 ‘ㅇ’을 이어 쓰는 것을 연서라고 한다.
- (2) 중성 중에 ‘ㆍ, ㅡ, ㅏ, ㅑ’ 등은 초성의 아래쪽에, ‘ㅣ, ㅓ, ㅕ’ 등은 초성의 오른쪽에 붙여 쓰는 것을 부서라고 한다.
- (3) 같은 글자 두 개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글자를 만드는 것은 각자 병서로, ‘ㅍ, ㅌ, ㅍ, ㅌ, ㅍ, 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서 글자를 만드는 것은 합용 병서로, ‘ㅅㅅ, ㅅㅌ, ㅌㅌ, ㅌㅅ, ㅌㅍ’ 등이 이에 해당한다.
- (4) 중성 중에서 ‘ㆍ’나 가로로 된 글자는 초성 아래에, 세로로 된 글자는 초성 오른쪽에 붙여 쓴다. 따라서 ‘ㆍ, ㅡ, ㅏ, ㅑ’ 등은 초성의 아래에, ‘ㅣ, ㅓ, ㅕ’ 등은 초성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

확인 4 답 ③

◎ 아래서 정답

- ③ 서로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만든 것은 합용 병서자로, ‘ㅅㅅ’, ‘ㅌㅌ’ 등에서 초성에 쓰인 합용 병서자를, ‘ㄷㄷ’, ‘ㅎㅎ’ 등에서 종성에 쓰인 합용 병서자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만든 합용 병서자가 종성에서만 쓰였다고 볼 수 없다.

◎ 왜 오답

- ① ‘ㅅㅅ’, ‘ㅌㅌ’, ‘한’, ‘ㅎ’, ‘ㅌ’ 등을 통해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자음자나 모음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의 왼편에 방점(·, :)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성조)를 표시하였다. <보기>를 보면 ‘말’의 왼편에는 방점 ‘·’이 있고, ‘ㅌ’의 왼편에는 방점이 없으며, ‘미’의 왼편에는 방점 ‘·’이 있다. 방점의 표기가 각각 다른 점을 통해 세 글자의 소리의 높낮이가 모두 달랐음을 알 수 있다.

+ 어휘

- 상형: 어떤 물건의 형상을 본뜬.
- 가획: 원글자에 획을 더함.
- 합용: 같이 쓰거나 합하여 씀.

1 답 ②

국어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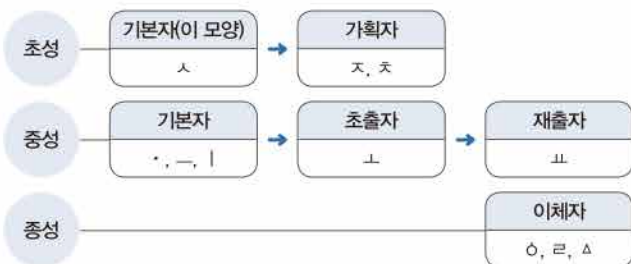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②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이[齒]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는 잇소리 'ㅅ'이며, 여기에 획을 더하여 만든 가획자는 'ㅆ, ㅈ'이다. 중성 중에서 초출자 'ㄱ'에 기본자 'ㅅ'를 결합하여 만든 글자는 재출자 'ㄲ'이다. 중성은 초성을 다시 쓰는데,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이체자는 'ㅇ, ㄹ, ㄷ'이다.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하여 글자를 만들 때, 제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글자는 '쫄'이다.

왜 오답

- ① 초성, 중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③ 초성의 'ㅅ'은 잇소리이지만 가획자가 아니며, 중성, 종성 역시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
 ④ 중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⑤ 초성, 중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문제 공식 적용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2 답 ①

국어의 역사

| 보기 | 오려 보기

가운뎃소리는 모두 열한 자다. 'ㅅ'는 혀를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소리는 깊으니, ...

이래서 정답

- ① <보기>에서 'ㅅ' (㉓)는 소리가 깊다고 하였으므로, 발음할 때 얇은 소리가 난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② <보기>에서 ㉓는 모양이 둥글고, 'ㅡ' (㉔)는 모양이 평평하다고 하였다.
 ③ <보기>에서 ㉓는 혀를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ㅣ' (㉕)는 혀를 오그라들지 않게 조음한다고 하였다.
 ④ <보기>에서 가운뎃소리는 모두 열한 자임을 언급하고, 그 중 ㉓, ㉔, 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보기>에서 ㉓는 하늘을, ㉔는 땅을, ㉕는 사람을 각각 본뜬 것이라고 하였다.

3 답 ③

국어의 역사

| 보기 | 오려 보기

훈민정음의 자음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기본자 'ㄱ, ㄴ, ㄷ, ㄹ, ㅇ'을 만들고,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기본자보다 소리가 더 세게 나는 가획자를 만들었다. 각각의 기본자와 가획자는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나타낸다. ...

이래서 정답

- ③ <보기>에서 이체자 'ㅇ, ㄹ, ㄷ'은 각각 'ㄱ, ㄴ, ㅅ'과 소리 나는 위치는 같지만 가획의 방법에 따라 만든 글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체자 'ㅇ'은 기본자 'ㅅ'을 가획하여 만든 글자라고 할 수 없다.

왜 오답

- ① <보기>의 표로 볼 때 'ㅋ'은 기본자 'ㄱ'에 가획한 것이다.
 ② <보기>의 표로 볼 때 'ㄴ'과 'ㄹ'은 혀소리로서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④ <보기>에서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기본자보다 소리가 더 세게 나는 가획자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본자 'ㅇ'에 가획하여 만든 가획자 'ㅎ'은 'ㅇ'보다 소리가 더 세게 난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훈민정음의 자음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기본자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4 답 ③

국어의 역사

이래서 정답

- ③ 이체자는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글자이다. 기본자 'ㄱ'과 가획자 'ㅋ', 이체자 'ㅇ'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체자는 가획자에 한 번 더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라고 할 수 없다.

왜 오답

- ① 'ㄱ'과 'ㅋ'이 형태상 유사한 것을 통해 훈민정음의 자음은 조음 위치가 같은 기본자와 가획자가 형태상 유사함을 알 수 있다.
 ② 가획자 'ㅋ'은 같은 어금닛소리의 기본자 'ㄱ'에 획을 하나 더한 형태로, 이를 통해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④ 모음(중성자)의 초출자는 기본자 'ㅅ, ㅈ, ㅊ'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모음의 재출자는 초출자에 기본자의 'ㅅ'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초출자와 재출자는 모두 기본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⑤ 훈민정음에서는 중성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쓴다고 하였다. 이는 자음의 수가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여 문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ㅌ, ㅍ, ㅋ(초출자)를 만들고, 여기에 다시 ‘·’를 합하여 ‘ㅍ, ㅌ, ㅍ, ㅋ(재출자)’를 만든 ㉔의 합성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 ④ 학생 4는 ‘ㅁ’에 획을 추가해 만든 자음자들(ㅂ, ㅍ)은 모두 ‘ㅁ’ 모양을 공통적으로 지니며, 이 모양은 ‘ㅁ, ㅂ, ㅍ’의 공통된 소리 특징을 반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㉔의 상형의 원리, ㉔의 가획의 원리와 관련된 것이다.
- ⑤ 학생 5는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한글이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특징 중 하나이지만, <보기 2>에는 이 특징과 관련 지어 볼 수 있는 제자 원리가 없다.

3 답 ⑤

국어의 역사

| 보기 | 오래 보기

乃·냉終중·ㅍ 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ㅍ·는·니·라
 ㅇ·를 입시·울·쏘·리 아·래 니·서 ·쓰·면 입시·울·가·빅·야·불·소
 리·득·외·는·니·라 ...

이래서 정답

- ⑤ <보기>에서 나중 소리(중성)도 첫소리(초성)와 마찬가지로 아울러 쓰려면 나란히 쓰라고 하였다. 그러나 초성은 같은 글자끼리, 중성은 다른 글자끼리 붙여서 만든다고는 하지 않았다. ‘뿔’을 통해 초성과 중성 모두 다른 글자끼리 붙여 만든 글자가 쓰임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① ‘·냉중·ㅍ 소·리·는’과 같이 글자 왼쪽에 방점(·, :)을 찍거나 혹은 찍지 않음으로써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고 있다.
- ② 초성 글자를 아울러 쓰려면 나란히 써야 하고, 이는 중성 글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이는 ‘ㅍ’, ‘쏘’, ‘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중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고 하였다.
- ④ ‘ㅇ’을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가 된다고 하였다. ‘ㅍ’, ‘ㅌ’를 통해 ‘ㅂ’의 아래에 ‘ㅇ’을 이어 쓴 ‘ㅂ’을 확인할 수 있다.

4 답 ②

국어의 역사

이래서 정답

- ② 중세 국어에서는 방점을 통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아·니·뿔·썩(㉔)’에서 ‘아’는 점이 없으므로 낮은 소리(평성), ‘니’와 ‘썩’는 점이 한 개이므로 높은 소리(거성), ‘뿔’은 점이 두 개이므로 처음은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상성)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할 때 ㉔는 ‘평성-거성-상성-거성’으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할 수 있다.

5 답 ①

국어의 역사

이래서 정답

- ① ㉔는 중성에 초성 글자를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분, 짝, 흙’은 모두 중성에 초성 글자 ‘ㄷ, ㅈ, ㄹ’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그러나 ‘스그불’도 중성에 초성 글자 ‘ㄹ’이 쓰이고 있으므로, ㉔의 예를 모두 제시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② ㉔는 순경음에 대한 내용으로, ‘사비, 스그불’에서 ‘ㅂ’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㉔는 초성(중성) 글자의 병서에 대한 내용으로, ‘뻐니, 짝, 흙’에서 각각 ‘ㅍ, ㅌ, ㄹ’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㉔는 부서에 대한 내용 중 초성 글자의 아래에 중성 글자를 붙여 쓰는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분, 스그불, 흙’에서 초성 글자 아래에 쓰인 ‘ㅍ, ㅌ, ㄹ’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㉔는 부서에 대한 내용 중 초성 글자의 오른쪽에 중성 글자를 붙여 쓰는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뻐니, 사비, 짝’에서 초성 글자 오른쪽에 쓰인 ‘ㅣ, ㅌ’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문자 운용

	문자 운용	자료
중성	초성을 다시 사용함.	분, 스그불, 짝, 흙
연서	순음 글자 아래에 ‘ㅇ’을 이어 씀.	사비, 스그불
병서	초성(중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할 때 옆으로 나란히 붙임.	뻐니, 짝, 흙
부서	초성 아래에 중성을 씀.	분, 스그불, 흙
	초성 오른쪽에 중성을 씀.	뻐니, 사비, 짝

어휘

• 자판 키(key)가 일정한 규격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 입력 장치. = 키보드

문자, 음운, 표기, 어휘상 특징

확인 1 답 (1) ㄷ (2) ㄱ (3) ㄴ

이래서 정답

- (1) 중세 국어에서는 ‘ㄷ, ㅌ’이 ‘ㅣ’나 반모음 ‘ㅣ’와 만나 ‘ㅌ,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ㄷ과 같이 현대 국어의 ‘부처’가 중세 국어에서는 ‘부터’인 것에서 알 수 있다.
- (2) 중세 국어에서는 단어 첫머리의 ‘ㄴ’, ‘ㄹ’이 본래의 소리를 잃거나 다르게 발음되는 두음 법칙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ㄱ과 같이 현대 국어의 ‘임금’이 중세 국어에서는 ‘님금’인 것에서 알 수 있다.
- (3) 중세 국어에서는 양순음 ‘ㅁ, ㅂ, ㅍ’ 뒤에 평순 모음 ‘ㅡ’가 원순 모음 ‘ㅜ’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ㄴ과 같이 현대 국어의 ‘물’이 중세 국어에서는 ‘믈’인 것에서 알 수 있다.

확인 2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니세시니’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소실 문자 ‘ㅅ’이 쓰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 ‘세’를 단모음 ‘ㅣ’로 발음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왜 오답

- ① 현대 국어의 ‘달을(달 + 을)’은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어울려 쓰이고 있다. 반면에 중세 국어의 ‘드를(들 + 을)’은 체언과 조사가 모두 양성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 ③ ‘쁘느니라’에서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어두 자음군 ‘ㅃ’이 쓰이고 있다.

확인 3 답 (1) 이어 적기 (2) ㅅ (3) 한자어

이래서 정답

- (1) 받침이 있는 말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소리 나는 대로 받침을 뒷말로 옮겨 적는 것을 이어 적기(연철)라고 한다.
- (2) 중세 국어에서는 받침에 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글자가 쓰였다.
- (3) 중세 국어에서는 한자어가 대개 유입되고 ‘ㄱ름 → 강(江)’과 같이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확인 4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거르믈’, ‘쁘들’을 현대 국어 ‘걸음을’, ‘뜻을’과 비교해 보면, 소리 나는 대로 앞말의 받침을 뒷말로 옮겨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2) 현대 국어에서는 “일곱 V 걸음을 V 걸으시며 V 이르시되”와 같이 띄어쓰기를 지켜 표기하고 있으나, 중세 국어에서는 “닐곱거르믈거르샤니르샤되”와 같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표기하였다.
- (3)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의미가 다르게 쓰인 단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휘

- 소실: 사라져 없어짐. 또는 그렇게 잃어버림.
- 대개: 한꺼번에 많이.

1 답 ⑤

국어의 역사

◎이래서 정답

- ⑤ ‘저비’는 현대 국어의 ‘제비’에 해당하는 단어로, 현대 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물·근 ㄱ ㄹ’의 현대어 풀이는 ‘맑은 강’으로,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② ‘ㅁ술’에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 ‘ㅁ’(반치음)과 모음 ‘ㅑ’(아래아)가 쓰였다.
 ③ ‘아·나’의 현대어 풀이는 ‘안아’로, 중세 국어에서는 어간의 받침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로 옮겨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방식(이어 적기)을 사용하였다.
 ④ 중세 국어에는 성조가 있었고, ‘:긴녀·ㄹ’과 같이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이를 표시하였다.

2 답 ⑤

국어의 역사

◎이래서 정답

- ⑤ ‘얼굴’은 중세 국어에서 ‘형체’라는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낯’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얼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중세 국어보다 현대 국어에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① ‘기·폰’은 어간의 받침 ‘ㅍ’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로 옮겨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② ‘:뿔·씨’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다.
 ③ ‘:를’은 현대 국어의 ‘를’과 기능은 같지만 형태가 다르다.
 ④ ‘:뿔·디·면’에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어두 자음군 ‘ㅁ’이 사용되었다.

3 답 ①

국어의 역사

| 보기 | 오려 보기

15세기 국어의 모음 중 ‘ㅑ, ㅓ, ㅕ’는 양성 모음, ‘ㅓ, ㅓ, ㅕ’는 음성 모음, ‘ㅣ’는 중성 모음에 해당한다. 당시에는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는데, ...

◎이래서 정답

- ① 현대 국어에서는 체언과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체언의 끝소리에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을/를’을 구별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에서는 받침 유무와 함께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도 고려하여 모음 조화에 따라 목적격 조사가 연결되었다. ‘사름’의

‘름’은 받침이 있고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을(㉠)’이, ‘천하’의 ‘하’는 받침이 없고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를(㉡)’이, ‘누’는 받침이 없고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를(㉢)’이, ‘뜰’은 받침이 있고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을(㉣)’이 목적격 조사로 결합된다.

4 답 ④

국어의 역사

◎이래서 정답

- ④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일 경우 앞말과 뒷말을 구별하여 적는 표기 방식이 끊어 적기이고, 앞말의 받침을 뒷말로 옮겨 적는 표기 방식이 이어 적기이다. ‘조초미(㉤)’는 현대 국어의 ‘좃음’에 해당하며 ‘좃+ㅓ+ㅣ’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은 끊어 적기가 아니라 이어 적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마릭(㉥)’은 현대 국어에서 ‘말’으로 풀이되는 것으로 보아, ‘말+익’로 분석할 수 있다. ㉥에서 ‘말’의 받침 ‘ㄹ’을 뒷말에 이어 썼으므로, 이어 적기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② 두음 법칙은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것으로, 단어 첫머리의 ‘ㄴ’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ㅚ’ 앞에서 탈락하고, 단어 첫머리의 ‘ㄹ’이 모음에 따라 탈락하거나 ‘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널오디(㉦)’는 현대 국어의 ‘이르되’와 비교해 보면, 단어 첫머리의 ‘ㄴ’이 모음 ‘ㅣ’ 앞에서 탈락하지 않고 있으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어딘(㉧)’은 현대 국어의 ‘어진’에 해당한다. ‘딘’에서 모음 ‘ㅣ’ 앞의 ‘ㄷ’이 ‘ㅌ’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노폰(㉨)’은 ‘놀+ㅓ+ㅍ’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어간의 양성 모음 ‘ㅓ’와 어울려 양성 모음을 지닌 어미 ‘-온’이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5 답 ②

국어의 역사

◎이래서 정답

- ② ‘사슴’이 ‘사슴’으로 변한 것은 단어의 둘째 음절에 놓인 모음 ‘ㅓ’가 ‘ㅓ’로 변한 것이므로 ㉠에 속하는 사례이며, ‘ㅓ장’이 ‘가장’으로 변한 것은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ㅓ’가 ‘ㅓ’로 변한 것이므로 ㉡에 속하는 사례이다.

❖왜 오답

- ① ‘마늘’이 ‘마늘’로 변한 것은 ㉠에 속하는 사례이지만, ‘흙’이 ‘흙’으로 변한 것은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ㅓ’가 ‘ㅓ’로 변한 것이므로 ㉠과 ㉡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하나’가 ‘하나’로 변한 것은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ㅓ’가

‘ㅏ’로 변한 것이므로 ㉠이 아닌 ㉡의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오늘’이 ‘오을’로 변한 것은 단어의 둘째 음절에 놓인 모음 ‘ㅏ’가 ‘ㅡ’로 변한 것이므로 ㉡이 아닌 ㉠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④ ‘사람’이 ‘사람’으로 변한 것은 둘째 음절의 ‘ㅏ’가 ‘ㅏ’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과 ㉡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다리’가 ‘다리’로 변한 것은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 ⑤ ‘아들’이 ‘아들’로 변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다섯’이 ‘다섯’으로 변화한 것은 둘째 음절의 ‘ㅏ’가 ‘ㅏ’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과 ㉡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6 답 ⑤

국어의 역사

① 이어서 정답

- ⑤ ㉡의 ‘쁘들(뽳 + 을)’, ㉣의 ‘기쁜(깊-+-은)’, ‘브람매(브롬 + 애)’를 보면 앞말의 받침을 뒷말로 옮겨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연철)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왜 오답

- ① ‘어린’, ‘여름’은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 ‘열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하나라’, ‘하느니’의 ‘하다’는 중세 국어에서는 ‘많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의 어휘의 의미가 오늘날과 다를 수 있다.
- ② ‘전촉’과 ‘뿔썩’는 현대어 풀이를 통해 ‘까닭’과 ‘흔들리므로’라는 뜻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형태의 어휘이다.
- ③ ‘ㅇ(여린히움)’, ‘ㅏ(아래아)’ 등의 문자는 중세 국어에서는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 ④ ‘퍼디’, ‘도코’는 현대 국어에서 ‘퍼지’, ‘종고’로 쓰이는데, 이는 현대 국어로 오면서 ‘ㅏ’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ㅟ’와 만나 구개음화된 것이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문자, 음운, 표기, 어휘상 특징

	중세 국어	현대 국어
문자	ㅇ, ㅏ	×
음운	퍼디, 도코(구개음화 ×)	퍼지, 종고(구개음화 ○)
표기	쁘들, 기쁜, 브람매(이어 적기)	뜻을, 깊은, 바람에(끊어 적기)
어휘	어리다, 여름, 하다	어리석다, 열매, 많다
	전촉, 뿔썩	×

+ 어휘

- **형체**: 물건의 생김새나 그 바탕이 되는 몸체.
- **낯**: 눈, 코, 입 따위가 있는 얼굴의 바탕.

1 답 ⑤

국어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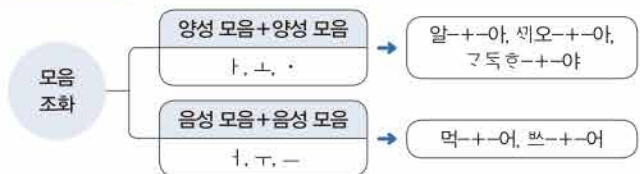
① 이어서 정답

- ⑤ 15세기 국어의 ‘ㅏ득ㅎ야’는 ‘하-’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어미 ‘-야’가 붙어 ‘-야’로 바뀐 것으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는 점에서 ㉠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가득 하얏’에서는 ‘하-’ 뒤에 어미 ‘-어’ 대신 ‘-여’가 결합되는데,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함께 쓰여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없다.

② 왜 오답

- ① 15세기 국어의 ‘아라’와 현대 국어의 ‘알아’는 양성 모음을 가진 어간 ‘알-’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다.
- ② 15세기 국어의 ‘머지’와 현대 국어의 ‘먹어’는 음성 모음을 가진 어간 ‘먹-’에 어미 ‘-어’가 결합된 것이다.
- ③ 15세기 국어의 ‘씨와’는 양성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씨오-’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고, 현대 국어의 ‘깨워’는 음성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깨우-’에 어미 ‘-어’가 결합된 것이다.
- ④ 15세기 국어의 ‘뽳’와 현대 국어의 ‘썩’은 음성 모음을 가진 어간 ‘쁘-’와 ‘쓰-’에 어미 ‘-어’가 결합된 것이다.

문해 공식 적용 15세기 국어의 모음 조화



2 답 ④

국어의 역사

① 이어서 정답

- ④ 1문단에서 조사 ‘와/과’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와’와 ‘과’는 둘 다 모음이 ‘ㅏ’이므로 모음 조화가 적용되는 이형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17세기 자료인 ㉣의 ‘초와’와 ‘파과’를 통해 17세기에 모음 조화가 약화되었음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② 왜 오답

- ① ‘겨슬’의 ‘ㅏ’와 ‘ㅡ’는 음성 모음이고, ‘ㅎ락’의 ‘ㅏ’는 양성 모음으로, 15세기 자료인 ㉡를 통해 당시에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 ② ㉡의 ‘오슬’은 체언 ‘옷’에 목적격 조사 ‘을’이 연결되어 양성 모음끼리 결합한 것이고, ‘죽을’은 체언 ‘죽’에 목적격 조사 ‘을’이 연결되어 음성 모음끼리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15세기에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

화가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ㅎ터라’에서는 ‘-터-’가 양성 모음을 지닌 ‘ㅎ-’에 결합되는데, 이를 통해 어간에 어미 ‘-터-’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㉗의 ‘늑물홀’은 ‘늑물’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것으로 15세기의 ‘늑물’이 17세기의 자료인 ㉘에서는 ‘늑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둘째 음절의 ‘·’가 ‘-’로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답 ③

국어의 역사

이래서 정답

- ③ ‘자료’에서 ‘ㅎ’ 종성 체언의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 서 연음되어 ‘술ㅎ+이→술히’와 같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왜 오답

- ① ‘자료’에서 15세기 국어에서 나타난 어두 자음군 중 맨 앞의 ‘ㅂ’은 당시에는 실제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 ② ‘자료’에서 ‘ㅍ>ㅍ’에서 보듯이 훗날 단일어에서는 어두 자음군 중 맨 앞의 ‘ㅂ’이 탈락했다고 하였다.
- ④ ‘자료’에서 현대 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에서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이 올 수 있었다고 하였다.
- ⑤ ‘자료’에서는 ‘ㅎ’ 종성 체언인 ‘살ㅎ’과, ‘고기’가 결합하여 ‘살고기’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때 ‘ㅎ’이 ‘ㄱ’과 결합하여 ‘ㅋ’으로 축약된 것에서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4 답 ③

국어의 역사

이래서 정답

- ③ a의 ‘휩쓸다’는 ‘휩-+쓸다’로 분석되는데, ‘쓸다’의 옛말인 ‘썰다’의 어두에 있는 ‘ㅂ’이 앞말 ‘휩-’의 받침 자리에 붙어 ‘휩쓸다’가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b의 ‘헐썰’은 ‘해-+썰’로 분석되는데, ‘썰’의 옛말인 ‘썰’의 어두에 있는 ‘ㅂ’이 앞말 ‘해-’의 받침 자리에 붙어 ‘헐썰’이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a, b는 ㉠에 해당한다. d의 ‘안팎’은 ‘안+밖’으로 분석되는데, ‘안’의 옛말인 ‘안ㅎ’의 ‘ㅎ’이 ‘밖’의 ‘ㅂ’과 결합하여 ‘ㅍ’으로 축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d는 ㉡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①, ②, ④, ⑤ c의 ‘수평’에서는 ‘ㅎ’ 종성 체언의 ‘ㅎ’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보기 어렵다. e의 ‘들뜨다’에서는 ‘뜨다’의 어두에 있는 ‘ㅂ’이 앞말의 받침 자리에 붙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보기 어렵다.

국어의 역사

24

중세 국어의 특징

품사, 문장 표현상 특징

확인 1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음/-음’, ‘-기’가 사용되었다.
- (2)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은 ‘ㄱ, ㄷ, ㅂ’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모/무’와 ‘느’로 끝나는 체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서 형태가 바뀌기도 하였다.
- (3) 중세 국어에서 주격 조사, 서술격 조사, 목적격 조사 등은 앞에 오는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인지 모음인지에 따라 형태가 달라졌다. 그러나 관형격 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이 유정 명사인지 무정 명사인지, 혹은 높임의 대상인지에 따라 형태가 달라졌다.

확인 2 답 (1) 이 (2) ㅅ (3) ㄹ (4) ㅎ

이래서 정답

- (1) ‘쉽’이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격 조사 ‘이’가 연결된다.
- (2) ‘부터’는 높임의 유정 명사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ㅅ’이 연결된다.
- (3) ‘나모’가 양성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ㄹ’이 연결된다.
- (4) ‘드리’가 ‘ㅣ’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 ‘ㅎ’이 연결된다. 이때 ‘ㅎ’은 형태가 없는 것이므로, 서술격 조사는 ‘라’로 쓴다.

확인 3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나랏 말쑥’에서는 ‘나라’가 무정 명사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ㅅ’이 사용되었다.

왜 오답

- ① ‘갈ㅎ’은 ‘ㅎ’ 종성 체언으로, 뒤에 ‘ㅣ’이 오면 체언 끝의 ‘ㅎ’과 결합하여 ‘ㅋ’이 된다. 따라서 ‘갈ㅎ’과 조사 ‘과’가 결합하면 ‘갈과’가 된다.
- ② ‘님금하’에서 ‘하’는 앞의 체언을 높여 부르는 높임의 호격 조사이다.

확인 4 답 (1) 설명 (2) 객체 (3) 미래

이래서 정답

- (1) ‘이제 어디 잇느뇨’는 ‘-오’형의 종결 어미가 쓰였으므로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예/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것은 판정 의문문이고, 구체적인 설명으로 답해야 하는 것은 설명 의문문이므로, '이제 어디 있느냐'에 '예/아니요'로 답할 수 없다.

- (2) '뵘습고저'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이 쓰였으므로, 객체인 세존을 높이는 표현이다.
- (3) '구드시리이다'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가 쓰였으므로,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확인 5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하산(㉠)'의 주체는 '대사'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를 사용하여 '대사'를 높이고 있다.

왜 오답

- ① '니르샤디(㉡)'의 주체는 '왕'으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를 사용하여 '왕'을 높이고 있다.
- ③ '대사 ~ 거시잇고'는 '왕'이 '선인(대사)'에게 한 말로, '거시잇고(㉢)'에서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잇-'을 사용하여 상대인 '선인(대사)'을 높이고 있다.

+ 어휘

- 유정 명사: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
- 무정 명사: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는,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키는 명사.

1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둥꺠예(㉠)'는 현대어로 '중국과'로 해석되므로, 중세 국어의 '예'가 현대 국어의 '와/과'처럼 비교를 의미하는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예'가 앞말이 장소임을 표시하는 조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오답

- ② ㉠의 '-르썌'는 현대 국어의 '-므로'에 해당하므로,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어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의 '-니'는 현대 국어의 '-은'에 해당하므로,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의 '니'는 현대 국어의 '가'에 해당하므로, 앞말이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하는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의 '을'은 현대 국어의 '을'에 해당하므로, 앞말이 문장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2 답 ①

| 보기 | 오려 보기

중세 국어 의문문의 종결 어미는 인칭의 종류와 물음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

이래서 정답

- ① 첫 번째 문장은 주어가 '부테(부처가)'로 3인칭이며 '누가, 언제'와 같은 물음말이 없으므로, ㉠에서 의문문의 종결 어미 '-니 가'나 '-르가'를 사용한다. 두 번째 문장은 주어가 '네(너는)'로 2인칭이므로, ㉡에서 의문문의 종결 어미 '-니다'를 사용한다.

문제 공식 적용 의문문

	물음말 있음.	물음말 없음.
1, 3인칭	'-니고', '-르고'와 같은 '오'형 어미	'-니가', '-르가'와 같은 '아'형 어미
2인칭	'-니다'	
	↓ 설명 의문문	↓ 판정 의문문

3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줍-'을 통해 청자가 아닌 객체를 높이고 있다. 또한 현대 국어에서 '여쭙다'를 쓴 것과 달리 높임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 왜 오답

- ① ㉠은 '효도ㅎ-+-옴'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옴'이 현대 국어의 명사형 어미 '-(으)ㅁ'과 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 ② ㉡의 'ㄷ'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어두 자음군에 해당한다.
- ③ ㉢은 '성손+올'로 분석할 수 있는데, '올'이 현대 국어의 목적격 조사 '을'과 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 ④ ㉤은 문장의 주체인 '하늘'을 높이기 위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과 같음을 알 수 있다.

4 답 ①

국어의 역사

❖ 이래서 정답

- ①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문장의 주체인 '하늘'을 높이고 있다. '성자'는 서술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객체이므로 '-시-'가 높이는 대상이 아니다.

❖ 왜 오답

- ② '-이-(㉡)'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종결 표현을 통해 상대를 높이는 것과 차이가 있다.
- ③ '-줍-(㉢)'은 객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객체를 높이는 것과 차이가 있다.
- ④ '진지(㉤)'는 '밥'을 높여 이르는 특수 어휘로, 현대 한국어에서도 이를 통해 높임을 실현한다.
- 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과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인 ㉡을 함께 써서 높임을 표현하고 있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도 '내셨습니다'와 같이 주체와 상대에 대한 높임을 함께 나타낼 수 있다.

5 답 ①

국어의 역사

| 보기 | 오려 보기

중세 한국어에서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는 선어말 어미 '-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

❖ 이래서 정답

- ① ㉠은 현대어 '가겠습니다'에 해당하는 동사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므로 선어말 어미 '-리-'를 사용한다. ㉡은 현대어 '스승이시다'에 해당하는 '체언+이다' 형태의 서술어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므로, 특정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은 현대어 '묻는다'에 해당하는 동사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므로, 선어말 어미 '-느-'를 사용한다.

6 답 ①

국어의 역사

❖ 이래서 정답

- ①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로는 '이/ㅣ/ㅍ'가 있는데, ㉠은 주격 조사 'ㅣ'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드리'는 '돌(달)+이'로 분석되는데, '돌'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기 때문에 주격 조사 '이'가 연결된다. 따라서 '드리'는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다.

❖ 왜 오답

- ②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로는 '을/을/를/를'이 있는데, ㉡은 '을, 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불'은 '밥(밥)+을'로 분석되는데, '밥'이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고 양성 모음이 있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을'이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을'이,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을'이 쓰였다.
- ③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로는 '의/의/ㅅ'이 있는데, ㉢은 '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뭇'은 '나모(나무)+ㅅ'으로 분석되는데, '나모'가 사물을 나타내는 체언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ㅅ'이 연결된다.
- ④ 중세 국어의 도구의 부사격 조사로는 '으로/으로/로'가 있는데, ㉤은 '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물로'는 '물(물)+로'로 분석되는데, '물'이 'ㄹ'로 끝나는 체언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로'가 연결된다.
- ⑤ 중세 국어의 호격 조사로는 '아/야', '여/이여/ㅣ여', '하'가 있는데, ㉤은 '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님금하'는 '님금(임금)+하'로 분석되는데, '님금'이 존대 대상인 체언이기 때문에 호격 조사 '하'가 연결된다.

❖ 어휘

- **물음말**: 의문의 초점이 되는 사물이나 사태를 지시하는 말.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어떻게', '얼마' 따위가 있다. = 의문사.
- **존대**: ① 존경하여 받들어 대접하거나 대함. ② 존대하는 말투로 대함. 또는 그러한 말투.

1 답 ④

국어의 역사

㉠이래서 정답

- ④ 중세 국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ㅣ' 모음일 경우 주격 조사를 표기하지 않았고, 'ㅣ' 모음 외의 모음일 경우 주격 조사 'ㅣ'를 썼다. 따라서 앞말이 모음일 때 무조건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

㉡왜 오답

- ①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가'가 있는데, '가'는 중세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② 중세 국어에서 앞말이 'ㅣ' 모음으로 끝나는 음운 환경일 때에는 주격 조사를 표기하지 않았다.
 ③ 현대 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을/를'인데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을/을/를/를'이었다.
 ⑤ 중세 국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목적격 조사 '을/을'을 썼는데, 그중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는 '을'을 사용하였다.

2 답 ①

국어의 역사

㉠이래서 정답

- ① ㉠과 ㉡에는 모두 관형격 조사가 들어간다. '거북(거북)'은 동물이고 음성 모음 'ㅜ'가 쓰였으므로, ㉠에는 관형격 조사 '의'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늘'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므로, ㉡에는 관형격 조사 'ㅅ'이 들어갈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관형격 조사



3 답 ③

국어의 역사

㉠이래서 정답

- ③ ㉡의 '보습고'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 사용되었다. '-습-'은 객체인 '세존'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주체인 '용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지 않다.

㉡왜 오답

- ① ㉠의 '습과ㅣ러시니'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왕'의 '일흔(이름)'을 높임으로써 '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② ㉡의 '갑습고저'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여 '님금(임금)'의 '은사'를 높임으로써 '님금'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④ ㉡의 '모도시니'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⑤ ㉡의 '공양호습게'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여 '제불'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4 답 ③

국어의 역사

㉠이래서 정답

- ③ ㉡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치아'를 높임으로써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한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해 '고모님'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생각'을 높임으로써 '그분'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는 객체 높임을, ㉡, ㉢, ㉣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학생 2는 높임의 대상이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인가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아 객체 높임과 주체 높임을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① 소유물을 높인 표현은 ㉡~㉣ 모두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분류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와 ㉢는 직접 높임, ㉡와 ㉣는 간접 높임이므로, 높임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가의 기준을 적용하면 '㉡, ㉢'와 '㉡, ㉣'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학생 1의 분류에 해당한다.
 ④ ㉡는 주체의 신체 부분인 치아를 높임으로서 실현한 간접 높임 표현이다. 반면 ㉡는 객체를, ㉢는 주체를 직접 높인 표현이고, ㉣는 주체의 생각을 높임으로써 실현한 간접 높임 표현이다. 따라서 신체 부분을 높인 표현의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와 '㉡, ㉢, ㉣'로 분류할 수 있다.
 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 모두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분류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어휘

- 세존: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다.
- 공양: 불, 법, 승의 삼보나 죽은 이의 영혼에게 음식, 꽃 따위를 바치는 일. 또는 그 음식.
- 제불: 모든 부처.



Memo